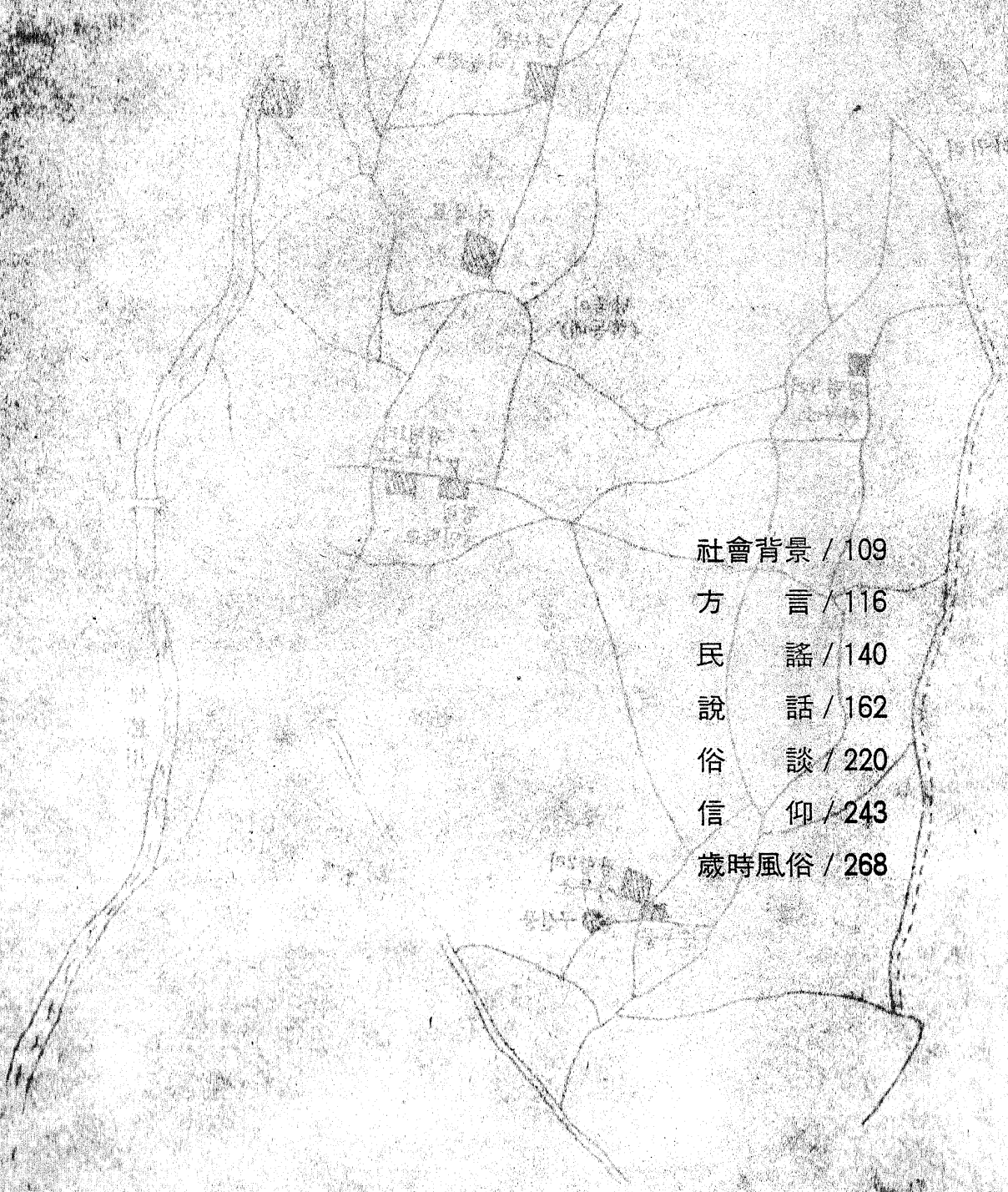


國立編譯館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社會背景 / 109

方言 / 116

民謠 / 140

說話 /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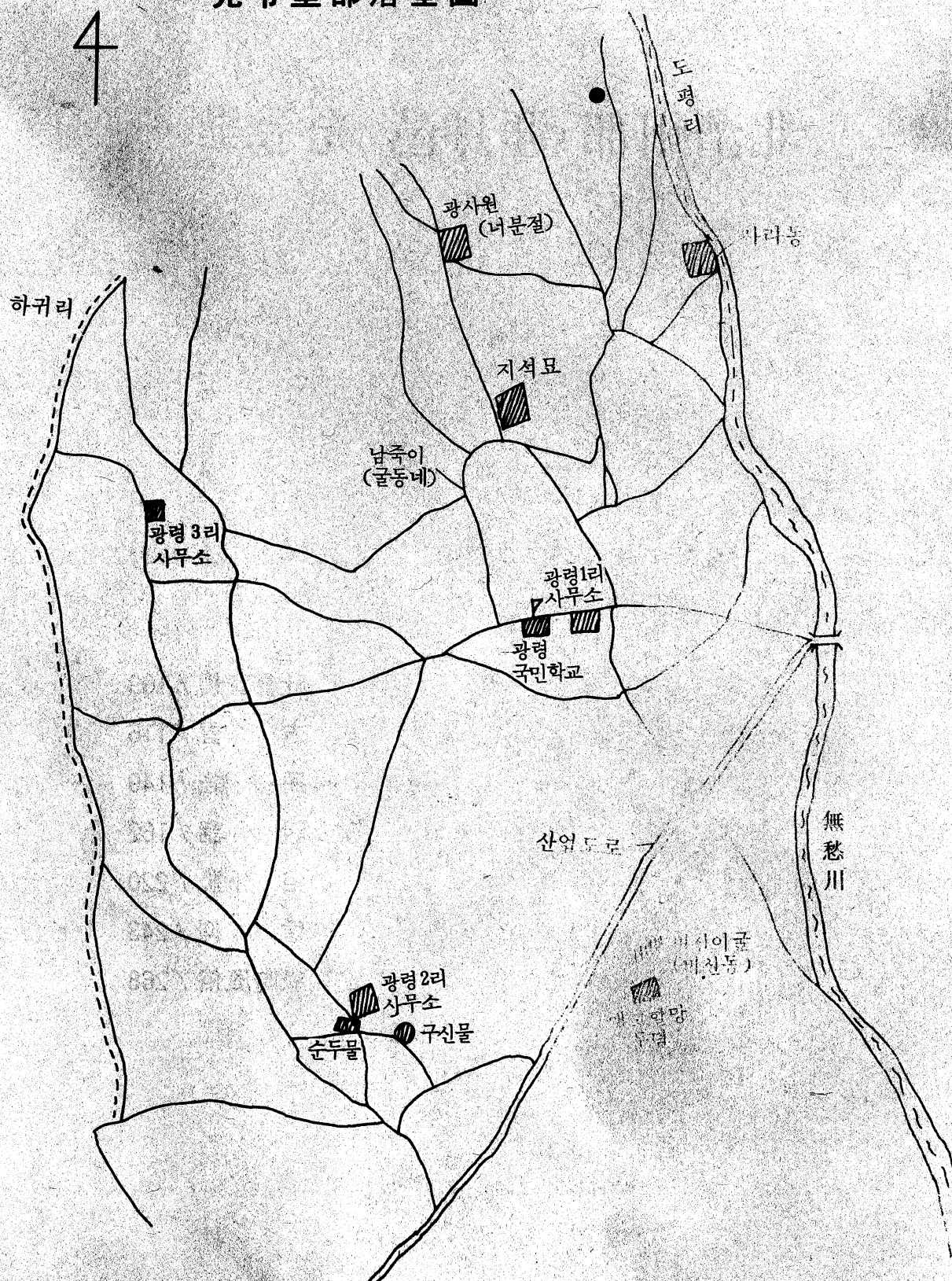
俗談 /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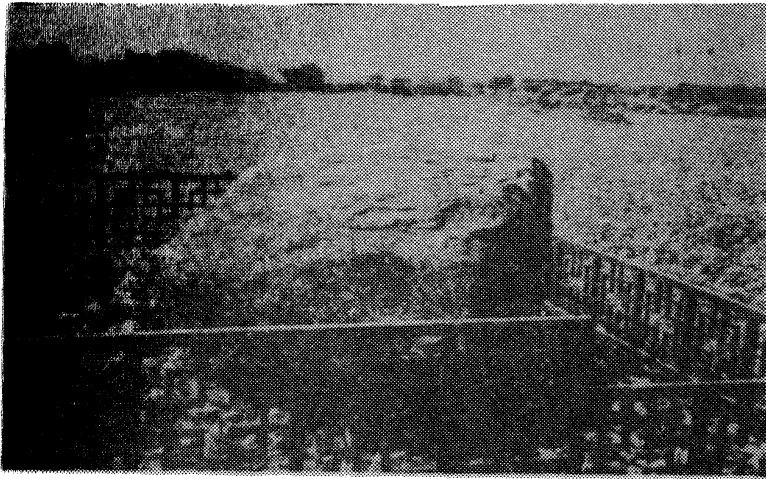
信仰 / 243

歲時風俗 / 268

光令里部落全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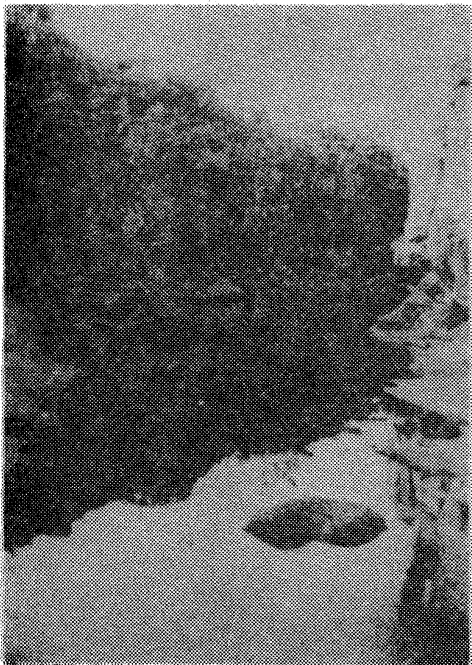


고인돌 (지방기념물 2호)

가로 3m, 세로 1.5m, 높이 1m인 이 고인돌은 전형적인 남방식 형태와 제주특유의 양식을 구비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도내에 50여기가 산재해 있다.

매고할망무덤 (광령 1리 설화 7)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 버려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오해소

광령 8경 (돌을 덧붙여 10경이라고도 함)의 하나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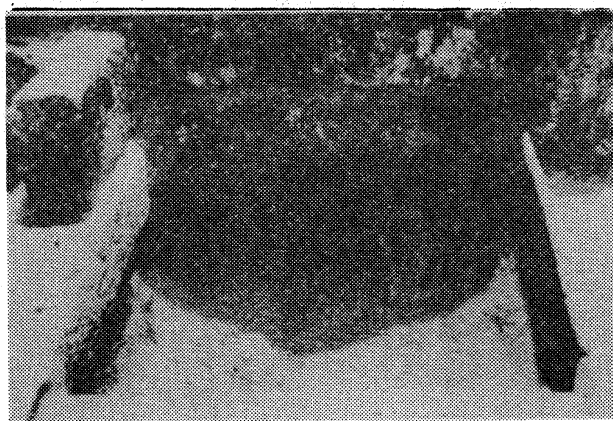


하르방당

本郷祭를 지내던 곳으로 광령 2리 사무소 동쪽에 있다.

거육대

이 물은 사람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물을 마시러 가던 송아지가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지금 이 물은 마시지 않으며 正淵과 연결되어 있다.



남죽이 (굴동네)

그릇을 구워내던 토기지대로 30년 전에 소실되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전설, 민담 등을 채록하고 있는 조사학생들, 보고서에 다 실지 못할 정도의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社 會 背 景

指導教授 沈 汝 澤

班 員 李 雨 清 (國教・4)

姜 順 汝 (國教・3)

姜 承 燦 (國教・3)

金 善 姬 (國教・3)

宋 喜 權 (國教・3)

目 次

I. 地 理 的 環 境

II. 歷 史 的 背 景

III. 人 文 概 況

I. 地 理 的 環 境

光令一里는 市・郡의 경계인 無愁川에서 서쪽으로 중산간 도로 주변인, 제주시에서 10km, 애월에서 13km, 하귀에서 8.2km, 외도동에서 3.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곳에서 광령 2리, 3리와의 거리는 1km, 0.8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해발 120 ~ 200 m의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분산되어 있고,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감귤 재배 붐이 일고 있다.

光令里는 일정 시대에는 1구와 2구(현 2리, 3리 포함)로 구분되었다가 4·3 사건 이후 1리, 2리, 3리로 나누어졌다(1952년).

주변에는 뚜렷하게 높고 낮은 지형이 없고 완만한 경사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지질은 대체로 박한 편이어서 옛부터 「콩먹는 광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生活의 어려움을 겪어 온 것 같다.

地理的 環境이 市와 인접해 있어서인지 새로운 文化, 事件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농기구의 보급률도 높다.

Ⅱ. 歷史的 背景

光令里는 고려 중엽(서기 1100년 경)에 現 부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신굴’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너분절’ 등지에서 거주하던 유목민들이 씨족 생활에서 부족 생활로 전환할 무렵에 집단 거주하여 설촌된 부락이다. 마을 주변에는 많은 전설과 유적(고인돌, 매고할망무덤, 자운당, 찰방전설, 왕자무덤 등)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마을 노인들에 따르면 ‘너분절’에 살던 사람들이 식수를 찾아 올라와 정착한 곳이 ‘光令一里’가 되었고 ‘비신굴’에 살던 사람들이 물을 찾아 내려온 곳이 ‘光令二里’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동의 이유는 주로 물(水)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광령 1리의 북쪽에 있는 ‘너분절’에는 고인돌이 5개가 있다. 또 밭을 갈다가 여러 가지 기왓장이나 석기 유물(돌도끼, 돌촉 등)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 곳에는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 같다.

‘너분절’의 유래가 고려 시대까지 밖에 소급되지 못하고, 광령 1리의 경우 ‘양씨 설촌’, 2리 ‘송씨’, 3리 ‘송씨 설촌’의 경우를 전주어 보면 선사 시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곳에 거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가 없다.

現 위치가 市와 밀접하게 접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개방적이고 현시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마을 노인들의 “물이 나는 곳에 절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말에 비추어 옛날에는 불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던 것이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너분절’, ‘비신굴’에서 발견되는 유물 유적에 대한 보존이 전혀 안된 상태이다.

유물·유적에 대해 살펴보면, ‘너분절’은 냇이 밋밋하고 척박하나 물이 있기 때문에 700여년 전 화전민들이 이 곳에 살았다. 밭갈이를 하다 보면 돌도끼와 편돌 그리고 고기왓장이 조금 나온다.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 이 곳에 내려와서 농경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매고할망 무덤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뚜렷이 들려오고 있었다. 매고할망은 70~80세가 된 할머니인데 자식이 없어 무덤을 만들고 살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배채기(질경이) 열매로 기름을 만들어서 불을 켜는데 불이 켜 있으면 살아 있고 꺼져 있으면 죽은 것으로 알고 구멍을 막아 달라고 했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멍을 막았는데 후에 도벌꾼들에 의해서 파헤쳐져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광령 8경은 광령계곡내에 있는 아름다운 여덟 경치를 말하는데, 진숫못·열부연·창굽돌·청계진·메돌·일왓내·오해소·고래소가 그것이다.

상지못은 지대가 좋아서 이 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9대를 살 정도로 집터가 매우 좋아서 지금도 부자가 산다고 한다.

남죽이(굴동네)는 토기 지대로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곳 사람들은 배한리의 굴흙을 파다가 토기를 만들고 이것을 주업으로 삼았는데 30년 전 소실되었다. 연기로 그릇을 구워내면 검은 그릇이라 하고 불로 그릇을 구워내면 붉은 그릇이라 하였다.

이 밖에도 자운당, 행중이물, 독죽굴 등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 사람들은 물 때문에 이런 곳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였다.

지방기념물 2호인 가로 3m, 세로 1.5m, 높이 1m의 고인돌은 제주도 원주민의 생활 상태를 더듬어볼 수 있는 선사 시대의 옛 무덤으로서 속칭 돌배, 돌론돌 따위로 불리운다. 본도의 주민들은 거대한 蓋石을 몇 개의 支石으로 고였으며 그 속에는 돌화살촉, 石刀(돌 칼), 石斧(돌도끼), 土器 등 부장품이 발견된다. 특히, 이 고인돌은 전형적인 남방식 형태와 제주 특유의 양식을 구비하고 있어 考古學的 價値가 매우 높으며 도내에는 5개 余基가 산재해 있다.

Ⅲ. 人文概況

이 마을은 1948년 4·3 폭동 사건으로 해안 부락 완전 소거 폐허화 되었다가

1952년 광령 1, 2, 3리(당시는 광령리로 통합되었음)가 동시 복구되어 새롭게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과 축산을 병행하여 주업으로 삼고 토기업으로 부업을 삼는 등 생활 방식은 단조로왔던 편이다.

254 세대에 인구 1227명에 이르는 이 마을은 주민의 정신 구조면에서 교육열이 매우 높았으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고 불교신자는 일부가 있을 뿐이다.

〈표 1〉 인구 및 가구

인 구			가 구		
계	남	여	계	농 가	비 농 가
1,227	597	630	254	251	3

(1978, 하귀출장소)

유일한 교육 기관인 광령국민학교는 학생 수에 있어서 서구식 형태로 생각될 만큼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편이다.

〈표 2〉

학 년 성 별	1	2	3	4	5	6
남	19	21	30	24	32	25
여	18	23	20	19	36	27

(1982, 광령국민 학교)

〈표 3〉 교육 수준

학 력	대 졸	고 졸	중 졸	국 졸	무 학
인 구	21	159	282	499	417

(1978, 광령 1리 사무소)

마을의 기관 및 자생 단체로서는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머니회 등이 있고 국민학교 육성을 위한 학부형회가 있다.

또한 광령 1리에는 약간명의 재일동포가 있어 재일동포의 도움으로 마을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마을 동쪽 리사무소 옆에는 그 분들의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거기에서 많은 노인들이 한나절을 보내기도 한다.

〈표 4〉 자생 단체

단 체 별	청 년 회	부 녀 회	새마을청소년회	어머니회	농사개량회
인 원	58	213	28	54	18

(1978, 광령 1리 사무소)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완고하고 自己體位, 비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의 정신 자세가 점차 새로와지기 시작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소득 위주의 사업과 정신 계발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市와 인접해 있어서 근대화의 물결도 매우 거센 편이며 소득이 늘수록 문화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표 5〉 문화 보급

구 분	T · V	전 축	라디오	신 문	전 기	수 도	전 화
보 유 수	67	15	213	15	248	210	시설중

(1978, 광령 1리 사무소)

광령리는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마을이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주식 위주의 맥류를 중심으로 유채, 두류, 참깨, 잡곡류, 고구마, 벼 등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부락에 비해 천수답을 중심으로 하여 벼농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표 6〉 광령리 토지 활용 상황

단위 : ha

	전	답	임 야	과 수 원	계
1 리	220.1	34.1	1017	65.8	1377
2 리	58.3	0.2	658.9	26.6	744
3 리	40.6	0.5	585	20.1	646.2

(1978, 하귀출장소)

또한 감귤을 중심으로 한 특수 작물도 활발하게 재배되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未盛果 면적이 완전하게 정리된 盛果 면적이 되면 주민들의 소득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표 7〉 특수 작물

작 물 명	재배 호수	재배 면적	미성과면적	성과 면적	생산 예산량
감 귤	137	95 ha	60 ha	35 ha	35 ha

가축 사육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소와 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

〈표 8〉 가축 사육 정도

가 축	소	말	돼 지	닭	개
사육 두수	712	28	232	50	150

〈표 9〉 농기계 보급 정도

기 계 명	동력 경운기	동력 분무기	고압식분무기	우 마 차	수동 분무기	예 초 기
보 유 수	35	38	16	87	75	12

I.C.A. (국제문제연구원 인간개발협회)가 1975년 10월 제주도 농민교육원 ITI에서 제주도내 200여 개 부락을 답사한 후 성읍, 선흘, 광령 1리로 압축해서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 광령리는 제주시 근교에 위치해 있었기에 택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강의, 토의 형식을 통해 자아 개발, 협동 의식을 강조하는 정신 교육과 경제 개발로써 공동 도정 공장, 양계장, 목욕탕, 어린이 학교, 농기구 센터, I.C.A. 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축산 개발로 우량 종자를 영국에서 가져왔고, 1978년 6월 25일에는 6·25 기념으로 광령에서 세계 대회를 개최했으나 10·26 사태 이후 활동이 중지되었다.

I.C.A.의 사업은 혜택도 주었지만 기독교 계통의 일색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광령 2리〉

이 마을의 유래를 살펴보면 거옥대라는 물이 있는데 이 곳은 마을이 전부
꽃밭으로 덮여 있으며 송아지가 나와 물을 찾은 곳이다. 그 후 사람들이 물을
찾아 이 곳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井淵은 구신물의 근원인데
정연에서 구신물이 이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작년에 이 부근에
절이 들어서고 정연의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 절은 무허가 건물이다.

광령 2리는 88戶에 337명(남 171명, 여 166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총
770.8 ha에 호당 경지 면적은 1.21 ha이다. 주작물은 맥류, 서류, 감귤이고 호
당 소득은 3,035 천원이며 통신시설은 1대가 있다.

〈광령 3리〉

광령 3리는 75가구에 341명(남 161명, 여 180명)이 살고 있다. 총면적
675 ha(畓: 1, 田: 93, 林野: 577)에 호당 경지 면적은 1.25 ha이다.

주작물은 맥류, 서류, 감귤이며 호당 소득은 2,946 천원 정도이다.

方 言

指導教授 徐 暎 錫
崔 圭 一

班 員 尹 信 子 (國教·4)
文 英 愛 (國教·3)
梁 彰 修 (國教·3)
姜 晶 植 (國教·2)

目 次

0. 調査経緯 및 記述方法	V. 飼 草 類
I. 穀 類	VI. 藥 草 類
II. 菜 蔬 類	VII. 嗜好品類
III. 雜 草 類	VIII. 其 他
IV. 木 類	

0. 調査経緯 및 記述方法

0-0. 본 보고서는 1983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광령 1리, 2리, 3리에서 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植物類에 대한 것이다.

光令里는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中山間 마을로 農事가 그 주업이 되어 왔다. 따라서 식물류에 대한 어휘와 그 성질들을 조사하기에는 알맞으리라 기대하였다.

0-1. 조사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자들은 지금까지 조사 보고되어 온 國文學報 제 4~7집 및 學術調查報告書 제 5~7집 등을 참고하면서 관련된 사진 및 식물도감 또는 그림 따위를 준비하였다.

제보자들은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같이 모여 앉게 하여 그들끼리 서로들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들이 주고 받는 대화나 얘기해 주는 사항들은 모두 준비해 간 2대의 녹음기에 녹음을 하였고,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 그때 필기해 나갔다. 제보자들은 본 조사의 목적을 위해 농사 경험이 많고 식물들의 성질 따위에도 익숙해 있는 사람을 택해야 했다.

특별히 음운 전사를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갖춘 제보자만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성별에 대한 선택 문제도 굳이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때로 여성 제보자들이 남성들은 자기네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그들을 찾아가도록 조사자들에게 권유하는 일도 있었다. 어떤 제보자들에게는 가끔 조사자들의 목적이나 조사의 가치 또는 필요성을 알려 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집안 일, 밭 일 등의 생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까다로움 없이 협조해 주어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0-2. 조사 첫 날은 광령 1리에서 준비물을 갖고 문답식의 조사를 해 보았다. 그러나 식물도감이나 사진 따위는 그들에게 다소 '현학적'으로 보였고, 또한 조사자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그들이 전부 알아 낼 수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마치 시험이나 심문을 받는 상황으로 되어 버렸음을 알았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길가나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가리켜 가면서 조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그들이 자신을 갖고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 계속 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조사를 일단 마치고 나서는 같이 모여 조사된 것들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다음날의 조사 방향과 내용을 보완 결정하였다.

이튿날도 광령 1리에서 조사하였다. 이 날 저녁 항목들은 본고의 항목과 같이 정하였다. 삼일째와 사일째는 광령 2리와 3리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이용하여 보완도 하고 차이점도 찾아 보려 하였다. 곡식

류에서 특히 여러 품종들이 있는 경우 어느 사람이 어느 곡식을 심어 보았느냐에 따라 그 이름과 성질을 알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생활 경험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이고 하위 방언으로 분류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곳으로부터 이주해 온 몇몇 제보자의 경우는 한 지역 방언의 이동으로 볼 수 있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시켰다.

0-3. 조사하면서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조(粟)가 ‘와리, 시리, 배기’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점과 풀이 ‘쿨’로, 쭉이 ‘숙’으로 발음되고 있는 점 등이었다.

본 보고서 기술 순서는 穀類, 菜蔬類, 雜草類, 木類, 飼草類, 藥草類, 嗜好品類 등이다. 각 항목마다 관련된 이름들을 나열하였고 그 다음 그들의 성질을 방언 그대로 전사하여 실었다. 조사자들이 질문일 경우는 < >로 구별하였고, 청취가 어려운 대목은 (… 不明 …)으로 표시하였다. 同物異名의 경우는 () 속에 표기하였다.

I. 穀類(곡식 종내기)

I-1. 보리(麥) : 갯보리, 줄보리(지냉이 보리), 먹보리(검은 보리), 질오리, 웨보리, 슬오리, 귀우리(귀보리, 곤보리), 꽃보리, 황태우리, 아진배기, 쌀보리

○ 갯보리 : 재건 이후에 갈았고 팡줄오리, 귀우리, 동해오리, 황태우리, 웨보리 같은 것이 있주.

○ 팡줄오리 : 갯보리라도 최고 죽어(떨어져). 질 수확(收穫)이 안 나곡, 산간에도 많이 갈았주.

○ 줄보리(지냉이보리, 麥酒麥) : 수확이 많고 자주빛 색을 띠고 있고, 보리가 붉은 거는 쌀이 적곡, 좁진 거는 쏘이 하곡. 지냉이보리라 헌 건 줄이 여러 개 박이는 것도 잇곡. 경(그렇게) 안 해영 방울이 붉는 것도 잇곡.

○ 먹보리(검은 보리) : 자주 까망, 방울이 까망.

○ 질오리 : 꺼럭진 거, 보리가 존존해서 아주 죽어. 저술(冬)에 갈주.

- 웨보리 : 倭政 직후에 갈아서. 것보리가 죽 늘인 거, 맥주맥 닮은 거. **옻**과
솔이 많이 나.
- 솔오리 : 스테(四三事件) 이후제 대중 갈았주. 이젠 보통 솔오리·것보리
이상 수확이 남주.
- 귀우리(귀보리, 곤보리) : 것보리. 꺼력만 질영 옻지 못 허곡 그냥 **쭈쭈**
해서 솔이 많이 안 나. 토종, 산간 들에 그거 웨정 때까지 갈안.
- 끝보리(꿏보리) : 여름이 갈곡 꺼력 진 거.
- 황태우리 : 것보리, 빨경.
- 아진배기 : 솔오리 종내기(種類)로 짧은 거.

〈보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예?〉

예! 보리도 여러 가집니다. 〈헌번 얘기해 줘서.〉 옛날 아주 옛날 이 뮈
육지에서 품종이 개량 아이 뉘 때, 우리들은 말입니다, 만은 귀우리라는
보리도 이서난 모양이고, 아주 그 우리 토산품인 모양이고. 귀우리라고 보
리가 옻지 못하고 그냥 쭈쭈해서 아마 이 솔이 많이 나지 아니했던 모양입니
다. 글루(這後)에 우리가 육아서 이렇게 보면은 좀 것보리나 품종이 바뀌고
서 걸 보리라고 거세기 허민 바껴져 가민 웨보리라고 우리 클 때 말덜 합니다.
〈(날래(곡식을 넣어 놓은 것)를 가리키며) 저건?〉 이것은 맥주맥입니다. 〈맥
주맥 말고 다른 걸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매. 맥주맥, 마 이 것보리
라는 게 그 옛날 허여서 우리가 식량 밥 허영 먹어난 보리가 것보리라고. 다
른 말로 그자 우리가 대맥(大麥)이라고. 〈줄보리마썸?〉 줄보리. 줄보리
가 소위 맥주맥입니다. 또 대맥은 보리고 소맥(小麥)은 밀.

I-2. 조(粟) : 흐린 조(메조), 모인 조. 흐린 조 종류로는 청돌와리, 흑돌
와리, 쉼머리시리, 꼬리시리, 개밭시리, 소용시리, 혼덕시리, 불고시리, 육지 흐
린조, 검은 생이조(흐린 생이조). 모인 조 종류로는 강돌와리, 마시리(맛시리),
흰돌와리, 바게시리, 육지 모인조, 수메시리, 7박시리, 모살시리, 돌탁시리,
돌와리

I-2-1. 우잣에 가는 조 : 강돌와리, 청돌와리, 쉼머리시리, 불고시리.

I-2-2. *난드르(山間)에 가는 조 : 소용시리, 불고시리, 게우시리, 모살시리, ㄱ박시리, 수메시리, 마시리, 아진배기

* 난드르 :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좋지 않은 땅. ㉠ 이내왓 (잉여왓)

- 청돌와리 : 옛날에 주로 했던 거주. 솔락.
- 흑돌와리 : 꺼멍.
- 쉼머리시리 : 좁쌀이 송글송글허곡 꺼멍허게 되는 거. 치민 흐랑.
- 개발시리 : 거멍케 흐린 거, 지리곡 촌직 쏘.
- 혼덕시리 : 산간 태역밭 갈앙 그디 봄 농사허곡, 산간에 갈주.
- 불고시리 : 젤(第一) 먼저 익는 거(8월). 고사리(穗)가 붉엉, 8월 추분에 웃드르(上野) 태역밭(草原) 갈아그네 조 허영 불러그네, 그거 허여그네 *서먹으멍 조 버여당 먹으멍 므시출(馬牛糞)을 해주.

* 서먹다 : 양식이 절량(絶糧)돼니까 그걸 허여당 그걸 비영 장만해서 양식허곡, 조낭은 출(糞)로 비영 어려울 때 먹는 거.

- 강돌와리 : 쏘이 노리고(黃) 제주도에서 옛날부터 허여난 거.
- 마시리(맛시리) : 웃드르 화전에 다 그거 대중 갈안. 스몫 막 산간에는 맛시리 웨에는 안 갈곡. 최고 고지에 갈아.
- 흰돌와리 : 노랑.
- 바게시리 : 터럭 북쌈. 난드르에 심는 거.
- ㄱ박시리 : 옛날 서난 거. 땅이 좋지 않은 디 좋아.
- 아진배기 : 짧은 거. 조와 마찬가지로.

이 옛날에는 농사를, 조를 많이(…不明…) 허엿다가 조내(粟莖)도 먹엿는다. 이젠 조 허는 사람이 마춤 이서도 약간 허곡. <뭐 조 같은 것도 여러 종류지 않겠습니까?> 예, 조도 거기 뭐 일름(名)이 상당히 많아쌌. 강돌와리니, 무슨, 마, 붉은 조이니 흐린 조이니 청돌와리니, 뭐, 조 일름(名)도 상당히 많이(…不明…) 우리가 주로 해난 건 무슨 저 강돌와리라는 거. 또 육짓(陸地) 흐린조라고 해서 그제 육지서 온 건 모냥임

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 원시로 옛날부터 도입이 안 돼고 허여난 거, 그
걸 아마 강돌와리라고 하는 모양이고. <뭐 또 뭐 개발시리도 있잖습니까?>
예, 개발시리, 또 그 곡석 이름으로 조에 속헌 겁니다.

I-3. 피(稗) : 강피, 무적피, 살피, 벤토피, 대나무 큰 피, 작은 피, 기장

o 강피 : 터럭(毛) 돋아 살락살락 질곡.

o 무적피 : 물탁물탁형 게 얹혀 돋아.

o 살피 : 방울 둥글둥글허곡, 드물게.

o 벤토피 : 구시영 좋아.

I-4. 나룩(中山間 地帶 以下) · 산뒤(山稻 : 中山間 地帶 以上)

츠산뒤(출산뒤 : 찹쌀), 뒤시리(뒤수), 강나룩(갈산뒤, 댜체), 원산뒤

o 뒤시리 : 옛날에 쥔 나쁜 거. 수확이 좋지 않았지만 쫄이 좋아.

o 강나룩 : 보리산뒤. 山岳 지대에서 까망.

o 원산뒤 : 쫄도 흙곡, 쫄도 좋곡, 산뒤 답곡.

I-5. 콩 : 청대콩, 흰콩, 청콩, 줄콩, 강낭콩, 보리콩, 두불콩, 머드레콩
(머드렛콩), 생이콩(약콩), 독새기콩, 팔월디(팔월동이, 팔월배, 팔월디), 돛
비, 흑해, 녹뒤

o 청대콩 : 크기가 큰 거, 푸린 콩.

o 흰콩 : 노린 콩, 전인 대충 갈았주.

o 청콩 : 푸린 콩.

o 강낭콩 : 줄로 담에 빨아 가는 거.

o 보리콩 : 2월(秋)에 보리허곡 2찌

o 두불콩 : 담에 빨아 가는 거. 봄에서 2월까지 두 번 수확, 옛날 두불콩
흙곡 붉어.

o 머드레콩 : 섞으난 *머드레. 조 갈아낸 머드레에 놓은 콩(검은 콩).

*머드레 : 대죽허곡 콩 굵고 검은 거, 독새기 콩, 섞여 뿌려. 갈아, 밭 지키랜
대죽 논 거. 조밭디도 허곡, 조밭디 붉은 꽃 머드레 허곡. 산간들에 꽃밭디꽃
을 갈민 고랑에 흰 독새기콩 붉은 걸 갈곡, 이랑엔 꽃 갈곡.

- 생이콩(약콩) : 아주 줄아, 산간 지대에.
- 독새기콩 : 푸린 거, 검은 거, 노린 것도 잇곡, 9라(여러) 종내기. 그런 게 콩 중에 질 큰 거 검은 독새기콩.
- 팔월디(팔월동이, 팔월배, 칠월디) : 8월이 되어 가민 불써 익어 부러.
- 둥비 : 줄둥비, 가마귀둥비, 붉은둥비, 흰둥비, 둥비의 서늑(모양)은 다 고아. 줄로 담이 번어가는 거.
- 흑해(흑태), 적해(적태).

I-6. 수수 : 사당대죽, 오동대죽, 빗대죽, 가마귀대죽, 몰총대죽, 살레대죽, 강낭대죽, *주송

- 사당대죽 : 돌궤롬훈(달콤한) 대죽, 믋디므디 쫄랑 어린 아으덜 주민 배경 먹당 손 비곡.
- 오동대죽(쫄대죽, 범벅대죽) : 고고린 요것 닥앙 동그랑허곡, 남은 사당대죽 닥곡, 9물은 먹는 거.
- 빗대죽 : 고고리가 지렁, 비 멩그는 거.
- 가마귀대죽 : 눈 잔뜩 감곡.

〈우리가 옛날에 우영에 갈아난 거거든 예. 손지가 귀여웁 칼로 영 잘라 주면은?〉 대죽, 사당대죽이라고! 그게 이 우린 잘 모르겠읍니다만, 옛날은 그게 사탕 원료로 쓰여난 건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 예?〉 이 건 대죽, 이것 강낭대죽, 강낭이라고, 〈그럼 이것 뭐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강낭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말로 대죽 뿌루기라고 해서, 〈요놈은 지금 줄기를 먹었거든 예? 근디 이 건 안 먹잖습니까 예?〉 이 건 종류가 뜨납니다. 예, 이놈은 이렇게 일로 믋디(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커 가지고, 고고리 질쭉허게 내미랴서, 이(…不明…)허는데 이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믋냥이 꽃 핀 것ㄴ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걸 가지고 뭘 했었습니까?〉 거 뭐 우리 이렇게 혈 때는 아으덜 익어 가민 그대로 끊어서 먹다가 그대로 고고릴 테껴도 불곡, 무슨 저 돼야지(돼지) 주곡, 이렇게 허다가, 〈이거 삶아 먹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먹어 본 적은 우리덜은 없습니다. 헌디 먹긴 먹을

겁니다. 이게 대죽이니까 뭐 9월도 들고 다 이렇습니다. 해서 혼 고고리를 해서 잘 낫다 뒷해나 되면 또 그 씨로 심고 이렇게 허는 걸 우리가 밍는데. <이거 뭐 벼게 속 같은 덴 안 놓고 예?> 안 놓습니다. 벼게 속에 놓는 건 대부분 모밀채 모밀 꺾테기.

I-7. 풋 : 적뒤, 녹뒤, 흰풋, 능갱이풋, 붉은풋, 어영디풋, 봄풋

I-8. 밍물 : 양력 8월달에 씨뿌리주.

II. 菜蔬類(송키 종내기)

II-1. 우жат에서 나는 송키 종내기

II-1-1. 배치(배춘), 당배치

II-1-2. 마농(蒜) : 패마농(토파, 가문파, 홍파), 드룻마농, 콤데사니, 뽕마농(들래, 달래), 가마귀마농, 안마농, 들마농, 녕이파

○ 콤데사니 : 뽕휘 짓엉 갑진 거.

○ 뽕마농 : 자월 속콤에 큰 놈.

○ 안마농 : 콤데사니 옆으로 돌아나는 거.

○ 들마농 : 하열에 좋아.

II-1-3. 가지 : 색으로 분류

백가지, 청가지, 죽지가지, 스뽕가지

II-1-4. 느물(蔬) : 건데느물(ㄱ새느물), 갯느물, 사발느물

○ 갯느물 : 치금 신식으로 밧디 갈아 가지고 막 푼는 거.

○ 사발느물 : 사발ㄱ찌 봉끄랑해서.

II-1-5. 늑배(무수, 무유 : 蘿菔) : 단지무수(성호완), 형수대근, 백수대근, 궁중대근, 초매기

II-1-6. 부루(상추, 상치 : 萬苣) : 썬부루, 둔부루, 푸는채부루, 치매부루(양부루, 파마부루)

Ⅱ-1-7. ㄴ초(고추 : 蕃椒) : 토ㄴ초, 양ㄴ초, 월남ㄴ초

Ⅱ-1-8. 기타 : 미나리, 시금초, 열무, 군중, 오이, 세우리, 양애

○ 양애 : 해열, 해독제로 쓰주.

〈지금 요거 같은 건데 예, 요것이 나고 난 다음에 짐치도 행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뿌리가 가느다랗고 이파린 아주 왕성하고, 걸 짐치해 먹지 않습니까? 그걸 뭐렌?〉 츠바귀, 옛날 말로 츠비귀. 〈이거 무수라고는 안 합니까?〉 시방 무슨데 옛날은 무수라고 안 허고. 이 불휘(根)짓는 느물은 츠비귀. 그냥 저 짐치담곡. 무슨 옛날 당배치, 당배치 느물 간다고 해서 그냥 갈았다가 캐여다가 짐치 담고 짐장담곡, 〈그런 거 말곡 영 허여그네 우리 지금도 참 좋아합니다만은 거 밥 쌍 먹는 거 있잖습니까? 영영 이렇게 된 거, 거 뭐라고 합니까?〉 거 사발느물, 여기서 허는데 그거 그자 일름은 어떻 허는지 걸 사발느물이라고, 사발ㄴ찌 봉끄랑해서 알기 쉽게. 〈건데 예. 거 왜 영 보기 좋게 냄새도 나곡 허는 마농마쌈.〉 패마농, 거 불리(根)짓어서 갑진 건 옛날 거 콤데사니 마늘이라 허고. 이 놈은 그냥 영 썰어서 뭐 국수ㄴ뜬 거 할 때 우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 콤데사니 말고 또 다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 대정쪽에 가니까 쉬운 개비라고 험디다〉.

요건 예 김치 대신으로 먹는 겁니다. 산에 많이 잇읍니다. 이젠 막 시장에 많이 나기도 험주게. 좀 냄새가 코시롱힙니다. 아주 고급스런 반찬입니다. 요 뿌리를 중요시해서 먹습니다마는 난시 켈 때 캡주. 드룻마농(野蒜). 거 마농인디 거 우리말로 여기선 드룻마농, 드룻마농 험니다. 〈핑마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핑마농은 아주 어디 자월 속읍에나. 큰 놈은 핑마농이라고 낄앗고, 보통 줄줄헌 놈은 그자 드룻마농, 드룻마농.

Ⅱ-2. 드르에서 나는 승키 종내기(野菜種類)

Ⅱ-2-1. 유넵(들개쌌 : 野荳葉)

Ⅱ-2-2. 재피 : 춤재피, 개재피, 논독

○ 재피 : 눈독냥 닥아도 ㄴ시롬흔 냄새가 나주.

※ 던덕 : 뿌리(根)는 식용.

II-2-3. 난시

II-3. 감저 · 지슬

〈요건 마썸, 솥아 가지고 설탕보단 예, 소금에 찍엉 먹어야……〉 아, 지슬. 이젠 시방은 다 감저 감저하는데, 〈그럼 이젠 소로 중경도 허곡 이걸 먹어 불가부덴 영 멩에도 씹우곡 예? 이젠 땅 속에 팡 묻지 않습니까? 줄기도 영 묻곡마썸.〉 아, 감저. 〈예.〉 이거 시방은 고구마. 헨디 옛날 우리 말헔 땐 요건 감저, 요건 지슬이라고 허고 이렇게 했는데, 시방은 대개 보면은 이젠 감저엔 허곡 고구마 이러는데 우리 옛날 쏸기는 이젠 감저 이젠 지슬 그렇게 말했는데 글썽로는 마령스 뭐.

II-4. 초기(버섯) : 송이초기, 말뚝버섯, 독초기

○ 말뚝버섯 : 맛 좋고 톨뚝 초기라고 말헔지.

○ 독초기(빌버섯, 벨버섯) : 먹으면 광(狂)나, 먹으면 하늘에 벨밖에 안 보여.

II-5. 고사리 : 베염고사리(브얌고사리), 허공고사리, 돛고사리, 브고사리, 침고사리, 둔고사리, 쓴고사리, 흰고사리, 실고사리

○ 베염고사리 : 담 어염에 쉬염 복스락헌 거. 안 먹어.

○ 허공고사리 : ㄴ눈ㄴ눈허곡 어염에 복스락이 난 거. 안 먹는 거.

○ 돛고사리 : 비리(피부염) 치료.

○ 침고사리 : 식용.

○ 둔고사리(고베기고사리)

○ 쓴고사리 : 제사상에 쓰는 거.

○ 실고사리 : 뱀을 방제헔주.

〈고사리도 산에서 그냥 비였수과?〉 담 고망에 이신 고사린 틀립니다. 고사리도 브염고사리도 싯곡, 허궁고사리도 잇고 싯고사리도 잇곡, 둔고사리도 잇고, 쓴고사리도 잇고. 요즘 쓴고사리로 제사 때에 쓰곡, 고매기엔 현 고사리도 잇곡. 〈브염고사린 어떤 형채고 예?〉 담 어염에 쉬염 복스락헌 거, 〈허궁 고사린 어떤거라 마썸?〉 그게 허궁 고사립주게. 아니 허궁고사리 ㄴ는ㄴ는 허곡, 영 허영 어염에 복스락이 난 거. 〈브염고사리영ㄴ든 종내기파?〉 〈둔고사린 먹어 보민 들ㄴ름헝니까?〉 들ㄴ름혀여. 〈이거 다 먹는 것과?〉 아니 브염고사리, 허궁고사리 안 먹나. 고매기엔 현 건 요즘 거꺼다가 풀곡 먹음도 허곡.

Ⅲ. 雜草類(검질 종내기)

Ⅲ-1. 밧검질 : 대오리(대우리), 감비역, 진쿨, 비늬, 역귀, 절마니, 천상쿨, 물웃, 빈네, 벤네, 멘쿨, 삼마, 미마, 속, 해바라기쿨, 베체기, 쉼터럭, 정뱅이, 가마귀술, 꿩밧쿨, 제한지, 상고지, 북쿨, 생계쿨, ㄴ르할미, 게라디쿨, 난시, 물모작쿨, 흑스앵이, 정동, 콧, 모시, 사스락쿨

- 대오리 : 보리왔디 많이 나주. 미국 대우리, 보통 대우리.
- 감비역 : 감부기.
- 비늬 : 쉼비늬, 개비늬, 춤비늬. 맛 좋고 시금초 닮은 거.
- 절마니 : 스건 때 승키 허여당 먹어난 거. 연한 것, 쉼 것.
- 빈네 : 줄 번어서 입에 땅에서만 번어서 섭이 너플너플한 것.
- 멘쿨(멀망쿨, 먼쿨) : 여름에 잡지롱헝게 스메 모양으로 생긴 것이주.
반음 시작허여그네 탁 더꺼정.
- 삼마 :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되고 약용으로 많이 쓰여.
- 미마 : 뽕휘가 섭드레 곡석드레 줄이 막 낭 감아져 (=옛날 나팔꽃).
- 속(𪎮) : 위 나쁜 사람 속만 먹으면 좋아. 속버들, 쉼속, 순속, 신속(약용), 본속(희뚜룩헌 털이 나곡 ㄴ루(粉)에 버무려서 떡 칭 먹곡).
- 해바라기쿨 : 고장은 아닌디, 고장이 피영 고장도 해바라기고장ㄴ찌 해 저

가민 그레 고장 자우라지곡 저레 자우라지곡

- 가마귀술 : 개나리 모양에 둥글둥글 몽글하게 줄 번영 땅에 바싹 붙는 거.
- 제한지(제완이) : 방석 ㄱ찌 벌어져.
 - 들제한지 : 섭이 폭삭한 거.
 - 개제한지 : 섭이 출락출락한 거.
 - 북제한지 : 종자도 녹이곡 밧디 짹 차주, 떡도 행 먹곡 우트레 크곡 북삭하게 덤벼.
- 상고지 : 밧디 나며 논에는 나지 앓고 제초제로도 잘 안 죽고. 약용.
- ㄱㄷ할미 : 매영 검질 생전 안 저. 삼년 곱아도(旱) 안 죽영 살아.
- 게라디쿨(게자풀) : 크로바.
- 흑스앵이 : 녁쿨성이면서 가시가 잇주.
- 정동 : ◦ 떡정동
 - 참정동 : 둥글락한 거. 술랑술랑한 거. 모자 멩그는 거.

Ⅲ-2. 연못에 나는 풀 : 연꽃, 연귀, 저스살

Ⅲ-3. 몸에 달라 붙는 검질 : 가마귀스새, 삼스새, 개즈남, 췌아기, 유낭, 개자말, 갈마귀바늘, 왕스새, 가래기

- 가마귀스새(가마귀바늘) : 바늘 ㄱ찌 생겨서.
- 삼스새 : 여름 나민 땅으로 번어서, 가시 이서서 영 넘어 땡겨 나민 양말에 등땡이에 문뜩 붙어서.
- 개즈남 : 양말에 붙으는 거, 둥글락한 거.
- 가래기 : 꿀로 빨는 거.

〈요건 뭐라고 험니까? 아까 요 울레에 있었읍니다〉 풀이 하도 많아 노니 뭐 풀인지 우리 이 농사히는 사람도 밧에 나는 검질덜 뭐 이거여 저거여 뭐. 〈그럼 그 밧에 나는 검질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요.〉 밧에 나는 검질덜도 뭐 여기에 제한지라고 해서 예. 이렇게 커서 방석 ㄱ찌 벌어져서 밑으로 벌어져서 예. 건 뭐 제한지도 두 종류. 북제한지라는 놈은 우트레 크곡 이 알로 번는 건 밑불린 제한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고 밧에 나는 검

질은 상당히 많았주. 무슨, 소위 그게 아마 일름(名)이 쇠털모양에 즈직이 많이 나니까 그런지 쇠터럭이라는 풀도 있고, 뭐 복줄이니 뭐 역귀니. 소위 천상쿨이라고 해서 나무꺾 크게 나는 풀도 있고. 또 이 드르에 보면은 풀 일름 거 그전인 엇엇던 이 스태(四・三事件) 이후엔 밧디 팍 퍼진 걸, 뭐, 그전 우리가 커울 땐 보면 그런 풀을 못 밧는다. 그걸 꼭 고장쿨 해서 해영케 고장 피듯 하는 풀이 있고. 뭐 이 출일름(黜名)으로도 여기 이렇게 보면 뭐 이 절히 쉼 허여당 맥이는 진황이니 스새니 뭐 하도 많아. <그 이름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 밧디 드르에 나는 거, 저 고장 피고 가시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 소앙이라는 놈도 거 가시 돌아서 이런 풀도 거기에 많이 있고. <뭐 줄로 번어 가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줄로 번는 것도 많이 이십주. 무슨 그거 일름을 그전 담쟁이라고 합니다. 담에 이렇게 부르는 거. 저기 저 잇는 게 송악, 송악줄이라고. 저영 담에 많이 있고. <저기 저 번어가는 이파리 큰 건 뭘니까? 저 노란꽃 핀 겁니다.> 거 뭐 소과웰 겁니다. 소과웨 허는 거. <그럼 저것이 엇힐 때 놓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 촌에서 열매 열면 웨꺾 그대로 반찬도 행 먹곡 허는 거고. 또 저 호박 종류 저 국이라는 놈도, <아 영 썰민 희양헌 거 나오는 거.> 거 박 허는 거마씨. <예!> 저기 저 썸(葉) 풀럭풀럭헌 거. 바지는 거, 거 모시라고. 또 저 똑 모시꺾튼 거, 엇보기 쉬운 건디 우리 여기말로 진이라고 헌 풀이 또 잇읍니다. 거 뭐 꺾테기 베껴서 옛날은 그걸로 베도 맨들고. <뭐 풀에 가시 잇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이십주. <그 소앵이를 비롯해 가지고 예?> 예! <그런 거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 드르에 강 봐시민 뭘 풀이다 알아질 건디 똥 공력이니 알 수가 이서야지. 이 풀이 아니고 가시 이름인디, 것도 소앵이꺾 이렇게 해서. 이건 나무꺾 영 허영 도른질위라고 허는 가시낭이 이 밧디 뿌리로 영 나면은 질게 측꺾 막 번어 가민, 가시낭 건 우리 여기서 영 허영 도른질위, 도른질위, 아마 거 멀리 줄번어 노니까 도른질위라고 허는 모양이고, 그 도른질위허고 새비낭이 엇구수합니다. 새비낭도 이렇게 질죽이 번어 가는 거 막 고장도 피곡 가시도 돈곡, <뭐 무덤에 우리 저 봄철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풀들, 우테 나지 않습니까? 봉분 우에 예? 태역같은 것도

막 잡아 먹어 버리고?〉, 잡풀을, 뭐 다 그런 거지 뭐. 속(蓬) ㄴ튼 거도 나
 곡 천상쿨이라는 풀도 고자히 나곡. 소위 태가 잘 안 입으면 검질 빈내라고
 해서 줄 벌으멍 막 나 노민 텃밭이 죽어서 태가 오몽 못 허여서. 거시기 해서
 이(…不明…) 세 종류 게 자리 <또 산담에 가민 냄새 막 나는 낭도 있잖
 습니까? 거 산담 들러 내멍 귀통이 잘라내 버리는 거.〉 거 뭐라고 허더라.
 저 나무에 냄새 잘 나는 것은 뭐 산담에도 날 수 잇고 밧디 개낭, <개낭?
 그 개짱낭 아니짜, 예?〉 아니우다. 개낭, 개짱낭허고 개낭이 뜯납니다. 개낭
 은 아주 냄새가 지독허곡. 이 우리 옛날 보리 이렇게 헐 때 보리를 해서 항에
 노면은 그 독 북부리엥 헐 것을 구해서 그 개낭을 허여다가 그 보리 우에 더
 프민, 항 우에 더평 나두민, 와났읍니다. <그럼 가다가 풀이라든가 나무가 피
 부에 닿으면 피부병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읊기는 그런 나무도 있잖습
 니까?〉 그걸 소위 이딴 말로 풀 췌왔다고 허는데 뭘 풀인지 모르겠읍니다.
 <뭐 거명허게 읊는 것도 있잖습니까?〉 대부분이 풀밭에 댕겨서 이 몸에 상
 처 주는 것은 대부분은 소양이라마썸. 그 놈이 살에 이렇게 닿아 가지고 허
 곡. 대부분이 그 가십주게. 도른줄위 끝은 거 땅 위로 벌렁 훌으민 (…不
 明…).

IV. 木類(낭 종내기)

IV-1. 여름낭 종내기(果實木類): 탈낭, 툄, 푼철귀, 삼동, 굴, 불레, ㄴ람,
 감, 멀위, 드래, 멍, 유름, ㄴ등이, 시르미, 새비, 오미자

IV-1-1. 탈낭: 보리탈, 한탈, 가막탈, 밀탈, 개여미탈, 까마귀탈

○보리탈: 보리홀 스시에 일찍 보는 거.

○한탈: 흙고 맛이 그렇게 좋곡 7월 나민 꺼떻게 돌아(=산탈).

○가막탈(흑탈): 밀 홀 스시에 까맣해서 아주 맛 좋은 거.

○밀탈: 밀 홀 스시에.

○개여미탈: 딸기 일종, 부러기.

○까마귀탈: 태역탈, 보리탈, 밀탈 전부 가문 다음에 목장에 가민 빨경허게
 익는 거.

Ⅳ-1-2. 툇 : 800 고지 이상에 나무에 붙어.

Ⅳ-1-3. 툇철귀(퓌귀, 잡초) : 퓌툇철귀, 밀툇철귀, 보리툇철귀, 하늘툇철귀

- 퓌툇철귀 : 하늘 보명 먹으민 씨.
- 보리툇철귀 : 큰 거 먹으민 까망.

Ⅳ-1-4. 삼동(상동) : 개삼동, 참삼동, 보리삼동

Ⅳ-1-5. 굴 : 단정굴, 산물, 스유지, 나쓰미강, 진강, 유즈남, 탕즈남, 개탕쉬, 땡유지, 정굴

Ⅳ-1-6. 불레 : 밋불레, 밀불레, 굶은불레

- 밋불레 : 아주 굶은 놈(스랑스랑한 거).
- 밀불레 : 봄철에 붙어 알맹인 아주 흙어.

Ⅳ-1-7. 믱람 : 가을 들민 가망케 익는거 ; 개 믱람, 식 믱람, 춤 믱람

Ⅳ-1-8. 감 : 퓌감, 고래감, 쉼뽕감

- 퓌감 : 쟈(잔) 거. 쫓라운 거.
- 고래감 : 둥글썩 납작흔 거.
- 쉼뽕감 : 스랑허곡 뽕라진 거.

Ⅳ-1-9. 멀위 : 중당멀위, 과멀위, 춤멀위, 기멀위

- 기멀위 : 뽕휘 먹으민 직사(卽死)

Ⅳ-1-10. 기 타

- 드래 : 틀드래.
- 명 : 유름 닳은 건디 맛도 좋곡.
- ㄱ등이 : 돼야지(豚) 잘 먹지.
- 시르미 : 검지롱헌 여름, 태역밧디 줄 번어가는 거. 할로산 민등동산(만세동산 밑에) 가민 천지가 시르미.
- 새비 : 빨강헌 거.

Ⅳ-2. 재목 종내기(材木種)

Ⅳ-2-1. 소낭 : 집, 잠대, 멩에, 지게

Ⅳ-2-2. 슬피낭 : 집, 잠대(벌리), 베

Ⅳ-2-3. 굴머귀 : 집, 궤, 돛배

Ⅳ-2-4. 가시낭 : 집, 잠대(성애), 구르마

Ⅳ-2-5. 대(竹) : 삿갓, 대패리(수리대), 구역

Ⅳ-2-6. 기 타

○ 숙대낭 : 집

○ 노가리 : 집

○ 비재목 : 집

○ 황송(문장) : 집

○ 소리낭 : 집

○ 사비낭 : 집

○ 종낭 : 남신

○ 고련목(머쿠실낭) : 남신

○ 한탈낭 : 신

○ 삼동낭 : 잠대, 옷놀이

○ 버드낭 : 잠대

○ 너름 : 꼴채

○ 자굴낭 : 푸는채

※ 따비 : 제주도에 돌맹이가 많으니까 쌍따비는 쓰지 못하고 웨따비만 사용했져.

Ⅳ-3. 대 : 왕대, 수리대, 슬대, ㄴ대

Ⅳ-4. 고목 : 쪽낭, 감낭, 유저낭, 산물, 단장굴, 굴낭

Ⅳ-5. 관상수 : 돛박낭, 노가리, 단풍목, 무궁화

Ⅳ-6. 뱀이 싫어하는 식물 : 오동나무, 박하, 봉선화, 석창포, 소엽(빨간 유)

〈산에 가민 열매 먹는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많이 이십주. 산에 가민 소위 요즈음 뭐 저 시에 시장에도 많이 이십디다. 저 고지 할라 산 올라가민 소위 시르미라는 거, 검은 열매. 또 이 해변도 나무에 이렇게 잇는디 축것이 시르미ㄴ튼 건디 까망헌 게 삼동이라고, 또 고지 가민 드래, 드래 맛이 좋습니다. 무신 멀위 뭐 유름이니 무슨 오미즈니, 고지 가민 산 실(山實)이 그렇게 많아. 또 이, 산에 가민 아주 ㄴ을(秋) 들어가민 나는 거. 불경케 유는 블레라는 거. 〈것도 꺾기가 꺾은 것도 있잖습니까 예?〉 혼웃이 정 꺾지 않습니다. 그저 즈질헌 게 빨강허게 익으면, 블레나가 아주 이 웃드르 올라가민 많이 이십주. 질 혼헌 게 블레니, 〈그 또 빨강허여 가지고 예, 어린 아이덜 구슬치기 허는 것만큼 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 멩겟구슬. 멩게, 멩게 유름.

〈여긴 어떤 미강덜 허여났수과?〉 전인 땡유지도 잇엇고 소유지에 나쓰 미강, 산물도 잇엇고. 진강, 게탕쉬낭, 〈또 뭐 잇엇수과?〉 감남도 있고. 〈감남은 종류가 뭐라 마썸, 종내기가?〉 풋감도 잇곡, 쉼뽕감, 고래감도 잇곡, 이영 스랑허곡 벨라진 건 쉼뽕감엔 허곡, 둥글락 납작헌 건 고래감엔 허곡 풋감은 줄아 사람도 호끄만 허민 풋개 종내기랜 허는디. 개도 죽은 건 풋개, 큰 건 황개여 뭐여 허지 앓허여게. 풋감이 쫄라와. 〈진강은 어떤 거라 마썸?〉 영 쟈쟈헌 거. 〈옛날 뽕뽕 무슨 낭으로 허여신고 양?〉 아무 낭이나 옛날은 굴무기낭으로도 허곡. 제사 멩질 때 쓰는 쟁반도 그걸로 맨들곡, 도고리도 맨들곡. 〈옛날 지들커 허레 강 어떤 거 허영 옴니까?〉 아무 거나, 〈불 솜당 보민 양 어떤 낭은 잘 불곡 어떤 낭은 안 불곡 허지 안헉니까, 양?〉 이 춤낭, 굴무기낭ㄴ튼 건 잘 안 불어, 지금 슬남이 질 부떠, 불 솜는 디. 〈불 솜는 디 지들커 좀 쏴아 줍서.〉 옛날엔 짐질로 와당탕와당탕 솜아서, 보릿대로. 〈연기 덜 나는 낭은 없수과?〉 꽤낭이 덜 허여. 옛날엔 고지 가민 금(禁)허여그네 낭 못 허게 허민 보릿대로백이 멀로 허여. 〈할아버지, 여기 탈 있지 앓으파? 탈도 여러 종류가 있지 예?〉 탈, 여기 뭐 보리탈, 밀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보리탈, 밀탈 허느냐 허민 이걸 제가 추산

적인다, 좀 일찍 요는 것도 보리탈이라 했고, 밀이라는 건 조금 보리보다 막
 끝에 됩니다. 이러니 그 밀 홀 스시에 현 건 밀탈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려고,
 또 탈 종류가 것도 까망해서 아주 맛있는 거 이건 가마귀탈이라고 했고, 또
 저, 산에 가민 한탈이라는 거 잊읍니다. 건 바로 산탈인데 건 좋고 맛이 그렇
 게 좋습니다. 이제도 고지 그런 탈이 잊는지 잊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보
 리탈모양 보리탈 하는 것은 탈이 잇다면 굶기도 좀 굶은 것 아니겠읍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거 가지고?> 그건 밀탈인데 그 한탈낭도 질게 씹니다.
 쪽 올라가서 이렇게 허민 옛날 어른덜 한탈낭 겹죽을 벗겨다가, 인척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신 맨들라면 노꼬아서 그걸로 신도 맨들고. <꺼떻게 익고
 열매도 돛박생이가 잘 먹는다는 열매는 아주 작고 딱 누르면 잉크처럼 나는
 데?> 이 조르기 조르기 하는데 우리말로 조르기낭이라 합니다. 두린 아으
 덜 영 보민 잉끼낭 잉끼낭 영 합니다. 허고 해서 이젠 뭇인가 허고 옥편을 보
 니까 그 나무 일름이 나무 목변이 귀신 신(神)한 이런 귀신 나무라고, 춤
 아까적에 교목 아주 기본적으로 산에 나게 된 나무라고, 아주 기본 교목이
 라고 쓰여 왔고, 아주 근본에 산에 이 나무가 있어서(... 不明 ...)으로 제목
 이다. 일본 사람이 이 나무를 귀신 나무라고 그렇게 해서 스용했고, 거 아주
 스낭뵈ㄴ튼 디 가민 많읍니다. 혼번 뚫 시작허민 얼른 끈질 못해. <뭐 귀
 신이 싫어하는 나무도 있읍니까?> 예? <보통 우리 제사할 때 뭇 올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읍니까?> 그 뭇 그런 거 모르겠읍니다. <뭇, 복숭아는 올
 리지 않는덴 하지 않읍니까?> 예, 뭇 이 복숭아, 이 복숭개낭이 이 귀신을
 방대하는 낭이라 해서 두린 아일 키올라 허민 옛날 그 침을 주나 무싱거 허
 민 사람은 보민 복숭아 가지 강 꺾엉 오랜 허영 그걸로 영 침도 주는 체허
 곡 이렇게 혀서. <예, 무당덜도!> 예! 무당 아니도 우리도 아으덜 키올
 라 허영, 어뎡 아푸나 뭇해서 침 주는 하르방 올 때랑 복숭아 가지 허영 오
 랜 허여서, 그러니 이게 아마 복숭개 낭이라는 건 귀신을 방대한다고 혀여
 서 아마 혀서 그래서 그런. 우린 두린 때 키올 때 이렇게 허면은 정성허는
 사람은 집에 복숭개낭 심으민 뭇 귀신이 못 온다고 싱그지 못허게 현 예로
 이서마썸.

V. 飼草類

V-1. 쇠, 물(牛, 馬): 너서리, 유름줄, 새곰, 밤쿨, 칩섭(꼭), 스새, 어욱, 목초, 족출(콩낭, 콩코지), 암재쿨, 산디낭, 태역출, 우령산, 꺾근조, 자꼴총, 어욱, 나룩낭, 조낭, 대죽낭, 감저쿨, 진낭

V-2. 뿔끼(兎): 배채기, 생채, 목초, 돛스앵이, 자꼴총, 모시섭, 가마귀술

V-3. 염소: 담쟁이, 송악

V-4. 돼지: ㄴ등이 소리(뜰뜰이), 폭낭섭, 진풀, 조채, 모시, 돛수애, 산 뒤채, 나룩채, 모밀채

V-5. 닭(닭): 푸습새, ㄴ물(ㄴ새ㄴ물, 유채역)

아까 말한 진낭 이런 것도 대부분 새라는 놈 어욱도 들고 혀서. 저울 들
민 이놈이 쇠라는 놈은 입 건 놈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보리낭도 먹곡, 그
러니 대부분이 이 우리가 전 앓여 뵈웁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시방 우리 여
기 촌에 보리낭은 보리짚을 허여서 춤 그거 밭에서 탈곡해 나면은 다 불도
캐와 불곡 흔적이 없는데 그 보리짚도 앓다 뵈다가 그냥 썰어 가지고 누까
나 ㅎ끔 주면은 잘 먹습니다. 이 우리 광량(光令)은 시방 보리짚 냉기는 사
람은 어서마썸. 다 그냥 출 허여다가 그러니 쇠 혼 니 마리 맥이자면은 출
혼 우리 옛말로 걸 바리라고 험니다. 한 100바리 해야 <100바리 허민 두
눌?> 예! 한 눌에 다 눌 수 잇습니다.

VI. 藥草類

VI-1. 外 用

VI-1-1. 皮 部

○니끼비: 가스새, 돛고사리

○손캔 디: 물상고장, 췌상제(비누대용)

○ 비리 옮기는 것 : 옷나무, 도록

○ 기타 : 속물, 태역

Ⅵ-1-2. 지혈 : 물상고장, 들마농(하혈을 막는다) 속(청속) 베채기, 인문초

Ⅵ-1-3. 종기 : 누룩낭 뽕휘 뽕상 허민 단작 좋아 ; 쏘, 베채기, 담배, 물상 ㄱ장쿨, 비늬섬

Ⅵ-1-4. 뽕 데 : 생지황(숙지황 ; 결릴 때도 좋다)

Ⅵ-1-5. 벌레 물릴 때 : 제한지, 베채기(지냉이 물린 뽕사그네 부치민 독을 제거하지), 먹구슬엿(회충), 멀위(지냉이), 콧낭 여름(ㄱ름)

※ 1. 베염 문 던 개구리가 제일이엿 현디.

2. 뜯새 : 쫓엉 밥에 노민 뜯리가 다 죽어.

Ⅵ-2. 內 用

Ⅵ-2-1. 두통 : 박하 천금, 우령산, 고삼, 황정, 오나리

Ⅵ-2-2. 치통 : 박하 서슴, 씹우리씨

Ⅵ-2-3. 해열 : 양애, 야박화

Ⅵ-2-4. 감기 : 운동고장

Ⅵ-2-5. 신경통 : 물 ㄱ작쿨(우술), 칩, 우령산(저스살이), 오갈피, 석창포, 들국 서삼 뽕휘, 저사리

Ⅵ-2-6. 변비 : 멍줄(대먹통), 줄갱이(소먹통)

Ⅵ-2-7. 설사 : 속, 돛고사리, 인문초

Ⅵ-2-8. 구충제 : 먹구슬엿

Ⅵ-3. 해독제 : 양애, 떡정동

Ⅵ-4. 보약류

Ⅵ-4-1. 산모 : 드롬마, 춤마, 당귀, 백작약, 백지, 오나리, 인문초 (눈비 아기쿨)

Ⅵ-4-2. 보약 : 천마, 하늘애기, 환기, 목촉, 하우소(상이 촉박), 사삼(노인 보호제이며 젊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Ⅵ-5. 독 초

○ 쇠비늘 : 과음시

○ 벨버섯 : 독버섯

○ 기멀위 : 뽕회를 먹었을 때

○ 삼 마 : 과음시

* 쿿냥은 천장에 좋다.

<뱀 물린 데 뭐 풀 같은 건 안 씹니까?> 뭐 이 썰고사리가 방시한다고 허영, 지네 물리면 베채기도 허곡 제한지도 뽀사서 그 물을 허영 부비면 좋는다고. 아마 각 푸습새가 전부 무슨 쓸 곳이 이서서 헛 것 ㄴ찌마는 우린 몰라서 생지황, 백작약, 당귀 ㄴ쁜 것도 좀 심어서 허기도 허고 너삼 뽕회. <또 위가 나뽕 때는 뭘 끌령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는 모르겠읍니다. 원 약을 보면은 여기서도 무슨 뭐 허여다가 딸려도 먹는 모양이고 뭐, 대개 이 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터 위가 나쁘다던지 어떻게 복통증이 나던지 허면은 하건 풀덜 허여당 딸려 먹으면, 이거 허영 먹나 저거 허영 먹나 그렇게. 이 단웃날 말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영 생각해 보건대 이 단웃스시 뽕면은 각 (... 不明 ...)가 다 숨을 내쳐서 움이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힘이 그만큼 이서서 이런 것이 아니냐. 흔데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단웃날 백 가지 풀을 허여다가 건초 음권 허여 가지고 딸령 먹으면은 아주 만병 통치된다고. 시방도 영 보면 그 단웃날 구덕 들르곡 풀허레 땡기는 사람덜이 잇읍니다. 이것 저것 그자 뭐 바지는 건 아무거나 원 무찌건 백 가지 허여다가 딸령 먹으면 이렇다고. 또 약방에서도 궂는 거 보면 이 백순이 측순 소낭 봉오리 이런 걸 허여 가지고 거 딸령 먹으면 몸에 그만큼 좋은 뽕

이 있다 이러는데 그 단오 때에 각 풀이 다 나와서 새순이 나와서 이제 새 정신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힘이 그만큼 잇으니까, 이런 하필 단옷날을 현 거 아닌가, 저 추상으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헐디, 이 단옷날 숙도 캐어 다가 몰리어 두면은 거 약이 된다고 해서 춤 이 여인쯤은 이 뭐 속에 빙이 잇거나 뭐 허면 숙 딸려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숙도 그전이 보면은 많이 덜 캐어당 역부로 몰리어서 이제 보관해 두고 이렇게 하며. 이젠 뭐 약이 많이 나니 그런 거 도저히 시방도 이 우리로서 우회 사람덜 남자분네덜 좀 그런 방향을 아는 사람덜은 거 뭐 각 풀 허여다가 이 참 거 뭐 딸려 먹어서 좋다고 이려고. 한 어른인디 중간에 스삼스껌(四・三事件)이 지나다는 거 보민 아주 몸이 허약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아 헐디 당신이 꼴아마씀, 무쪼건 풀이란 풀은 다 허여다가 죽장 딸리면서 그자 그 풀을 그자 유라 가지, 혼 두 가질 아이고 그자 막 허여다가 아 이놈을 딸려 먹으니, 훌어 먹더니 한 몇 년 후에는 영 줄바로 견도 못허던 하르방이 아 종애가 안아프다고. 드르에 춤 소위 어디 영장이 나서 산 본다고 해서 한혹헌 이니까 그런 것도 지리도 좀 이렇게 아마 통하는 므냥인디, 누게덜 어디 가줍생 허민 할락산꺼지라도 못허게 걸곡 허는 걸 보민, 이거 모든 풀이 사람을 위해서 나긴 난 풀인디, 몰라서 이렇게 아닌가 하는데, 그 어른은 춤 죽장 우리가 보건대 하건 풀 허여다가 그냥 옆에서 그자 이 막 드라매어 둬서 이걸 그자 무쪼건 탕 관하명 혼 멧 년을 그렇게 먹더니 하르방이 그렇게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하연.

VII. 嗜好品類

VII-1. 담배 : 감남입, 술입, 숙, 웨미자, 절명자섭, 봉나무섭, 삼동초, 멸순, 명멸초, 쓴부루

VII-2. 차 : 절명차, 보리차; 칙차, 자굴차

VII-3. 술 : 황정, 삼지, 구엽술, 복숭개, 오갈피(열매)사삼, 오미존, 시르미, 산승(뽕취), 진달래(철쭉), 베염술, 우령선, 고장(산삼), 너섬, 명술, 볼레, 줄갱이, 들국, 쿳낭

Ⅷ. 其 他

Ⅷ-1. 지들커 (땨감) : 보리낭, 소낭, 깨낭 (연기가 나지 않음)

Ⅷ-2. 푸습새 : 소앵이, 왕소앵이, 흑소앵이, 가시소앵이, 생이콩줄, 하
늘애기줄, 콧가시낭, 하르비고장, 칩

○ 어육 : 사상어육, 큰어육, 새시어육.

○ 소새 : 왕소새, 범벅소새.

○ 각단 : 지붕 이을 때 줄 놓는 거. 새(茅) 나쁜 거.

○ 새 : 고장 피기 전이 아이덜 빵 먹는 건 빵이.

Ⅷ-3. 가시낭

○ 돌감낭 (돌팝낭) : 머귀낭에 유는 여름 닳아.

○ 똥구리낭 : 질죽이 번어 나가는 거. 막 고장도 피곡, 가시도 돛곡 또꾸리낭
열매가 새비. 우트래 번는 거.

○ 드린줄우 : 멀리 줄 번어다가 새비낭하고 엇구수. 즈근 가시낭 영 막 번는
거.

○ 눈독낭

○ 쓸거리낭 (실거리낭, 슬거리낭) : 젼 가시 하영. 남 썸에도 가시 있곡. 눈
독낭 여름허곡 머귀낭 여름허곡 똑 곱아. 춤재피보다 썸 넓어.

○ 콧낭 (콧가시낭) : 천정에 좋아 (여름). 가시가 농실곡 가시가 바농추룩
막 커.

○ 저슬사리 (뿔리 : 신경통) : 줄 번어 가는 거. 산담에 잘 나.

Ⅷ-4. 고지낭 : 틀, 오미즌, 정갈래, 시러미 (태역빚디 줄 번는 거), 드래,
유름, 상지 구엽초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提報者〉

홍 대 식 (남 · 76)

김 문 헌 (남 · 81)

김 문 원 (남 · 68)

박 태 화 (남 · 52)

고 병 렬 (여 · 54)

오 국 정 (여 · 67)

고 기 문 (남 · 74)

이 문 하 (남 · 70)

김 연 중 (남 · 68)

박 종 형 (남 · 63)

정 인 학 (여 · 76)

고 병 길 (여 · 60)

강 만 화 (여 · 73)

民 謠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玄 丞 桓 (國教・4)

金 英 姬 (國教・3)

夫 明 惠 (國教・3)

張 景 順 (國教・2)

目 次

0. 調査概要

I. 勞動謠

1. 타작노래
2. 밭 밟는 노래
3. 김 매는 노래
4. 맷돌노래
5. 방아노래
6. 집터 다지는 노래
7. 꼴 베는 노래
8. 나무 베는 노래
9. 나무 켜는 노래

II. 儀式謠

1. 행상노래
2. 진토굿노래
3. 달구노래

III. 童 謠

1. 遊戲謠
 - 1-1. 고무줄놀이하며
 - 1-2. 줄놀이하며
 - 1-3. 공놀이하며
2. 語戲謠
3. 자장가
4. 기타 등요

0. 調査概要

이번 조사는 光令里 가운데서도 光令三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光令三里는 1977년 10월, 제 18회 全國民俗藝術競進大會에서 〈밭 밟는 노래〉로 獎勵

賞을 受賞한 바 있을 만큼 민요전승에 관심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勞動謠에 역점을 두어 採錄에 임했으며, 童謠 역시 제보자의 老少를 구분 않고 採錄하였다.

光令三리는 근래 급격히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매스컴의 영향 등이 傳承文化 保存을 침해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녹음기나 마이크만 갖다 대면 放送으로 나올 것을 의식해서인지 제보자들이 늘 즐겨 부르는 민요를 택하려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판소리 장끼전을 <평노래>라 해서 흥 대식씨에게서 들을 수 있었고, 採錄이 쉽지 않는 달구, 행상노래 등도 수집되었다.

現場論的 調查方法에 의해 提報者 解說, 辭說 註解 등이 요구되나 지면관계로 사설소개에 머무는 점이 못내 아쉽다.

표기는 제보자들의 발음에 충실했으며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는 대체로 표준어에 준하였다.

I. 勞 動 謠

1. 타작노래 (A : 선창 B : 후창)

A	에이야홍아	B	이야홍아
	이야도홍		이야홍아
	요동산을 헤쳐가멍		이야홍아
	올로야절로야		이야홍아
	요동산을		이야홍아
	땃리고 마치자		이야홍아
	이야홍		이야홍아
	올라사멍		이야홍아
	조차들멍		이야홍아
	요동산을		이야홍아
	땃리고 마치자		이야홍아

濟州島部落誌 (Ⅱ)

햏야햏아	이야 햏아
햏야도나야	이야 햏아
올로야절로야	이야 햏아
조차들멍	이야 햏아
딱리고 마치자	이야 햏아
요디가 노폰디여	이야 햏아
모다들멍	이야 햏아
딱리고 마치자	이야 햏아
올로야절로야	이야 햏아
딱리고 마치자	이야 햏아

(선창 : 햏 대식)

2. 밭 밟는 노래

햏량햏량 요므시덜아 잘도걸으라 어느제랑 이 밭 문블리영 상산이 삭삭부딪
치멍 올라가라 햏량햏량 햏량햏량

햏량햏량 햏량햏량 산천초목도 붉아진다 이므시덜아 혼저혼저 식전아침 인
척블콰튀 꿩머리 삭삭썰영 상산에 올라강 잘도먹영크라

아이고 요놈이므시덜아 어떻어뎡홀티 묵은출 먹영 살아질타 새출 먹영 살젠
햏건 아량아량 햏량햏량 하량햏량 말들잘들영 상산에 올라 썩썩흔 산물먹영 잘
들키와도라

(햏 창두)

3. 김 매는 노래

3-1

어어어야어어어야아아아 어허어야 어허이어어어어어어랑 어허어어도오오랑
어어어어어어허 아하어허어야 아하어허영야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여 어
허이요어허요 요오어이이이로구나

산도로기 둘렁 검질메자 어어어어어허야 에헤에헤어이에 어허어으헤이야
 어허어어이여 사아테이로다아앙 어허어허이랑 어허어어 아하하어영 오호오
 앙어허허어 사아이도테이로다앙 아이호에헤 어오오사테로고낭 어어어 산도
 둘렁 검질메자 어허어이여 밋디덜 모여나들자 어허어와 이여흥흥라 어허싸

註) ‘어허싸’는 일이 다 끝났음을 알리는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김 원아·강 매화·김 경구)

3-2 (A : 선창 B : 후창)

A 어화능청	사테로구낭
B 사데불렁	검질도메자
A 양석쌍	섬이나들게
B 산엔드난	우김새소리
A 어강도래랑	사테로구낭
B 앞명에랑	들어나보자

[칠월이라 칠석일에 견우생과 직녀생은 오작교로 드리놓고 은하수를 건너
 서로 상봉하는 격이다 열싸]

A 뒷명에랑	나도나가라
B 우리들은	금비룰쓰리
A 남제처럼	물에나들게
B 물엔드난	숨비질소리
A 다물ㄴ찌	모여나든다
B 우리배는	건장배여
A 칠성ㄴ찌나	벌어나서멍
B 그럭저럭	다모여든다
A 요검질메영	점심들먹게
B 어갈도레	사테로구나

(A : 김 선어 · B : 김 원옥)

4. 땃돌노래

4-1

이여이여
나놀래는
산넙엉간딘
이여이여
나놀래랑
물넙은딘
이여이여
이엿말랑
이여이여
돌고놀민
내사울엉

이여도흐라
산넙엉간다
아방이 산다
이여도흐라
물넙엉가라
어멍이 산다
이여도흐라
말아똥가라
이여도흐라
날이나샌다
어느날새라

(김 원아)

4-2

이여이여
ㄱ렌보난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지남석 ㄱ레
이여도흐라
이여도흐라

(홍 대식)

4-3

이여이여
이여이여
설운어멍
팔즈좋은
요ㄱ레 꼴앙

이여도흐랑 이여로구나
이여도흐랑 이여로구나
날무사난고
요애기나근
주역삼매 흥영

시제에버스렁
시아버지
등잔갸튼
나 적신
이여이여

시아머니 하나드리곡
하나드리곡
남편에드리고
웃엄구나
이여도하라

(현 선옥)

4-4

이연이연
우리어멍
영허영우리어머니
이연이연
설운어멍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랑
날무사납디가
날잘살려줍서
이여도하라
날무사납디가

(홍 창두)

5. 방아노래

5-1

이연이연
이연이연
석콜방애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서둘러짚자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홍 대식)

5-2

이연이연
이연이연

이여도하랑
이여도하랑

가시오름
식쿨방애
이연이연

강당장 말젯뜰날제
새맞암더라
이여도흐라

(현 선옥)

6. 집터 다지는 노래

[“자! 이 집터를 골라가지고 기초 공구리를 흙시다” 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씨두리에
요집지어
아들은나민
뜰은나민
소는나민
개는나민
독은나민
씨두리에
어허어허영
올로절로
역꾼들아
씨두럼마
에헤이이영
허야로다
서로심영
열심동력으로
씨두럼마

두럼마
삼년만이
효즈가웨고
열너가웁다
황소가웨고
황개가웨고
봉황새라
두럼마
허야
벌려서서
어서흙시다
두럼이야
에헤야
역꾼들아
일을호여줍시다
두럼이야

(홍 대식)

7. 꿀 베는 노래

써두림
요놈의출
산들산들
커징커징

떨러마여
비어나보자
등가랑
좀이놓아도라

(흥 창두)

8. 나무 베는 노래

요놈의낭
잘도지어
슬쩍두민
놓아두라

잘도지어주라
늑저지엿다
ㄱ똥ㄱ똥헤영

(흥 창두)

9. 나무 켜는 노래

요놈의낭 씨렁씨렁
아이고 요놈의낭
판만 으깨똥
막꿇데랑 씨러질때랑

잘도[청취불능] 온다 갈라정 스러지라
어떤판엔 쓰러질까
흥애기만 헤염시민 뒤편가곡
시렁시렁 드러누라

(흥 창두)

II. 儀式謠

1. 행상노래 (A : 선창 B : 후창)

A 어형어형 어형이야 열화로세

B 어허야 열화로다

A 일기 좋고 날씨 좋은날

- B 어허야 일화로다
A 태역담팍 좋은딜로 영혼을 모시자
B 어허야 일화로다
A 가자가자 어서나가자
B 어허야 일화로다
A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문밖의 저승이요
B 어허야 일화로다
A 노세놀아 젊어서놀아
B 어허야 일화로다
A 요때에 못놀앙 어느때에 놀카
B 어허야 일화로다
A 부모형제 두고가는 내 마음 그만이로다
B 어허야 일화로다
A 동네친척 고마운영혼 뭐라고못ㅎ키여
B 어허야 일화로다

(A : 이 중현 · B : 홍 대식)

2. 진토굿노래 (A : 선창 B : 후창)

- A 어허허헤이야 어허허 넘어가는 솔기로구나
B 이야흥
A 뜰로오오 어허허 넘어가는 솔기로구나
B 이야흥
A 허허어어 험 에이야 놀래로구나
B 이야흥
A 어허허어 어이야 어어야 넘어가는 솔기로구나
B 이야흥
A 허허영허허어 예이에 허허어 넘어가는 솔기야
B 이야흥

A 역꾼덜토 잘도흐는구나 어허어 넘어가는 술기야

B 이야홍

A 손을심엉 역꾼덜 잘도흐다 어허야 노래로구나

B 이야홍

A 어허엉어허야 에히히에이야 술기로구나

B 이야홍

A 그만저만흐민 진토도 잘웨여가는 모양이로구나

(A : 홍 대식 • B : 이 중현)

3. 달구노래 (A : 선창 B : 후창)

A 에헤에 달구

B 에헤에 달구

A 이령산에다 달구로구나

B 에헤에 달구

A 청추만년 내살을지고

B 에헤에 달구

A 석곽ㄴ찌 다려나주소

B 에헤에 달구

A 이령산에다 달구로구나

B 에헤에 달구

A 오늘날은 일기가좋아

B 에헤에 달구

A 이내일은 잘도나흐다

B 에헤에 달구

A 북망산천 좋은곳데

B 에헤에 달구

A 제주십경으로 나가볼까

B 에헤에 달구

- A 한라산가민 녹담만설
B 에헤에달구
A 굴림추색을 부찌가면서
B 에헤에달구
A 고수목마로 내려간다
B 에헤에달구
A 영실기암을 두어가면서
B 에헤에달구
A 산방굴사가 어디가잇나
B 에헤에달구
A 정방폭포로 넘어나간다
B 에헤에달구
A 동으로가민 성산일출
B 에헤에달구
A 영구춘화가 어디가잇나
B 에헤에달구
A 산포조어도 좋구나좋다
B 에헤에달구
A 사봉낙조가 다뒀엇구나
B 에헤에달구

註) 마지막 가는 사람이 제주십경을 못 보고 갔을 때 소리로라도 듣고 가라고 노래를 부른다 한다. 그리고, 북망산천 좋은 곳에 제주십경이 있다는 말도 전해진다.

Ⅲ. 童 謠

1. 遊 戲 謠

1-1. 고무줄놀이하며

- A 월계 화계 수수목단금단초단일
월계 화계 수수목단금단초단일
- B 사랑하는 언니야
뒷동산에 올라가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 C 간질 간질 간질 봄바람 불어온다
강남 갔던 제비 다시 돌아와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를 한다
- D 책상 위에 오뚜기가 예쁘기도 하지요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
- E 공주마마 납시신다
- F 장난감 기차가 싱싱 달려간다
과자와 설탕을 싣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 G 순이 아빠
담배 꿈초에 불이 붙어서
으왈랄라 으왈랄라
순이 아빠

1-2. 줄놀이하며

- A) 할머니 들어갔다
두부장시 들어갔다
색시 들어갔다
할머니 나가
두부장시 나가
색시 나가

B) A 어머니

학교

뭐 해똥 갑니까

빨래 다 해수다

에

A 선생님

몇점

A 어머니

빵점

A 선생님

몇점

어머니

오점

선생님

몇점

어머니

99 점

선생님

몇점

어머니

백점

C)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D) A 똑똑

B 누구십니까

B 무사

가지말라

빨래 해똥 가라

학교 가라

C 무사

빵점

B 무사

공부 더허라

C 무사

오점

B 무사

백점 맞앙 올 때까지 공부허라

C 무사

99 점

B 무사

흐끔만 더행 백점 맞앙오라

C 무사

백점

B 무사

나강 놀라

하늘을 보아라

머리를 깎아라

땅을 건드려라

신발을 건드려라

만세를 불러라

경례를 하여라

A 손님입니다

B 신발 벗고 모자 벗고 들어오세요

A 신발 벗고 모자 벗고 들어갑시다

B 당신 이름은 누구십니까

A 나는 ××입니다

B 당신 이름은 누구십니까

A 예 ××입니다

B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 방청소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1-3. 공놀이하며

A 어머니	어찌 사나요
수양버들 나뭇가지	피꼬리 되어
피꼬리 무서워서	어찌 사나요
한 살만 더 먹도록	키워 주세요 험

B 하나짜리요
하나짜리요
하나 주고 산다고 자랑 말아라
쫘마있게

C 잊지잊도라
일몽일도생
수남이네 반은 일반이래요
쫘마있게

기다리테 일몽일성이리하고
일도일도일도마나
오모다나 오소리아
신자고자 신자고자 보오려

잊지잊도라

이 똥이 도생
수남이네 반은 이반이래요
쫘마있게

2. 語 戲 謠

2-1

원숭이 또꼬냥은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긴 거는
기차는
빠른 건
비행기는
높은 건
하늘은
푸른 건
바다는
짙은 건
소금은
흰 건
토끼는
뛰는 건
공은
둥근 건

시빨경
사과
맛있다
바나나
길다
기차
빠르다
비행기
높다
하늘
푸르다
바다
짜다
소금
희다
토끼
뛰다
공
둥글다
지구

2-2

이빨 빠진 할망
이빨 빠진 하르방

2-3

빹빹중아
얼마 주고
10원 주고

빹빹중아
깍았나
깍았다

2-4

일 일하는 사람들
이 이것을 보시라
삼 삼양라면이 새로 나왔다
사 사실투면
오 오그라진 냄비에
육 육돈의 물을 넣고
칠 칠칠이 끓이지 말고
팔 팔팔이 끓인 다음
구 구수하게 드신 다음
십 십원짜리 동전 열 개만 내면 됩니다

(이 수진·홍 순자·양 명신)

3. 자 장 가

3-1

웁이 자랑
웁이 자랑
우리애긴
우리애긴

웁이 자랑
웁이 자랑
동네 금방상 화목동이로구나
자는 것도 잠소리여

노는 것도

놈의애긴

놈소리여

동네 금방상 불목동이로구나

(김 원아)

3-2

우리애기

구덕할마님

삼승할마님도

잘잘키와줍서

구덕할마님

우리애기덜

아이울지말앙

잘도재와줍서

삼승할마님

잘도재와줍서

구덕 ㄹ튼

잘도키와줍서

삼스월

애기불날은

삼승할마님

우리애긴

잘누웁잡니다

구덕할마님

잘잘키와줍서

구덕할마님

애기깨어나부렀구나

우리손지

우리손지만크민

이잔비왕

잘도잠져

잘도재와줍서

우리손지

잘도키와줍서

잘잘키와줍서

나흥글건

하도고맙수다

우리애기덜

진진해에도

죽읍네다

안아줍서

잘잘놀고

잘생각ㅎ영

애기흔들당보난

잘키와줍서

걱정엇우다

흔저키와줍서

(홍 창두)

3-3

웁이 자랑
우리애기는

제비새

가마귀

물아래광

곶고고운

웨미자민

야광주민

웁이 자랑

좁도잘잔다

어서자고

우리애기는

일가방상

노비전답

유기제물

어서자고

웁이 자랑

[청취불능]

어서자고

웁이 자랑

착한애기로구나

어서자고

저레가는

우리애기

안재와주민

발목다리 손목다리

천장만장

웁이 자랑

곶도곶다

알라구리ㄴ찌

젓눌개ㄴ찌

옥돌ㄴ찌

우리애기로고나

먹고저라

차고저라

웁이 자랑

어서놀라

동네방상 구인동아

화목동이

거념소리로구나

거념소리로구나

어서놀라

웁이 자랑

어서놀라

웁이 자랑

어서놀라

검둥개야

재와도라

질근질근 총으로

무껴가지고

지폰숫더레

월이 적내적

우리애기

월이 자랑

볼것이 나

잘재와도라

월이 자랑

(홍 대식)

3-4

월이 자랑

우리애기

잘도 잔다

어서 자라

월이 자랑

아가아가

월이 자랑

[절로 고냉이 완짜 속숨하랴]

자랑자랑

아이고 아방어멍은

검질매는것도

[속숨행 자라]

월이 자랑

착한애기

우리금동개

어서 자라

월이 자랑

어서 자라

월이 자랑

월이 자랑 월이 자랑

유월벳디앗앙

아니생각하엿시냐

(이 중현)

4. 기타 동요

4-1

썩썩썩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썩요

4-2

강강술래야 강강술래야

살았다 (도망간다)

4-3

뺨데기 뺨데기 뺨뺨데기데기
너 먹고 나 먹고 저리 주고 요리 주고
오무라이 쟸쟸 오무라이 쟸쟸
가위 바위 보

4-4

단추 단추 새 단추
엄마가 사다주신 새 단추
영희야 영희야 단추달아라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4-5

흔다리 신다리
개천 개
인나고자
버튼 개

4-6

오늘은 김일성 신체검사날
김일성 뺨스에 니가 열마리
옆에 있는 동무레 니 좀 잡아줘

4-7

남산 공원에 초가집 짓고
예쁜 얼굴로 찾아왔더니

옆집 순이는 시집을 가고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저런 말괄량이 다시 만나면
누가 이기나 내기 해보자

남산 공원에 올라갔더니
강패 세놈이 있지 않겠어
내래 주먹이 가만 있잖어
한 대 때리고 석 대 맞았지

4-8

비야 비야 오지말라
제비 새끼 빠져죽는다

4-9

남산 공원에 어떤 꼬마가
아버지 죽이고 도망갔대요
어머니 어머니 용서하이소
안된다 안된다 경찰서 가자
경찰서 아저씨 용서하이소
안된다 안된다 파출소 가자
파출소 아저씨 용서하이소
안된다 안된다 감옥에 가라
감옥아 감옥아 용서하여라
안된다 안된다 너는 죽어라 팽

4-10

흰 눈에 펄펄 담을 넘으니
주인 양반 팬티 입고 잠을 잔다네
털어라 털어라 문딱 털어라

주안 양반 뺨스까지 문딱 털어라

4-11

사꾸라 사꾸라 여여이모 사꾸라

(이 수진 · 홍 순자 · 양 명신)

〈提報者〉 강 매 화 (여 · 54, 광령 3리)
김 경 구 (남 · 47, 광령 3리)
김 선 애 (여 · 53, 광령 1리)
김 원 아 (여 · 73, 광령 3리)
양 경 준 (남 · 53, 광령 3리)
현 선 옥 (여 · 71, 광령 1리)
홍 대 식 (남 · 76, 광령 1리)
홍 창 두 (남 · 76, 광령 1리)
이 중 현 (남 · 45, 광령 1리)
김 선 어 (여 · 53, 광령 1리)
김 원 옥 (여 · 56, 광령 1리)
이 수 진 (여 · 11, 광령 1리)
홍 순 자 (여 · 11, 광령 1리)
양 명 신 (여 · 11, 광령 1리)

說 話

指導教授 玄 吉 彦
 班 員 梁 奉 寬 (國教・4)
 吳 京 仙 (國教・4)
 姜 明 叔 (國教・3)
 姜 仙 姬 (國教・3)
 高 彰 成 (國教・3)
 金 在 容 (國教・3)
 邊 泰 又 (國教・2)

目

1. 뱀으로 변신한 여자 이야기
2. 유리국 남씨 이야기
3. 통명한 문씨
4. 악독한 의붓어미
5. 변좌수
6. 아기엽개 말도 들으라
7. 매고할망
8. 선달 이야기
9. 왕자 구해 준 고찰방
10. 장사나게 한 명당자리 용진굴
11. 왕비가 된 딸
12. 할머니 불공을 들어 준 부처님
13. 개 삼 년, 독 삼 년
14. 남편을 성공시킨 아내
15. 의견(義犬) 무덤
16. 이재수

次

17. 동지선달 백련화
18. 고씨댁 장사 이야기
19. 최둥이
20. 조천 썸 하르방
21. 신침(申宅) 며느리 흥할망
22. 저승 갔다 온 이야기
23. 친정 아버지 묘자리를 시아버지 묘로 쓴 며느리 이야기
24. 산 잘 지켜서 대대로 평양감사 난 가문 이야기
25. 死後에 生男之地
26. 열녀・효자 이야기
27. 산터 이야기 (장군터)
28. 목련이 부모
29. 孝婦 이야기

1. 뱀으로 변신한 여자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에 있는 때 들어났지. 경훈디 우리 일본에서 본 겐 고것도 육지 사름인디, 결혼해서 살아보도 못하고 그냥 이제 남즈가 일본으로 그만 뛰쳐 부러서. 뛰쳐 부러니 여기서 혼체 살다가 이제 기드려 봐도 안 오고 하니 수절 직허연¹⁾ 그대로 앉아서 모르다가²⁾ 그만 죽으니 아, 그대로 베염이 돼여 부러어.

베염이 돼여 부니 이젠 그 오빠덜이 그것을 그냥 하꼬(상자)에 딱 짜서, 하꼬에 딱 찐 이젠 짐작으로 맨들아서 일본디레(으로) 시켜서(실어서) ‘아무덜로 나오면은 짐. 여기서, 이모서 짐 보내염시매 받으라’ 허연.

시끄난 이제 거기서 나오고 보니,³⁾ 짐작이 가서. 짐작이 가니 탁 허게 짐작 반안 해싼(풀어헤쳐서) 보니 베염이 탁 나오랑게. 꼭 입은 두 개, 몸뚱인 하나. 그 사름에 그만 파작 감아져 부러거든. 감아전 떼여지도 앓여고 계연 그때 막 구경덜 가난 예가 이서.

여기서 이디 그 유령되는 지격으로 그냥 그것이 베염이 돼연 나가서, 이제 죽어서도 기필 그 사름⁴⁾의게 원수를 갚으는 거지. 겨니 밥도 혼 직 못 먹고 그대로 몰라 죽는 거라. 그 남즈가.

(1983. 7. 28., 애월읍 광령1리, 부 기옥, 여·68.)

2. 유리국 남씨 이야기

유리국 남썬디 [조사자 : 유리국 남씨, 예?] 유리국 남썬테,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아비 무간지옥을(으로) 들어갔거든. 아비 무간지옥이라 호른 물 팔팔 팔팔 끓여서 물 콧 둥그고 췌 췌서 이렇게 푸스스스스하게 지지곡 호는 지옥이라. [조사자 : 지옥, 예?] 팔만계 지옥인데, 막 췌가 짚으믄(짚으면) 그 지옥에 들어간덴 …….

1) 수절을 지켜서.

2) 어렵게 살다가.

3) 남편이.

4) 남편.

어머니는 지옥에 간 줄을 알고 아덜(아들)은 어머니를 뱌라고” 애를 쓰는 거라. 지옥 배졌디(밖으로) 뱌길라고.” 뱌겨 불라고 힘을 쓰는데, 이제 저승에 탁 들어간 양 후젠 옥황님안티 원청(願請)을 올리니,

“지장불공을 세 번만 드려 두고 오라.”

이젠 지장불공을 세 번을 드리고 이젠 출발했주.

“어머니 있는 덜 혼 번 뱌고져 오랐다.”

그러냐고.

옥황상제님 앞 탁 세워서 탁 이제 무간지옥을 탁 들어가니 파딱 그 도시대원이 놀래거든.

“하이코, 이거 어땡 허연 상제님이 이 곳에 왔수가?”

허여서. 높은 어른이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날 아무 시에 유리국 남씨가 이 지옥에 들어왔으니 그 이제 영혼을 보이기 위해서 왔노라.”

그자 맨발 벗어오란 합장해서 데려다가 그 아덜을 문 뱌이 딱 세와 놓고 문을 이렇게 둥그러서 그 앞이서 취조를 하는 것을 보이는 모양이라. 애기를 이렇게 한다 한 뜻으로. 애기는 그 큰 공덕으로 해서 도를 깨칠라고 허는 아덜인데, 높은 이제 시민님네 부하가 뵈어야 그런 덜 들어가거든.

이젠 그 팔팔 물 꺾어서 물을 이제 둥그고 꺾 꺾서 막 지지고 막 해서 니빨 상살상살허게 취조를 하는 걸 딱 보여 놓고 이제는 딱 허게 눅여서,

“저디 와서 산 것이 누구냐?”

해서 그 영혼에게 묻거든.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워녕 모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세 번차 물으니,

“열 덜 배에 담아 주고 세 덜 젓 맥여 준 공뱌이 없습니다.”
이러거든.

1) 어머니를 뱌내려고

2) 지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 죽기가 부모라도 죽식에게 공을 닦아 주지 못하면 필요었어.
[조사자: 예.] 이젠 막 취조를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문 안에서
내여줄 땐 어머니로 내여 줬주마는 데리고 나오고 보니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
라서. 개로 환생해서 내놔 주거든. 개로 환생해서 내여 주니, 이젠 데려 오니
밭 에염(옆)에고 뭐 똥덩어리도 봉가(주워) 먹고 허연 추접헤여(더러워).
그래도 할 수 있어. ㄹ그서(거기서) 어멍 멍대가 나와서 벌써 개가 돼여 왔
으니. 무궁무진 기술인디 뭐라도 화생…….

백일을 질렀다가 그러나도 추하거든. 추하니 이젠 옥황드레 이제 천님데레
원청 올리기를,

“영혼을 뽑아 줘서.”

영혼을 뽑아 줘서 허여 된 껌드럭(개를 가리킴)은 아저단 잡아먹어 불렌 쥐
부렸거든. 혼만 빼여 불민 껌적은 필요었어. [조사자: 예.]

경 하니까 이젠 놈 쥐 부렸어. 잡아먹으렐 쥐 부니 아, 다시는 어딜로 가느
냐 하니 돼지로 가 화흔텐 말여. 하 이놈으 거 춤 딱하다고.

돼지로 화해서, 아 이제 그놈의 돼지를 질렀는디(기르는데), 뜯 사름은 가
민 눈 히뜩히뜩하명 킁킁킁킁하고 아덜은 가면 꼴리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백일을 맥였어. 백일을 맥인 여후젠 또시(다시) ‘이 영혼을 뽑아 줘서’
원청 올리고, ‘좋은 길로 환생해 줘서’ 원청 올려 두고, 이젠 누구 쥐 부려
서. 아저다가 잡아먹어 불라고. 쥐 부리고, 그래 혼 가는 것은 자기 눈으로 다
보이는 사름이거든. [조사자: 아덜 눈으로 마씨?] 오. [조사자: 그 아들이 유
리국 남씨 아니짱 예?] 오. 남씨. 아덜이라.

그렇게 해서 이젠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때는 사름으로 화해서. 사름으로 화
흔디, 그 아마 여자가 유리국 남씨라 하니 죽은 사름이 남씨거든. 그날 들어
간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날 그 사름 하나로 그 날 들어간 영혼은 다 놓
여 주매. 혼 사름 공로로. 만인이 덕을 본다는 건 그거라. 그 지옥에 그 날
그 시에 간 건 ㄹ찌 다 놓여 쥐. 혼 사름 공로로.

제서 가만히 보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니 이제는 팔팔 백발 노인 부부 사
는 디레 쑥 들어가거든. 가만이 보니 쑥 허게 들어간 보니 그 백발 노인 부부
덜이 배필을 허여서. 이젠 먼 딜로 문 밖으로 딱 끊여서 ‘이번이 생남이 뻘저

들랑 제게 전해 줘서' 해 두고 이젠 나와 불거든. 나온디, 함께 그 뭐 생각도
않여지. 그런 뭐 팔팔 백발 노저가. 임신을 가져서……. 항상 감돌아서(감돌
아서) 직혀였거든. 직혀다가 춤 해산하시니까 그자 오꼴(그만) 안아 와 부
런. 오꼴 안아다가 이젠 키와서. [조사자 : 아들이마씨?] 으. 안아다가 키와
서 이젠 도를 닦아서. 도를 닦아서 그 이제 폭령을 시겨 노니 이젠 지만씩이
라. 경 허문(그렇게 하면) 부모 어서 부러(없어져 버려). 그젠 갈라져 부는
거라. 그때까지 공 갇으니 다 갇은 거라. 자기 화해난 공 갇으는 것이. [조사
자 : 끝났구나, 예?] 으. 켈 막 풀리민 그젠 머 느냥 나냥(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이라.

(1983. 7. 28., 애월읍 광령1리, 부 기옥, 여·68.)

3. 통명한 문씨

빛으로 변허진 앓연 것이지마는 아이들이 혼 번 들었다가 깨달을 만흔 것이
또 이서. 건 문썸데 그때 십 육 세랴어. 십 육 센디 두 친구가 도를 닦아서. 10년을
닦으난 문씨는 천하지곡을 싹 알아 부렸고 혼 친구는 몰라서. [조사자 : 천…,
아까 뭐마씨?] 하늘 천지를 다 알아 부려서. 성령이라 하면 다 알아야지. 가
만히 아자도. [조사자 : 통달 예?] 으. 통달해 부렸거든.

이젠 흐를은 우리 야학(野學) 나갑시다. 게, 요새 ㄴ때민(같으면) 소풍 모
냥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하니,

“갈 게 뭐 있나. 여기 아자도 다 보이는데.”

게니 그 멍텅구리 하나는 모르거든. 경 궂는 분은 다 하늘 천지를 아니(知)
존전마는 하나 친구는 멍텅구리라. 경 하니,

“아, 경 해도 우리 가 봅시다.”

“아, 그럼 그러자.”

같이 슬슬 나가더니마는 넷 골창이에서 낭 우이(나무 위에) 가마귀가 앉아
서 ‘은나고 비웃, 은나고 비웃’ 흐거든.

“하, 이상허다. 저 가마귀가 수풀 쏘곱(속)에 고기가 잇다고 한다. 고기가
잇다고 한다.”

“아, 계민(그러면) 우리 가 보자.”

가고 보니 백경(백정)놈이 물을 잡아서 반은 털어 아전(가져서) 사름 소리 나니 도망을 쳐 부렸어. 도망을 쳐 버리니, 그 고기를 이젠 거기 가서 들썩들썩하다가 물 임재는 닥치니까 공연하게 이제 췌를 짊어질 거 아니?” 도둑놈으로 들어가 부렸주기.

관(관가) 안에 이제 시꺼 가서. 관 안에 시꺼간. 아, 그리 재판허영 봐도 안 돼고 저리 재판허영 봐도 안 돼여.

“어찌 해서 거기를 갔느냐?”

허니,

“우리가 놀러 나가다가 가마귀가 수풀 쏘곶에 고기가 잇다고 해서 우리는 들어가고 보니 그렇게 됐더라.”

아, 그러냐고.

가만히 방 안에 가두와 두고 제비 새끼가 깨워서 푹들푹들허염시니, 제비 새끼 하나를 싹 아산 곱쳐 부렸거든.” 곱쳐(숨겨) 두고 그 제비가 오직(오죽) 들러퀴여?³⁾ 새끼 하나 없다고. 막 들러퀴연…….

“저 제비는 뭐라고 허느냐?”

“가죽도 못 쓰고 고기도 못 먹는 내 애기가 어디 갔느냐고, 어디 갔느냐고 혼다.” 고.

이, 짐심말은 다 듣는 모양이라. 그래 이제 죄인은 아니 끝으라고.⁴⁾

흐름은 이제 먹을 걸 잘 해서 참 그때사 나룩밥(쌀밥)이민 오직 귀해서? 쌀밥 해 놓고 소고기 해 놓고 거멍헌 청주 해 놓고 해서 출려서…….

하나 멩텅구리 날 닳은 놈은 막 썰어먹어.⁵⁾ 썰어먹고 그 문씨는 안 먹거든. 이젠 나오면서,

“왜 너는 그렇게 맛 존(좋은) 음식을 아니 먹었나?”

이렇게…….

1) 두 친구가 말도둑으로 물리게 되었다.

2) 감춰 버렸거든.

3) 야단을 떨어.

4) 죄인같지는 않다.

5) 마구 먹어.

“으, 그러냐? 그 소고기는 인육(人肉)이더라. 사름 고기가 아니냐? 그 술은 인주(人酒)더라. 사름의 술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 이젠 그 관원 스포는 뒤에 시분 종놈 하나를 뭐라고 하느닌 (하는가) 나가고 보라. 먼 발로 내놔서. 내놔 하니, 이젠 스실이 여여흠디 다 해서. 이젠 조사한 보니, 천리터에 곡식을 해다가 술을 해 부러서게. [조사자 : 천리해난 터엿거, 예?] 그 술맹이야 다 썩어빠진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술을 하고 고기는 어찌해서 했느냐 허연 조사한 보니 송애기 새끼가 쏜 나명서라 에미가 죽어 버리니까 사름 젖을 맥연 키웠어. 그래서 인육이라. 그래서 못 먹었다.

“관원은 관원이더라마는 진짜 중놈의 새끼더라.”

이렇게 했거든. 자기는 아버지를 몰른 거라. 이젠 뭐라고 하더냐 하니,

“맹인(名人)은 맹인이더라마는 뒷 절 중놈오 새끼라고 흠디다.”

그디 그자 과거스직 탁 놔된 절로 들어가…….

(1983. 7. 28., 애월읍 광령 1리, 부 기옥, 여·68.)

4. 악독한 의붓어미

씨어머니하고 며느린 얹여고 아덜을 병신 맨들안 눈 빠 부린 그것이 소설은 소설이라도 참 지독한 소설……. 그건 오썬간디, [조사자 : 아이고 나도 오썬디, 하하…….] 오썬디 성(兄)은 본맹이고 아신(동생은) 본긴디, 성은 큰어명에 아덜 하날 나 두고 큰어명이 죽어 버리니까 아버지가 재혼허연 어명을 드라오라서(데려왔다).

하니, 자기 난 건 본기고 몬여(먼저) 난 건 본맹이라. 큰어명에 난 본맹이가 천하 맹장이거든. 국록 내류와서(내려 줘서) 맥이는 사름인데, 어려신 때부터 국록을 내류와 줘서 맥이는……. 요것이 그만 새옹점이 나서 우이론 막 잘 해 주는 첼 하고 이제 속내용은 비여 부렸댄 말여.

어떠해서(어떻게 해서) 부친이 먼 곳으로 정원 배실을 나갔댄 해서. 배실 살레(살러) 이제 나가 버리니까 직장이 나가자마자 이제 종놈 놓고 허연 야바우 편지를 쓰웨 아버지가 정원 배실을 가명서라 병이 나서 어디 가 문점

인가 개다마린가 하난 그 아기혈을 빠 먹어야 좋겠다고. [조사자 : 이 혀마쌌?
새(혀) 마쌌?] 혈. 혈. [조사자 : 아, 눈마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 춤
효재라 어찌 효재가 부모님의 병을 고친다 하면 혈을 빠 먹는 것이 잇수가 허
연,¹⁾ 눈 혼 착을 딱 빼여서. [조사자 : 자기 눈마쌌?] 으. 눈 혼 착을 딱 빼
여서 그걸 이젠 봉해서²⁾ 아버지신디 보내노렌 하니, 어머니가 그 종놈을 추그
려서 망착 술 맥여서 종놈이 죽기 어머니안티 아저가니 아산(가져서는) 대왔
데레(대밭으로) 덱겨 부렸거든.³⁾ 덱겨 될 따시 편지를 쓰뉘 뭐라고 쓰느냐
허문 편지를. 그거 혼 짹 먹으니 어느 정도는 좋으나 다 좋지는 않여시니 어
찌 즈식의 혈을 다 빠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만 더 먹어서면 완전
 좋겠다. 편지를 또 써서. 이젠 그 편지를 딱 받아서 편지를 눈 혼 착 시니(있
으니), 신 때에 편지를 썬 딱 놔 두고, 이젠 지등에 텃지등에 상통 딱 묶어서
대통허연 때런 빠서.⁴⁾ 이제 양눈을 다 보냈거든. 보내니 다 그 계모안티 아정
가서, [조사자 : 게, 종놈안티 보내는 거고나, 예?] 으. 계모안티 가니 이제
실컷 맥연 그놈(눈)은 또 빼연 넥겨(던져) 부렸거든. 넥겨 부려. 이젠 눈
없으니까 머 편지가 올 필요도 웃고 편지가 왔자 보도 못헐 거지. 겨니 2만이
이제 해서 방에 딱 가두아서 이제 춤 밥이나 주고 이렇게 했ندی.

삼개월 정돈 뉘니, 나라에서 ‘본맹이가 올라오라’ 이젠 편지(소식)가 왔
거든. 편지 오니, 본길 보냈어. 죽긴 안 가고. 보내니,

“어찌 해서 본맹이가 아니 완(오고) 네가 왔느냐?”

하니,

“형님은 정신병 환자가 뉘서 방에 가두와 있어서 대리(대신) 왔읍니다.”

이젠 거기서 높은 이제 베실을 시건 놔 두니, 삼개월만이는 불효헌 제상을
타락 맞았거든. 타락 맞아서 이젠 집일 돌아와서. 돌아오니 아버지 베실궂장
그만 파악뉘고 말안. [조사자 : 무슨 짓을 해싱고(했는고) 예? 그디서.] 불
효헌 거지. 게난 먼 꼴(꼴)에 간 아버지 거 베실궂장 그만 파악뉘서 돌아와서.

1) 있읍니까 하여서.

2) 잘 써서.

3) 던져 버렸거든.

4) 눈을 빼었다.

돌아오게 됐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노랜 혼 편질 오니 눈 어스디 머 편지를 오민 알명 아버진 몰랐거든게. 머 편지온지 몇인지 곧도 앓여고 즈기들만 이제 받아서. 아버지한테 이제 전송을 나가니, 아버지가,

“어찌 해서 본맹이 성님은 아니 오고 네가 왔느냐?”

하니,

“성님은 대로로 오고 우린 소로로 오니 빨리 왔수다.”

아니 오카부덴. 집일 오라서 문간을 딱 들어사도 큰 아덜은 얼굴을 안 보이거든.

“어째서 본맹이 효자는 내 눈에 보이질 앓여느냐?”

이젠 어머니가 그제야 아덜한테 가서,

“으. 너기 아버지 정원 베실 나가 분 꼬트로(끝에) 내가 병 나서 내가 빼여 먹어 부렀다. 너기 아버지신디 보내질 앓여고 내가 빼여 먹었다.”

야, 이젠 머 한숨나나, 뭇엥(뭐라고) 홀 거라? 기왓(기왕) 그르친 일,⁵⁾ 솔아논 물. 방에 이제 딱 앓아 버려서.⁶⁾ 부친한테도 어떤 실토를 앓여고. 혼디 결혼은 시켰던 모양이라. 즈부가 딱 나가서 옆대여서 허는 말이,

“앓 못 보는 즈식이 어찌 부모님을 온들 반가이 받아 줄 수가 있습니까?”

헝거든. 이젠 하니,

“이젠 당신이 정원 베실을 가 건지(가 버린 지) 후제 병이 나서 내가 아덜 눈을 빼여 먹었수다.”

이렇게 해서 뉘편한테 공술 올리니 뉘편이,

“왜 너 나온 너 즈식의 혈을 빠 먹지 남의 혈을 빠 먹었느냐?”

이렇게 헝거든. 남의 혈을 왜 빠 먹었느냐? 그게 그냥 때도, 이 칩이서 식스도 앓여고 그자 나가서 춤 짐삿갓(김삿갓) 즈격으로 뽕뽕뽕뽕 돌멍 시월(세월)만 보내서.

시월만 보내서 헝노랜 하니 혼 번은 이제 나라으서 탁리(?)가 와서. 이제 그루 후제(그 후에) 정승 그 어른 올라옴센. 아덜로 해서 당신 베실도 파악 됐지마는 오민 한 가지 직함이나 마련해 주커매 올라오렌.

5) 잘못된 일.

6) 아들이(본맹이가).

견(그렇게 해서) 올라간 머라고 허는고 허니,

“우선 직함은 내버려 두고 내기 아덜 제모의 병을 고칠라고 양 눈을 빼여 먹었으니까 소재비(효자비)를 하나 내여 주십서.”

이렇게 허거든.

겨 하니 우선 소재비가 크지 나는 베실이 필요엇수다. 이젠 본기하고 그 모
즈간을 곧 심어오렌(잡아오라고), 곧 심어오렌 허연, 머 멧 번 문출 허기 전
이(전에),

“어머니가 날 과거 시기젠 [제보자: 하하하하.] 어머니가 눈 빼여 먹엇수다.”

어머니 문출 허니,

“자기 자식은 무충하고” 큰어멧 아덜은 소명 하니까⁸⁾ 즈기가 즈기 아덜을
과거 시기기 위해서 눈을 빼엿습니다.”

먹기야 먹을 거라게. 그젠 남대문에 둘러매여네 목 베여 불고 서대문에 돌
려매연 모자간 다 목 베여 불고. 이젠 집으로 돌려보내서 효재비 딱 허게 내
여 주고 허연.⁹⁾ 집에 오란 가만이 났으니, 백발 노인 할머니가 온 여후젠 머
라고 허는고 허니,

“관셈보살을 네가 일주일만 독송햄시라. 햄시민 알아지리라.”

이젠 원 눈 엇고 허니, 머 두판(이판) 삼판으로 이제 막 관세음을 이제 열
심하게 일주일을 독송햄시니, 약팽(병)을 아저다가 약제허연 봉해뉘. 봉했다가
이젠 아저다가 눈에 봐 준 거라. 봐서 아, 이젠 그 할머니가 오라서 눈을 약
팽 뉘 쌀쌀 썰더니만 눈이 파짝 돌아와서. 양 눈이 붉아져서. 붉아지니 이젠
나라의 보고하난 올라오렌 허연 올라간 이젠 효재비 받아와야. 이젠 올라가야
그 베실을 본명이 베실을 줘. 경 허연 부자간이 그렇게 태평하게 살았다고.

(1983. 7. 28., 애월읍 광령1리, 부 기옥, 68.)

5. 변 좌 수

그 저 벤좌수엔 혼 양반이 춤 눈이 혼 착은 우티레 뒤편지고 혼 착은 알레

7) 둔하고.

8) 총명하니까.

9) 큰아들에게.

레 뒤편진디, 혼 짝 우티레 베리는 눈은” 하늘엿 건 알고, 땅데레 더꺼진 눈은 땅엿 걸 아는디, 하늘 땅 구만장을” 자기들 알아지겠니? 들었자(들어봐야) 경 해서 천하 한 일을 다 아는 양반인디. 뽀뽀 얼굴 비틀어지니까니 침 문둥이같이 생겼지. 그 생긴 게. 경 허연 현디, 이제 처가는 아명해도 고운 여자안티 강 가젠. 가난 장인 어른이 미와서 원 베레기가(보기가) 실퍼(싫어). 베레기가 실퍼. 것이 영(이렇게) 우이 투갑을 씨와 분 거거든게. [조사자: 예, 허물을 이렇게 ……] 으. 그런 걸 영 거 씨완. 인간이 씨완 내논 거난. 어째서 그걸 여즈의 눈에는 아식 보이긴 보이거지. 그런 식으로 해 그자 그대로 흥척허겔 해야 할 거난, 흥척허게 …….

그 고을에 혼 대감네 집이 사월 막 좋은 사위했다고. 이제 다 간덴. 이제 혼난 그 청첩장인가 무스 걸 오라서. 오랜 허연 오니 이제 장인 어른이 가게 뒤편 가가난,

“저도 혼디(함께) 가겠습니다.”

허연,

“너 강 멋 허느니?” 너 강 멋 허느니?”

“제도 제가 혼디 가겠습니다.”

“경 허라(그렇게 해라).”

이젠 뒷발로 따란 들어간 불씨 들어가간 머 오는 손님 다 받던 양반이 대갱이(머리) 아프다고 그만 안방으로 들어간 뉘 불거든. 뉘 분난 이젠 문간에 간 탁 산 여후젠” 호통을 내리뒤편,

“본색이 출허라(本色이 出).”⁵⁾

[조사자: 본색이 출마씨?] 으. 본대에 뒤편 서늑(본래의 모습)을 내여노렌 야단허였거든. 본색이 출허렌 야단허난, 큰 대맹이가 된 여후젠⁶⁾ 낭간(난간) 알레레(아래로) 실실실실 …… [조사자: 대맹인 베염(뱀)?] 으. 그것

1) 위를 보는 눈은.

2) 온 천하를.

3) 가서 무얼 하겠느냐?

4) 변좌수가.

5) 새로 온 신랑에게.

6) 사위가 큰 뱀이 된 후에.

이 칠 년(천 년) 난 이제 독새광(독사와) 말 년(만 년) 난 두께비가 나가
 인간이 나가나 내가 인간이 나가느냐 해서 두께비가 인간이 너 나가지 말렌.
 칠 년 독새라 나가지 말렌 해도 그 사름웨연 나완 [조사자: 독사가 웨연 나
 완 예?] 으. 사름웨연 그 집이 장겔(장가를)……. 겨난 그냥 마리 알레베
 싹싹싹싹 이젠 구렁이가 웨연 들어간. 경 허연 불써 그 집이 딸은 임신 가전
 이제 뱀 불었거든. 이젠 그 집에서 아이고 이제 어떻습니젠(어떻게 하면 좋습
 니까?). 이걸 살려줍센. 이젠 마당 가운데 솥을 무슨 쉰 동인가 머 얼마가 막
 답안 이젠 그 우이 시리 앓전, 시리(시루) 우이(위에) 앓전⁷⁾ 그 솥불로 쳐
 가나네(찌 가니까) 그 베염새끼가 시리로 하나 빠져났다. [조사자: 어디 배
 에서 나왔수가?] 그럼. 빠지난 그냥 사름은 탁 줌무천⁸⁾ 이젠 약 달여 맥연.
 경 앓이민 그 집이 그 베염새끼 화하여 나오민 전멸될 집이라. 그 그걸 도오
 주젠(도와 주려고) 그 양반이 간 거주. 경 허난 이젠 사위 궂텐 말이그만 돌
 아나 부렸주.

(1983. 7. 28., 애월읍 광령1리, 부 기옥, 여·68.)

6. 애기업개 말도 들으라

애기업개 전설. 애보개. 그러니깐 이것이 [조사자: 애보개라고도 하지 예?
 애기업개.] 그 애보개 전설이 그 애보개 그 말도 들……. 여기 속담에 ‘애기
 업개 말도 들으라’, ‘애기업개 말도 귀담아 들어라’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거 바로 거기에서¹⁾ 나온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허문
 에, 그 마즈막 성을 공략할 적에는 그 대문이 완전히 철문으로 돼 있었다고 그
 래요. 아마 이 제주도에는 쪽술가락, 머 옛날 그 청동기 이후니깐 놋쇠, 예, 그
 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건 씨가 없이²⁾ 전부 거두어다가 고걸로 무
 기를 만들고 그 거기에다가 철문을 해서 이중삼중 겹겹이 쌓아 노니까 도저히

7) 그 딸을 앓혀서.

8) 기절했다는 뜻.

1) 김 통정 이야기에서.

2) 하나도 남김없이.

뚝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사자: 네.]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방법은 이거 이 쉼니깐 때여서 녹인다는 거여. 근데 그걸 모르고 어 거기서 김 통정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애보개 하나를 거 좀 싫어해 가지고, 아마 장군 댜니까 여자들도 좀 좋아했겠지. 그러니깐 그 중에서 아마 그 첩실에 그 난 걸 그 좀 잘 돌보지 않는다고 내쫓가 버리니까, 고게 밖에서 뱅뱅 맴돌다가 아 이거 그 여·몽 연합군이 와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깐 우습더라 거여. 허니깐 아마 그 꼴을 보면서 웃거든. 그러니깐,

“너, 왜 웃느냐?”

잡아다 놓고 이제 하니까, 하 이게 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우스워서 웃는다고.

“아 그까짓 거, 그거 아 두 일뤼 열 나흘만 걸리믄 그거 그 당장 터주울 건디(부술 건테), 그것도 못 한다.” 고.

“그믄(그러면) 어떻게 하믄 되느냐?” 고 하니까,

“하, 여기에다가 풀무를 해……저 불무. 저 풍구 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그냥 디리, 대장간에 가믄 거 있잖아요? 그 풀무질하는 거. 풀무를 해라 말야. 그러믄 그거 아주 쉽게 댜 건테. 이거 원 장수님들토 영 머리가 안 돌아가신다.” 고.

이젠 하 이게 바로 병법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 켜에 그 그렇게 하니까 14일 동안, 허니까 보름 동안이지. 우리 제주도 말로 두 일뤼 열 나흘이라고, 그러니까 2주를 말하는……. 2주 동안 것 때니깐 두 겹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냥 이제 흠이 내려 앉으고, 이 쌓았던 게. 그래서 그 공략을 했다.

그때 그렇게 그 견디다가 안 댜니깐 김 통정 장군은 날아가서 저기 어디 관탈도까지 날아가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해군이 워낙 심해서 이제 다시 산으로 뛰어올랐다. 해서 붉은오름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부하들이랑 전부 자결하게 하고 계서(그래서) 산이 그 벌경게 물들었다고……. 지금 붉은오름, 붉은오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지워진 이름이다, 마 그렇게들 하고 김 통정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조사자: 게난 어린 때는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들어서마썰?] 에 그러니깐 그거 머 신경화시켜서 그런지 신이 돼서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 저 중국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고. [조사자

: 그렇게 죽어……. 이 그 당시 이야기면은 죽었다고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 테주.] 네, 그래요.

(1983. 7. 27., 애월읍 광령 1리, 고 용해, 남·44.)

7. 매고할망

우리 광령에는 머 흔히 침 많이덜 들으러 오면 이걸 전하는데, 이 매고할망 전설이라고 고려 말엽이죠. 그게 그것도 역시 그 이전에 얘기언 거 같아요. 여말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목민관이라든가 관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걸로 보아서 어, 고려 말엽이 아닌가 이렇게 머 추측을 하죠. 우리 광령의 설촌사하고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1km쯤 올라가게 되면 직선 거리로 1km가 채 못 돼 한 800m 됐는데, 산업도로변에 이 비신이굴이라는, 옛날은 사람 사는 데 ‘굴’자가 많이 들었더군요.

이 비신이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은 지금은 안 살지만. 거기에 에 고려 시대에 유목민들이 에, 모여서 살았다고 그러니다. 아, 게니깐 그때는 사냥하고 에 농경이라는 건 별로 하질 않은 때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한 고을인데 한 집안에 그 매고라는 그 여자가 아주(아주) 천하일색이었다고 그 래요. 그 거기에 있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름은 머 전해 내려오지 않는데, 결혼을 해 가지고 사는데 거 옆에 있는 무지력총각이라고, 그러니깐 말하자면 결혼도 안 하고 별로 잘 어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일컬었던 모양이에요. 그 무지력총각이 아마 짝사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조사자: 하하하…] 아, 똘게 거 이쁘고 그러니깐 요걸 탐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데도 그 집안에서 혼인을 시키고 이러니깐 자기도 좋았고 남자한테 결혼을 해서 어 아주 오손도손 잘 사는데, 에 일년이 채 못 돼어서, 어 그놈이 아무래도 요걸 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리겠거든. 방법은 그 남자를 없애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는 에 사냥을 가는 거야. 게니깐 같이. 경 허연이젠 거기에 조고만한 고을이니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고, 지금 저가 보기엔 한 30여 가구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설에도 20 유흥가 거류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에 그래서 산에 갔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에 그 나무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

면 그 절벽, 그러니까 여기 오갱이도라는 데, 저 올라가면 있는데, 어디 그 옆에 그 산물상액이 그 지금 아주 경치좋은 데가 있습니다. 머 그런 델 가서 어 그쪽에 가 가지고 잠깐 쉬는 사이에 도끼로 목을 쳤다 이거여. 그렇게 해서 죽이고 어 대충 시체를 수습한 다음에 내려왔죠. 집에 내려와 가지고 아 매고할 망안텐 얘기하기를, 에 아 어째서, 매고할망이 물었죠.

“왜 어째서 우리 남편은 이제 안 돌아와시냐?”

물으니까,

“아, 맹수를 만나 가지고 아 겨우 자기는 멧 개 죽이고 도망을 쳐 나와 가지고 에 살았고, 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무지력총각놈이 그러니깐 아 거 그 다음 머 동네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찾으러 다녀 보니깐 찾을 길이 있어요? 못 찾지.

매칠 멧 날 찾으러 다녀도 못 찾고 하니까 시름과 참 그 남편을 잃은 설움에 에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무지력총각놈이 가서 달래지. 살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했겠지.

그래서 결국 성공해서 사는 거예요. 한 해에 하나씩 일곱 해 돼니깐 에 아들이 일곱 성제드라. 에 일곱을 낳았지. 하물은 이거 끝나니깐 이제는 마음을 폭 논 거거든.

제 아무리 옛날 이야기 좀 해 봐야 머 이제야 지가 다 늙었고 꽤않겠지(꽤찮겠지) 해서 어 저기 마당에 앉아 가지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죠. 비가 쏟아지면은 여기에 그 수포가 생기잖아요? 수포. 거품이,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데, 이제 그것을 쳐다보면서 웃거든. 그러니,

“왜 웃으십니까? 아이 어째서 야 이 이런 비가 와 가지고 지금 이 사냥도 못 가고 식량도 어려운 판인데, 아 당신은 왜 웃으십니까?”

이렇게 물었겠지. 물으니깐 대답이,

“아 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던 나머지 당신 그 전 남편을 산에 가 가지고 내가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때 목에서 나오는 피가, 저 그 피거품이 꼭 수포와 같드라. 그 생각이 나니깐, 웬일인지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웃음이 난다.”

하 거 머 참 잘 하셨읍니다고 말야.

“아, 나도 그 어떻게 부모들이랑 결혼을 시켜 주니깐 그렇게 살았지, 하 당신이 머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잘 낳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은 그 뼈도 없애 버려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깐 제발 좀 우리가 가지고 그 뼈까지 전부 줏어 가지고 태와 버립시다.”

그러니까는 그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놈이었던 모양이야. 아 이제 애길 해 줬거든. 아, 그럼 가자고 해서 올라가 가지고 대충 물어봤던 곳에 가니까 아 거 가리켜 줬어.

가만 생각하니까 같이 하면은 남편이 눈치를 챌까 봐서, 지금 같이 사는 그 무지력총각놈이 눈치챌까 봐서 거기만 표만 해 두고 가만이 생각해 보니깐 오늘이 일진이 좋질 않다. 오늘 날잘 하게 되믄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칠 우려가 있으니깐 다음날 내가 와 가지고 혼자 처리하겠다. 경 허난 따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참 밤중에 올라가 가지고 전부 이제는 수습해서, 어 유골을 수습해서 치마폭에다가 싸 가지고 바로 관가로 달려간 거예요.

사실 그 쪽에도 이제 관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어디 저 시내 있었..... 어디 머 어쨌든 관가로 갔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관가로 가 가지고 ऐ 이런 그 사실을 전부 털어놓고 털어논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은 체포해 가지고 그러니깐 그 아이들까지도 전부 자기 손으로 죽여서 묻어 버리고 토굴을 뚫어요. 자기 살던 집에다가. 이제 성을 싸 가지고 딱 문 하나. 그 옛날 고려면은 방미였잖아요? 저 옆으로 돌 다와 가지고 우에다가 석실묘, 그와같이 집을 만들게 해서 동네 사름들한테 만들고 어 기름불, 거기 그 쪽에는 들깨기름불을 켜던 모양이에요. 여기 이야기하면은 유, 들깨, 들깨기름불을 해 가지고 그 기름잔이 있죠. 등잔. 등잔이 아니지. 접시같은 거. 요 위에다가 불을 켜고 들어 앉아서 문을 막아 버렸어. 구멍, 요만한 구멍 하나만 뚫어놓고 사름들한테,

“이 불이 꺼지거든 내가 죽은 줄 알고 이걸 막아 주시오.”

그래서 고걸 막아놔서 막아놔다. 그렇게 했었다.

(1983. 7. 27., 애월읍 광령1리, 고 용해, 남·44.)

8. 선달 이야기

이제 머 분투굴이라고 거 머 사장밭, 분투굴 이런 건 댜 마을에서도 대개 머 활쏘는 활터, 그거 선달하는 얘기. 그 거 별로 훈련도 안 쌓고 그저 힘만 치레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아 놈 쏘는(남이 쏘는) 화살, 그디 가서 툭 건드리니, 그걸 뭘 그렇게 해……. 거 툭 건드리니깐 가서 과녁에 맞아 가지고 선달했다. [제보자·조사자: 하하하.] 이거 머 봉이 김선달 식이 아니고 그건 아예, 그런 전설들은 꽤 많아요. [조사자: 그런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선달 이야기.] 아, 예. 그건 또 이 참 쏘끔 너무 공개할 수가 없는 사실이 그런 자손들이 또 혹시 그 들으면은 또 자기 조상 모독한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대개 그래요. 재미있는 게 그 힘을 아주 치레한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 저 무관이 돼고 싶다는 그러한 그 생각도 없고 그저 산에 가 가지고 나무나 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거 이조 한 머 중엽 시절인 모양이에요. 여기 와 가지고 예 활터에 이 한량들, 그러니깐 좀 양반집 자제들이라든가 그래도 조금 행세하는 집안 자제들이 가 가지고 거 활을 쏘는데, 매일 가 가지고 거 훈련을 하는 걸 보니깐 거 뭐 이거 참 그거 쉬울 것같이 생각이 든단 말야. 그런데 자기도 한 번 해 본다고. 계속해도 안 돼거든. 이젠. 그런데 한 번에는 가만이 가 가지고 맨손으로 활을 던지니깐 퍽퍽 들어가. [조사자: 하하하…….]

그러니깐 이게 희한한 얘가지. 그래서 이제는 하물은 쪽 썩허게 양반들 가서 하는 데 가 가지고 시위를 겨누고 그냥 하 이번엔 과녁이다 하고 맞힌 게 그걸 뭐 그렇게 한쪽 눈 감고 힘들게 허느냐? 이렇게 허문 뒸는 걸. 가서 정통 맞으니까 그 때는 자기는 선달을 못 해서. 그러니깐 너무 과거를 시켜 준 거지. 그러니까 시험관을 보니까 몇번 누구가 착 맞히거든. 아, 그러니깐 거 선달. 해서 벼슬을 주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1983. 7. 27., 애월읍 광령 1리, 고 용해, 남·44.)

9. 왕자 구해 준 고찰방

또 이조시대에 여기에 또 찰방 전설인데 이건. 이조시대에 또 그 거기에다가

왕자 셋을 데리고 여기에 피난을 왔는데, 비양이 아니라 피난으로, 그러니깐 요 세대가 에 참 확실칠 않습니다. 영·정 양조몬 영·정 양조때 에 이름자가 말 두자(斗), 밝을 철자(哲)예요. 두철. 고. 高斗哲이라는 그 하르방이 에 이 동네 쪽기(저기) 가면 매믈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이쪽에 베염못이라고 있습니다. [조사자: 베염…….] 베염못. 그러니까 사지(蛇池)지. 뱀 사. ·베염 못, 베염못 하는데, 그 베염못이라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4·3 사건 전에까지도. 나도 거기에 놀러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면 그 근방에 아주 크다란 말 백 수, 소 백 수를 키우더라고 그래요. 그 하르방이. 현데 에 하룻은 그 내(川)가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깐 내가 크게 터지몬 아주 볼 만 합니다. 장관이죠. 거 이 저 무수천, 지금 매믈. 학생들 많이 놀러 오고 이 관광 유원객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고기에다가 그 쪽에는 나무가 아주 그냥 뻗 뻗이 울창하고 거 아름다리 나무가 넘어서서 거기에 나무를 잘라다가 남방아, 남방에를 만들었다고. 남방에, 이 제주도 말로. 이게 저 요렇게 콩콩, 그런 그 절구통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다란 나무들이 뻗뻗히 들어서고 이런데, 에 거기에 아 소와 말이 멧 마리 그 쪽으로 가는 걸 보아 가지고 그 하르방이 뛰쳐 쫓아갔죠. 막을려고. 막을려고 따라가서 아 보니깐 아주 그 참 자기 생전에는 안 보던 비단보자기에다가 아주 그냥 그 저 특수 문자들토 써 있고, 보니깐 글은 좀 했던 모양이에요. 아, 보니깐 아 귀할 귀자(貴)도 써지고 복 복(福)자도 써지고 머 하늘 천자(天)도 써지고 임금 왕자(王)도 써지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서워서. 보니, 그래도 뭔가 있을 거 같아서 가서 둘러보니깐 물에 떠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나무밑에 걸린 거예요. 그걸 꺼내서 보니깐 벌써 죽었지. 거기에 그 어텐데, 그 한 4km 이상 흘러 내려왔으니까. 에 그걸 잘 수습해 가지고 옆에다가, 아주 그냥 그래도 명당도 좋고 자리도 꽤 좋은 데 봐 가지고 이렇게 잘 묻어뒀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몰래. 잘못 걸리몬 역적으로 몰려 가지고 죽을 거니까. 그걸 숨겨 뒀는데, 그게 왜 그게 그렇게 됐느냐?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보니깐 그 벼슬한 지가 영·정 양조때입니다. 그 지금 측지를 그 에 그 공으로 찰방이 됐는데, 유공(有功) 찰방이죠. [조사자: 유공찰방, 예?] 예. 올라오라. 그래도 겁나서 가면은 에 또 문책해서 이제 또 당할까 봐서 겁이 나서 안 올

라간 거예요. 멧 번 불러도, 임금이 불러도 안 가고 그러니깐 할 수 없이 그 양반은 제주도원 찰방이나 시켜라. 그런데 그게 그 아마 그러니깐 이조 그 계 산하게 됐면은 영·정조 이전에 마 인조반정, 그러니깐 숙종조뎡가? 그러니깐 숙종, 아마 숙종뎡 모양이에요. 그 숙종 아니믄 그 인조반정, 그 쪽이 아닌가. 확실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 원 저 전해 내려온 게 없는데, 여기에 그 피신 온 그러니깐 피신 온 호위 군사들 멧하고 거기 유모들은 데리고 또 그 리고 신여, 정실에서 나질 안하고 후궁에서 난 왕자기 때문에 에 없앨까 봐서 도피로 아마 제주도에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숨을 곳이라곤 별로 없으니깐 그 바로 왕자무덤의 그 지형지물, 그걸 이용해서 옛날 고려때에 있던 그 석실 묘를 숨을 곳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까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서 잡으러 오니까 내가 흐르는데도 글로(거기로) 뛰어넘다가 그 애를 거기에 빠친(빠뜨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고. 그래서 그 왕자 하나만 살아나가서 어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깐 누군지 모르죠. 임금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때 흘러 내려온 그 왕자를 좇어 가지고 잘 보호해서 뒀다가 그게 조정에 알려 져서 그 고 두철이가 바로 영·정 양조때 제주도원 찰방을 제수받았어요. 게 니깐 아주 시기가 지난 다음에. 재미있는 게 아 그거 소말이 그 쪽으로, 그 역 수같이 비가 오고 내가 크게 흐르는데도 뛰어간 것도 아 그 하르방으로 하여 금 그 왕자를 주워 가지고 수습해라 하는 에 그러한 신의 계시다. 전부 그렇 게들 믿습니다.

(1983. 7. 27., 애월읍 광령 1리, 고 용해, 남·44.)

10. 장사나게 한 명당자리 용진굴

그 용진굴. 이진 어덯니까? 구좌면 하도 상도 근철 가면은 이 애길 자세 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분이 지리사예요. 지관. 말하자믄 풍수지. 풍순 풍순데, 아주 참 그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70 가까이 돼신 분이라도 새백이(새벽에) 한 라산 저기 저 용진굴 넘어서, 글로 해서 한 바퀴(바퀴) 오전에 돌아오신다는,

아주 대단한, 젊은 땀 머 한 60때도 머 엔간히 아침 안 먹고 나가 가지고 거저 그 그러니까 그 저 늦인 조반이 때하게 뒤편 한 열한 시쯤 됐겠지 아마. 그 정도 돌아왔대면은 그 분도 대단한 분인데, 이게 왜 부씨라는 말을 그 분이 했는데, 부대각이라고 그 집안에 지금 부씨 조상이라고 그래요. 장사를 치루는데, 그 어떤 치산이 중국서 대국하니깐 대국에서 건너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국에서 건너온 지관이 대단히 그 명석한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한라산에서 제 일혈은 사라다, 제 이혈은 아 제 이수덕이다. 머 이런 그 이거..... 전부 얘기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우선 그 사라에 에 쟁장헌 혈이 있다. 명당 자리죠. 명당이 있다. 그러니깐 거기에 가 가지고 너의 부친을 쓰웨 금관을 해야 된다. 방법이 없죠. 명당은 봤는데, 자기 아버진 돌아가고 아들은 삼형제고 인제 근데 요 그 중에서도 장손이 당장 발복할 땅이야. 어쨌든 장수가 될 곳이야. 여가 문관혈(文官血)은 별로 없다 그래요. 전부 이 무관혈(武官血)이 이 이 쪽으로 산세가. 근데 고기(거기) 가 가지고 썼죠. 방법이 없지. 금관 하라 그러니까. 가만이 생각을 하니깐 이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형이 생각하기를 ‘금관이다. 도저히 짚 아니문 머 나무관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생각..... 다음에 아침에 툇 일어나 가지고 동이 싹 트는데, 눈을 보니까, 보릿낭눌(보리낭가리)을 보니까 번쩍번쩍하게, 할 수 없다. 이거 뭐 금관은 못 해도 에 이 뭐 급한데, 당장 그 날 그 시에 에 자리보다도 날짜가 더 중요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깐 땅자리는 4할이면 연월일시는 6할을 차지한다.¹⁾ 이 저 아 머 그렇게 해서 허니깐 아 시간만 맞추자. 연월일시만 정확히 맞추면은 거 조금은 덕 볼 거 아니냐? 다 금관 하면은 다 볼 건데. 워낙 가난하고 그러니깐 보리칩으로, 그냥 보릿대로 대강대강 묶어 가지고 올라가서 장사를 치룬 거예요. 장사를 치루는데, 하필이문 또 그 계광(開曠)에서 딱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관, 하관이라고 그러죠. 하관하는 시간에 햇빛이 번쩍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지, 아무도..

하, 이것덜 가난하니깐 머 금관으로 해서 묻으려는데 그때는 그걸 비밀이라, 비밀 중에서도 아주 큰 비밀인 모양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냥 다 갖다가 이,

1) 시간이 중요하다.

장사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비가 그냥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으 거기에 저 용진굴 요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개미등, 어덯니까? 에 개미등. 개미등 올라갈 때 탐라계곡 있죠? 탐라계곡. 거 지금도 내가 사나운데, 옛날도 아마 물이 크게 내렸다면은 딱 뛰어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그) 거기에서 아무나 못 넘어들어요. 물이 크면은 글로도(거기로도) 불가능인데, 이 상제(喪制) 덜이 그냥 힘이 생겨 가지고 말야, 거기 가서 상뒤꾼(상두꾼) 들을 한 쪽에 두 사람 세 사람씩 퍼뜩퍼뜩 안고 뛰어넘다더라. 뛰어넘는데, [조사자 : 갑자기 그런 거라마썬?] 그렇죠. 힘이 생겨 가지고.

‘하, 요거 이상하다.’ 게 이 뭐 어쨌든 그렇게 그냥 아주 속발(速發) 중에서도 이만저만 빨리 그 거 효험이 나타난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한 메칠 있으니깐 이렇게 큰아들이 마 어디 갔다 오는 사이는 없이 아 뭐가 그냥 시²⁾에 있는 물건이 들어오고, 산에 있는 게 들어오고. 하니 변케가 생겼어요. 집안에. 허니깐 고 집에 그 며누리가, 이러니깐 며누릴 잘 해야 돼요. 게니깐 이 멍청해 노니까, 집안이 안 텔라니까 아 거 침 아 거 자는 집에 조는 며누리가 들어와 가지고 말야. [조사자 : 하하하…….] 아 요게 대가린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아 이 의심스럽거든. 뭔가 의심스럽단 말야. 아 이 자는 것도 그냥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 하며, 머 그냥 어려웠던 게 그냥 머 수시로 그냥 머 얼른얼른 그냥 팡팡(거침없이) 머 일어나가거든. 그러니깐 머 생활도 쪼끔 이젠 윤택해져 가고. 갑자기예요. 불과 머 수개월 내에. 이상하다. 새벽에 모르는 사이에 살짝 잠자리를 비와 가지고 어디 갔다가 얼마 없어서 돌아오고 하는 게 수상하거든. 그러니깐 어데 이 그 저 요즘말로 다른 여자나 어디 해서 이제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마 요렇게 의심도 나고 뭔가 의심스럽단 말야. 그래서 뒤를 밟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 뒤를 이제 밟으니깐 하루는 싹 나가더니 뒤쪽 감나무 있는 옆에, 후원에 가 가지고, 이 그때는 가죽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이 뭐야 털모자를 쓰고, 벌립, 벌립 머 정당벌립, 아니문 그 저 털병거지. 맞아, 병거지 썼겠지. 그거 헛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싹 벗어 자치고 양쪽에서 이 명주로 그냥 뚝뚝 말아 가지고 한 이제 이걸 쪽 풀어내니깐 짹 자기 그 키도 그 아마 대단했던

2) 지금의 제주시. 당시 제주목을 말함.

모양이에요. 거 힘이. 원래가 키는 그렇게 크고 힘도 있기는 있었는데도 그 묘소를 쓴 다음에 그렇게 그냥 힘이 더 생기고. 날개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몇 번 요렇게 요렇게 하더니 그냥 휙 날라…….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젠 여자는 큰일났다고. 천하에 역적 나게 됐든 우리 집안이 전부 씨 멸족할 거다. 저녁에는 술, 좋은 술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하고 누는 사이에(잠든 사이에) 옷고름 윤디로, 근데 이 아직 이 나는 연습을 한 거지. 어디 그러면서 그 저 뭐 좀 가져도 오고, 아직은 아주 어린 날개니까. 게, 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요 곳테로 윤디로 그냥 싹 동맥을 지저 버린 거예요. 게니깐 힘이 폭삭 없어질 거 아니예요? 그다음 동생들은 힘이 그냥 나 가지고 날개가 없어도 힘이 나서 그냥 이 동네 안에는 소문이 나 버렸어, 이게. 그러니깐 그냥 사람들이 관가에도 연락이 돼 가 가지고 가서 파 봤어요. 고걸, 그 묘자리를. 묘자리를 파니깐 시체가 용이 돼서 금방 날아가려는, 금방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금방 날으려는데, 이것도 역시 날개가 꼭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린 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주 승천해 버릴 건데. 날질 못해 가지고 용진굴까지, 겨우 그까지 뗏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서 바로 용진굴이라는 거예요. [조사자: 용진굴…….] 예. 용이 떨어졌다. [조사자: 근데 그 자손들도 죽었는가 마썸?] 그래서 그 쪽에는 그러니깐 자손들도 전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근데 그 마지막 동생은 그래도 힘은 워낙 장사였기 때문에 커다란 힘자랑으로 살았다. 대각, 대각. 그 자손들이 지금 있어요.

(1983. 7. 27., 애월읍 광령1리, 고 용해, 남·44.)

11. 왕비가 된 딸

옛날에 그 죽식을 아무 아들도 딸도 없어서 법당으로 간(가서) 기도를 많이 하여. 허난 딸죽식이 허나 천하일색으로 우리 한국은 이제 춤말로 모범엔 아가씨ㄴ찌 태어나서. 이젠 글지후젠, 어멍 아방이 매날 이제 법당에 강(가서는),

1) 그 후에는.

“우리 딸랑 왕비나 뒤편 해 줘서.”

그자 매날 기도만 허염서. 허염시난(하고 있더니) 하도 그 여즈는 하도 천 하일색으로 고와노니 그 시님(스님)이 혼 번은 불공허레 간 불공허여 뒤편, 부처님 뒤으로 들어가네, 그 부처님 다른 방으로 들어간, 부처님 뒤에 간,

“너는 아무 시님을(아무 스님에게) 너의 딸랑 주라.”

그 부처님으로 말 끝아 부런. 그 이제 시님이. 부처님 뒤에 들어간. 경 허난 이젠 원불공을 허여 된 집이 오란 아방(부친)이 탁 드러뉘네 때(식사)도 아이 먹고, 혼 일주일을 죽어 불젠,” 아방이. 계난 딸이,

“아버지, 어떻허난 밥도 아이 자시고 이렇게 방 가두완 이 모양으로 허염습니까? 저는 원 알 수가 엇읍니다.”

이젠 나는 속텐 말로 혼 곡지(한 마디) 허여 뒤편(해 두고) 나는 죽어 불젠(죽어 버리겠다고).

“먼(무슨) 속텐 말입니까?”

“아이고 나는, 기도하면서 나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왕비님이나 뒤편 허여 줘서 허연 축원을 허민 불공을 간 허단 보니, 이번 불공을 가나네 부처님이 ‘너의 딸랑 아무 시님을 줘 불라’ 경 허여시니 난 시님 각시는 보내지 않여고…….”

“저 게, 아버지, 부처님 궂는 말을(부처님 하시는 말씀) 혼 수가 십니까? 그자 아버지, 어서 그 시님신디레 궂저당 줘 부립서. 이제 부처님 궂는 말을 거을영(거역해서) 뵈니까?”

딸은 그냥 경 허난,

“게멘(그러면) 느 궂는 말도 들영 것도 님아뵈다.”³⁾

게거드네(그러면) 이젠 목수 빌어단(빌어다가) 하꿀 차네 하꼬레 딸이 이레 들어아지렌. 이젠 물에 강 들이쳐 부러사주.”⁴⁾

그냥 하꼬 찬⁵⁾ 하꼬에 님아네 이젠 그 사름덜 빌언 두러메여 아전 가단 보

2) 죽어 버리려고.

3) 그럴 듯하다.

4) 던져 버려야겠다.

5) 상자를 만들어서는.

니까니, 막 나라가⁶⁾ 넘어가. 나라가 넘어. 옛날은 그 물 타면서 [조사자 : 군대들이.] 예. 군대들이 그 나라, 이제 저 거시기 가매(가마) 모션 나라가 모션, [조사자 : 왕이마썸?] 왕이 넘어가단 넘어가. 그 사름은 그거 두러메연 이젠 질 어염(길 옆)에 나(와) 두고 발 어염에 강⁷⁾ 곱앗당(숨었다가) 따시 그 왕, 나랄 넘어가정(임금이 넘어가거든) 두러메영 가쟁, 넘어가. 두러메영 가쟁 이젠 발 어염에 간 아잔. ㄱ만이 아지. 그제는 나라가 탁 허게 노렌(놓으라고) 허여서. 그 나란 볼씨 알았거든. 저기 신 하꼴 이레 강 나라가 ㄱ져오렌. ㄱ져오란 깨연 보. 쳐너동. 쳐너동. 쳐너동. 그레 탁 허게 이젠 나라광 ㄱ찌(나라와 함께) 가매에 탁 허게 와 두고 이젠 그 아방은 압니까? 발 어염에 간 곱아 부러십주기.⁸⁾ 이젠 넘어가. 넘어가면 오란(와서) 또 두러메영 시님앞이 갈 것입쥬. 이젠 그레(거기에는) 호랭이 담 안 탁탁 허게 봉허연 그레(거기에) ㄱ져당 와 볼렌.⁹⁾ 이젠 머 딸이 머 그레 나라광 ㄱ찌 간 줄을 압니까?¹⁰⁾

이젠 이제랑 또 나라 넘어가. 부. 두러메. 아. 이젠 그 사름영 두러메. 아. ㄱ져당 시님앞. 데. 강. 텍. 쳐. 부. 러. (던. 쳐. 버. 러.) 시님. 신. 디. 가. 네.

“저 여기 딸 이젠 저 왔수다. 말아. 납. 서.”

하. 꼴. ㄱ. 쳐. 단. 그. 절. 간. 에. 간. 시. 님. 신. 디. 간. 맬. 겼. 지. 허. 난, 맬. 기. 난. 시. 님. 은. 하. 도. 지. 뻔. (기. 뻔. 서.), 머. 이. 젠. 깨. 영. 보. 젠. 깨. 영. 보. 난, 머. 호. 랭. 인. 목. 결. 이. 물. 언, 탁. 허. 게. 그. 시. 님. 목. 결. 이. 물. 언. 죽. 언.¹¹⁾

그. 건. 볼. 씨. 부. 처. 님. 은. 왕. 으. 로. (왕. 에. 게.) 왕. 비. 님. 으. 로. 보. 내. 젠. 막. 소. 원. 을. 이. 루. 우. 난. 허. 여. 준. 것. 을. 시. 님. 이. 탐. 허. 여. 네, 그. 여. 즈. 를. 이. 제. 탐. 허. 연. 그. 도. 렌. (달. 라. 고.) 부. 처. 님. 뒤. 에. 간. 산. (서. 서.) 허. 연, 거. 짓. 말. 로. 허. 여. 노. 난. 그. 건. [조사자 : 아, 부. 처. 님. 뒤. 에. 서. 스. 님. 이. 숨. 어. 들. 언.] 예. 게. 머. 이. 녀. 이. (자. 기. 가.) 게. 그. 부. 처. 님. 곁. 은. 것. ㄱ. 찌. ‘너. 는. 아. 무. 시. 님. 을. 너. 의. 딸. 랑. 줘. 불. 라’ 허. 연. 경. 허. 여. 노. 난. 그. 거. 순. 전. 현.

6) 왕이.

7) 발담 구석에 가서.

8) 숨어버렸지요.

9) 왕이 그 상자 속에 호랑이를 담아서 가져가라고.

10) 딸의 아버지는 사정을 모른다는 뜻.

11) 상자에서 뛰어나온 호랑이가 스님의 목을 물어 죽여 버렸다.

도둑놈 아니짜게.

(1983. 7. 29., 애월읍 광령 3리, 홍 신출, 여·63.)

12. 할머니 불공을 들어 준 부처님

옛날, 할머니가 예, 막 가난해서, 가난해서 많이 가난해서 살질 못해서 막 가난허연 살질 못허연 시난 이젠 저 어떻게사 살 수가 이시카 허난, 삼 년 나 른탓디 강 나륵 고고리 메완 시난 쏘이 홑으로 두 개가 돼여. 둘은 이만인(이 만큼) 혼 홑(合)으로 둘을 허니까¹⁾ 이거 ㄴ저서 절간으로 강 불공을 허자고.

절간으로 불공을 들어가니, 안 해 줘. 쏘 족덴 안 해 줘.²⁾ 또로(다시) 따 른 절간으로 강 불공을 허젠 또 다른 절간에 들어가니, 거기도 안 해 줘. 그 사름이 오죽 서러울 거짜?

“아이고 시님, 게건(그러면) 절간이(의) 저 솜이나 빌려십서. 나, 밥이 나 허영 먹영 가쿠다.”

이젠 밥을 받을 햄시니까니(하고 있으니까), 어떻헌 걸인 동녕바치(거지), 아주 추접헌 걸인 동녕바치가 완 이젠,

“동냥을 허썰(조금) 줍서.”

“나는 동녕줄 것 엇이……. ㄴ만이 아자십서. 나도 동녕바친디 밥이나 먹 언(먹고) 살아보젠 3년 나륵탓디 나륵 고고릴 메와네 쏘을 둘을 해노난 두 탓디(두 군데) 오라도 쏘 족덴 불공을 아니 허여 주니까 밥을 행 먹어 똥 가 젤 햄시니까니, ㄴ만이 아자시민 이 밥 허영 안내건(드리거든) 다 먹영 갑서.”

그 밥 허연 낭푼이(밥그릇)에 복복복복³⁾ 굶언 이젠 그 밥을 먹어 두고, 다 먹어 두고 [조사자: 거지가마썰?] 그 거지가 다 먹언, 오꼳 그자 먹으난, 다 먹언 나간 후이 허는 말이,

“당신 소원이 뭇이오?”

“나는 소원이 밥뻘이 귀훈 게 엇읍니다.”

1) 두 되는 되니까.

2) 쌀이 적다고 불공을 받아 주지 않아.

3) 한 톨도 남김 없이.

“아 그러건(그러거든) 나 존는 대로 또 꼴암썌요(말하고 있으십시오).”

“뒗입니까?”

허난,

“매화꽃 혼 봉오리에 백미 삼천 석이로다, 나무아미타불. 경 허연 삼년만 꼴암썌요.”

경 허연 꼴암시니까 그 이제 여즈는, 춤 그 걸인은 그거 부처님입니께.” 하도 성심하니까니 그 시님덜은, 그 시님덜은 아니 해 주니까니, 그 걸인으로 환생허연 그 밥을 오란 그거 거 심판으로…….

게난 그 할망은 그자 ‘매화꽃 한 봉오리에 백미 삼천 석이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삼 년을 허난 그 집 우잣디 매화꽃이 나네 피염더라 험니다.

경 허연, 막 이제 경 해도 질기 땡이멍(길가에 다니면서) 그자 그 말만 꼴아, 그놈의 할망은 원.

햄시난 어느 해 나라(王)은 병이 들어네, 막 죽게 뒗연. 벨 약을, 벨 병원을 다 가도 안 좋아.

어더 강 들으난 매화꽃을 허여당 먹으면은 좋넨 허난, 거 아무 목에 매화꽃 혼 봉오리에 백미 삼천 석이로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할망이 신디(있는데), 이 신하덜 내여왕 그 할망을 강 좇이라고. 좇이니, 그 집이 간 보난 매화꽃이 이서. 그걸 해여당(해다가) 먹으난, 나라는 오꼴(그만) 빙이 좋을 거 아입니까? 경 허니까 그 집 방상테렌 백미 삼천 석 들여보내라. 땡 섬지기 들여보내고 그 할망은 나라 궁궐 안테레 바로 모셔당 일생을 살리더랍니다.

(1983. 7. 29., 애월읍 광령3리, 흥 신출, 여·63.)

13. 개 삼년, 독 삼년

옛날에 저 거시기 그 말은 들어 봐서. 저 거스기 물, 백물하고 이제 개, 개하고 흰 독이 있는데, 이제 원 밤이믄 원 이놈의 게 이상허여. 그 주연(주인) 보기에. 게 뒷날은 보민 물이 그자 막 땀이 흘청(땀을 흘려서) 이, 막 온 몸에 물이 질질 나. 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암만 봐도 원, 낮 뒗영 봐도 7만이

4) 그 걸인이 부처님이었다는 뜻.

매여 둔 몰이 경 뚝이 흘러. 게 어떻허난 흘럼싱고, 예, 이제 흘를 저녁은(저녁에는) 망을 본다고.¹⁾ ㄱ만이 망 보나네 아뭇 일도 어서. 아뭇 일도 어신디, 그날 저녁도, 뒷날은 일어난 보난 침 아닌게 아니라 뚝이 어서. 안 나. 몰이. 원 이상허다. 에이, 이 저녁도 이제랑 또 직허영 보젠.²⁾ ㄱ만이 망을 보는데, 이제 거스기 개가 ㄱ딱ㄱ딱 걸어가더니 이제 독장에 가네 그 흰 독, 이, 흰 독을 그 여난, 독망(닭장) 여나네 닭이 이젠 ㄱ딱ㄱ딱 걸어올 거 아이라? 걸어오란 이젠 허난 몰 우이레 간 톱 타 앓아. 독이. 타 앓아네 갠 이제 앞이 이끄고.³⁾ 경 허연 나가는 거라게. [조사자: ㄱ만이 보난 예?] 으.

춤 이상허다. 경 허영게 한참 이시킨 다시 들어와. 들어오란 이젠 다시 허연 독망에 노난 톱 흘게 이제 개가 이제 문 증그고 몰도 간 매고. 개가.

게난 개도 삼 년 더 질루믄 아이 돼고, 독도 삼 년 더 질루민 안 돼는 송시 부런뎡 허는 거라. 경 허연 예, 이젠 못썰쟁.⁴⁾ 또 이 저녁이 또 본덴. 또 보난 또 경 허여 (그렇게 해).

경 허연 그 말 거시기로 허영 개 삼 년, 독 삼 년 더 질루지 말라 허영 거기서 그 말이 나…….

[조사자: 경 허연 어떻 돼여싱가마썸? 그냥 내부럿수가?] 내불주. 어떻 허여게. 경 허난 독도 죽여 불고 개도 죽여 불고. 경 허였쟁 꼴으매.

(1983. 7. 29., 애월읍 광령 3리, 흥 신출, 여·63.)

14. 남편을 성공시킨 아내

신랑이 장계를 가는데 신부가 아주 얼굴도 이쁘고 곱거든. 경 하니 또 동네 사름덜도 잔치날이니 많이, 청년덜도 놀래 오란 놀고 하니, 밤이 이숙이 놀다가 다 헤어지고(홀어지고) 이젠 불꺼지 춤, 댕 줌을 자게 돼였거든.

춤을 자게 댕디 새각시가, 신부가 신랑고라 허는 말이,

-
- 1) 살펴본다고.
 - 2) 지켜본다고.
 - 3) 앞에서 말을 이끌고.
 - 4)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클이나 혼 쉬(首)씩 짓고 눕시다, 녀 잡시다.”

경 혼디 신부가 등불을 띄 그리치면서(가리키면서), 등전등후이 분주야요(燈前燈後分晝夜). 등 앞광 등 뒤에 분주야로, 낮과 밤을 분별했다고. 등전등후이 분주야요. 짝을 채우쟁 하니 아, 짝을 채와지냐 말여. 암만 생각해도 못 허여. 짝을 채우지 못허여. 짝 못 채우니 할 수 서(할 수가 있어)? 겨난 신부는 살고팠는데 아메도(아무래도) 공부를 더 시겨 보쟁. 그거 강 해득행 올라야 살자고. 그거 짝을 채왕 와야, 짝을 못 채우민 안 툐다고.

하, 이젠 신랑이 공불 혼다 말여. 공부하명도 암만 해도 것은(그건) 생각이 아이 나. 아마 혼 일 년 이상 공부를 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허영 짝을 채우쟁 좀 힘들이 연구해도 짝 채울 수가 없어. 혼를 저녁은 후원에 띄 나간 보니, 공부허다가 좀 나간 보니, 동으로 돌이 흰히 떠올라 오거든. 떠올라 오고 산테레 비춘디 산이 혼 쪽은 들빛이 바르고 혼 쪽은 그늘지거든. 옳지 댜였다. 산남산북이 판음양이라(山南山北判陰陽). 산 남쪽광 북쪽에 음양을 판단했다. 판음양이라, 음양을 판단했다. 아이고 짝이 댜였다. 이젠 그걸 지언 예펜(신부)신디 왔지.

“아 짝 채완 왔다.”

“뭇엔 지었수가?”

하니, 산남산북이 판음양이라고 영 하니, 아, 잘 했다고. 그젠 살더라 허여. 공부, 소나이(자기 남편을 일컬음) 더 시기젠.

(1983. 7. 28., 애월읍 광령 3리, 강 안영, 남·75.)

15. 義犬 무덤

[조사자 : 주인 위해 죽은 개무덤 같은 거 엇수가?]

그건 내 항상 허는다.

[조사자 : 개무덤 예?]

저 금덕서 개를 사랑허는 사름인디 개를 이제 사 불려고 상가에 좋은 개가 있다고 허여. 좋은 개가 잇다고 허니까 그 ‘얼마짜리가 댜느냐’고 허니까, 미

녕 혼 불. 그 때는 미녕 혼 불 허믄 밧도 사곡 뵈 허는 때라. 지금은 미녕 혼 불 쓸 걸로 안 허지만 그 때는 미녕 혼 불이 컷어. 미녕 혼 불짜리 개가 있다 허니까 이제 미녕 혼 불 지고 이제 상가에 들어갓어. 가고 보니 갠 맘에 드는 다. 갠 크고,

“개 풀쿠가?” 허니,

“풀쿠다. 게문 사라.”

“얼마 받으쿠가?”

“미녕 혼 불 줍서.”

“그러문 미녕 혼 불 드리쿠다.”

그래서 이제 개를 이제 헌디, 주인이 허는 말이,

“지문 진 것 다 받으니까? 반만 줍서.”

반만 주고 미녕 둘러메고,

“개를 걸려 주십서.”

“걸리고 안 걸리고 헐 거 엇이 그 갠 사랑허는 줄 알문 갑니다.”

“경 해도 걸려 줍서.”

그래 이제 짚새끼로 걸려 메고 돌아오는데, 오는데 더럭(地名)서 이레 오는 디 서죽잇못 거기 막 도적이 나는 곳이라. 거기 오니까 아 어떤 놈이 후룩헌 놈이 오란 미녕을 확 뺨 거라. 개도 이젠 그 새끼로 졸라맨 거 확 헐 나가니. 하, 이것은 내가 개 임재헌티 속았구나고. 개도 잃고 미녕도 잃고 했다. 조금 이시니 사름 살려 도랜 허는 소리가 나. 가서 보니 도적놈 여길 물언¹⁾ 탁 자 빠져그넌 살려 도랜 허는 거라. 이제는 내불라.²⁾ 갠 슬쩍 내부니. 도둑놈은 미녕 내부리고 터전 돌아나분 거라.³⁾ 이거 개가 명구(名狗)다. 이젠 다시 걸리 지도 안허고, 글라(가자).

이제는 오라서 개를 맥이는데 춤 빈궁허게 살아노니 뭐 해 볼 건 엇고. 할 망이 흐린 좁쌀인가 놔둔디 당신냥으로 강맥이 헐 맥이고 독 두 머리 암퇘기 르단 그 놈을 헐 맥이고 허단. 개가 영 보다가 지붕을 2로 뛰어. 이제 힘 차

1) 개가 도둑을 물어서.

2) 주인이 개에게 말하니.

3)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노니까. 허다가 이젠 산더레만(산으로만) 영 브린단 말여. 산더레만 영 브리니 이제 가문 그만 허문 힘 출려지니까 사냥허나. 요기 가문 요기 천하오름이엔⁴⁾ 현 오름이 잇는디 그 뒤에 가니까 노루가 우이로 비실비실 오라가니까 개가 브린 체도 안 허여. 이놈의 개가 짓(많이) 맥이단 보니까, 싯 뜨리고푼단 말여. 나무런게. 다음은 큰 웅장이 우로 걸작걸작 오라가니 대번에 달려들언 무는디 웅장, 솟노리, 그거 뭐 허니. 처음 건 증장허니 내무래연. 작으니 나무런. 이제는 이놈을 해서 짹어지젠 허니, 짹어지젠 허니까 또 웅장이 오니 또 혼 마릴 그르쳐 분 거라. 이제는 혼 마리 묻어 두고, 혼 머린 제오 지어 아전 집에 오란. 집에 오란 노리케기를 해 먹고 돌아맨 와 두니 후각(後脚) 혼 뼈가 어서. 후각 혼 뼈가. 이거 개도 지 먹고푸니 먹어신가 해서.

이제는 뒷날은 동네 사름덜 보고 저 배 가정 글라고. 산에 가문 내가 사슴을 해서 보내 줄 테니 글라고. 가서 그날도 가니 큰 거 두 마리 허연 짹어전 오란. 두 머리 묻언 전 오난 또 후각이 엇어. 홍상(恒常) 사냥을 해 오문 후각 혼 뼈가 엇어. 이거 그저 개만 먹는 줄 알았지.

혼 번은 정월에 세배허레 갔단 말여. 어디 그 세배허레 갔다가 그 개 본 임재 집이 간 보니까,

“하, 거 자꾸 왜 거 고기를 보냅니까?”

“건 무슨 말이나, 무슨 말이나?”

“하, 스실이 항상 내 후각 혼 뼈가 엇더니마는,”

“후각이엔 허문 사냥허문 개직시(개 몫) 혼 뺨 굴루이(예외로) 주는 거여. 지직시(자기 몫을) 가져간 거라.”

허니 그 주인 현 말이 이제는 늙도록 일허당 잡아먹을 생각이랑 말고. 입소장했어.⁵⁾

(1983. 7. 27., 애월읍 광령 1 리, 고 경송, 남·84.)

16. 이재수

[조사자 : 이재수마씨, 예.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4) 岳 명칭.

5) 개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잘 장사지내 주었다.

이재수가 원래가 천인이라. 천인이렌 현 거. 마부 노릇을 해서. 마부 노릇을 했는디, 여기 이 동더래(동쪽으로) 가문 무수천, 무수넷돌이라고 잇는디. 그 사름이 마부 노릇 할 때에 신이 떨어졌어. 짚신. 허니 무수넷돌 신장사가 이셨지. 신 삼아서 끄는다. 신 혼 배에 서 푼이 어시문, 서 낭도 아니 서 푼, 서 푼인다. 두 푼은 있고 혼 푼은 어시니. 그제, 하 이거, 아니 맨발에,¹⁾ 신장사가 신영 가라고, 혼 푼 모자라도. 허니, 사름이 덕이라고 하여.”

허니, 이재수는 마부여. 이 남군 저 대정서 난을 일으켜서. 이 그때 저 성교난이지. 지금도 저 그 교가 잇는디, 성교라고. 지금 저 예수교인지, 불란서 천주교. 이 교회에 붙어지니까 우리 제주도 사름덜이³⁾ 막 큰소리 해 가지고 백성들 케롭혔단 말여. 케롭히니 남군서 난을 일으켰어. 이 이걸 어떻게 참느냐. 이 그대로는 안 돼겠다. 일으키니 이 앞이 장군이 이서야 나가지. 누가 몬여(먼저) 나가느냐라. 이 이재수가 잇다가,

“날 ㄴ쁜 사름도 이제 앞이 선봉장으로 내세워 주겠읍니까?”

아, 그리 허라고. 아, 그리 허라고. 아 뭐 탁 해 가지고, 아 탁 허게 거기서 몰 타 앞이니 이 영웅이란 말여. 오다가 한림 오니까 한림 그 이재수 누이가 일본사름광 살았거든. 오래지 안헌 일이라. 이제는 매부가 허는 말이,

“장군이 칼 어서서 어떻게 허겠수가?”⁴⁾

이 그것이 황천이라고, 황천도라고 하였지. 해 가지고 이제 매부가 칼을 줬어. 칼을 주니 이제 칼 탁 차고 몰 탁 타고 이제 한림으로 한 여길 오라서. 허니, 백성덜은 조름에 혼 몇 천 명, 몇 만 명이 온디. 광령 오문 학교 앞 이 요기 광령 가문 너른 왕대가 이서. 왕대왓이 이셨지. 이제 거기 와서 백성들이 죽창 다 한 꺾작 둘러 메고 이제는 광령서 밥 한 맥이고. 밥 한 맥이고 이제는 그 저 지금 한라산역 파출소 신 그 발덜 갔거든. 제주시 가 가지고 허니 진 쳐서. 이제 성교패덜은 그때 성내, 성내 헌 것이 이제 돌아가면서 성 싸 났거든. 들어갈 수 어스니 거기서 가만 이서서. 허니, 그때는 총 했자 조

1) 어쩔 수 없어 망설인다는 뜻.

2) 사람은 덕을 쌓아 뒤야 한다고 한다.

3) 사람들에게.

4) 이렇게 말하면서 칼을 주었다.

총. 저 영 행 일로 불부찌 가지고 영 허곡 허문 허다가 못 허니, 이제 또 황 새왔디 가서. 거기 가서 진을 쳤다 허여. 이제 돌아와서 허는다, 성 안에서 백성덜이 이제 성 중가노니⁵⁾ 굶게 댔어. 굶게 댔어. 주리게 댔어. 허니 이제 혼 여자가 부재칩 여자가 쓸을 내는다, 쓸을 내난 주젠 허니,

“우리 그대론 못 살 테니까 우리가 성문 열어야겠다. 성문 열지 안허믄 우리 다 굶어 죽게 댔니까 성문 열자.”

성문 여니 이제는 이재수가 춤 백성들헌티 들어갔지.⁶⁾ 들어가니 이제는 성 교패가 이제는 몇 개⁷⁾ 안 댔어. 허니 이젠 다 묶으라고.⁸⁾

이제 열 명을 다 했어. 광령도 죽은 사름 이서. 이제는 손 다 묶어 댔어. 묶어 논디 아까 그 신장수 말을 허는다.⁹⁾ 그 이재수가 의인이여. 이제는 다 묶였는디, 묶은 사름 야가기 베는 건 황천이여.¹⁰⁾ 확 베연 툇 툇 허는다, 열 명을 이렇게 허단 보니까 그 신장사 해난 사람이 잇거든. 이 사름은 나쁜 짓 헐 사름이 아니다. 절대 이 사름은 내가 이 성교에 들었지마는 이 사름은 죽일 사름이 아니다. 그 사름은 살안.

(1983. 7. 27., 애월읍 광령 1리, 고 경송, 남. 84.)

17. 동지 설달 백련화(白蓮花)

어떤 사름이 지집아이 흥나만 낭 내버리난, 동네칩이 기영 땡기명 울엄시민 [조사자 : 애기가 예?] 응. 애기가. 놈이(사람들이) 불쌍해서 숟가락으로 밥 거러 줬거든. 거러 맥이명 살아가니,¹⁾ 그 아이가 츠츠츠츠 커 가고 열댓 살 난.²⁾ 놈의 발디 강 일흥민,

5) 성문을 잠가 놓으니.

6) 성 안으로 들어가니 백성들이 맞이하였다.

7) 몇 명.

8) 죽이라고.

9) 신장수도 성교군이였다.

10) 황천검이란 칼로.

1) 동냥해서 살자니.

2) 나서는.

“저전 저지새끼매, 저걸랑 밥이나 저래 차롱착” 두경이래 혼 순가락 거러 당 줘 불라.”

흐믓, 그거 ㄱ정 먹거든. 먹으멍도 일은 ㄱ찌(같이) 하여. 일 잘사 하고 못 혼 것도 모르지마는 그 사름광 일을 쪽 하멍, 오라서⁴⁾ 체를 싹 쳐그네,⁵⁾ 고운 (좋은) 쏭은 일 잘 하는 사름을 거러 주곡, 이 아이는 그 스래기를⁶⁾ 주멍,
“이걸랑 느 아저강 먹으라.”

그렇게저렇게 해 가난, 아이가 혼(약) 15세가 넘어 육거든. 육으니,⁷⁾ 하도 생각하난 억울해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젠 어떡하민 좋느냐?

댕기멍 보민 곱딱하게(예쁘장하게) 출령 부처님 민으래 가는 사름덜이 있어. 지름(참기름)도 질영(길어서) 가는 사름도 있곡, 쏭도 ㄱ정 가는 사름이 있곡.

“나는 쏭 싹 갈(싸서 갈) 포(보따리)도 엇지마는 이 쏭을 이제 줏자.”⁸⁾ 치매 벗어놓 아잔, 굵은 방울(알)은 밀리고, 준 방울은 영영 메여 놓고, 매일 메웁시난, 1년 내내 메와 가나네 쏭이 영 해서 혼 흡이 돼거든. 혼 흡은 돼 난, 쌀 게 이서?⁹⁾ 이젠 좋으나 궂으나 매일 입는 치맷자락에 그놈을 싸 가지고 부처님 신 디렐(있는 곳엘) 놔광 ㄱ찌¹¹⁾ 강 불공을 하젠 가. 가젠 하난, 부처님이 앉아서, 부처님이 하는 말이, 중덜궂라,

“아무 날엔 큰 불공이 들어오람시매 느네 조심행 불공을 드리라.”

해났는디, 무신 혼 집 정 오람신가 해 보난,¹²⁾ 온 건 보난 치맷자락에 싹 영 그자 영 행(이렇게 하여서) 앞이 들런 오란. 경 해도 춤 부처님 말씀이라 불공을 잘 해 줏거든. 해여 권, 이젠 나오젠 하난, 가인(그 아이는) 좋게사 해

- 3) 밥을 담고 다니는 자그마한 대바구니.
- 4) 일을 한 다음 집에 와서.
- 5) 싹을 줄 쌀을.
- 6) 잘게 부서진 쌀.
- 7) 분수를 알다.
- 8) 제대로 품삯을 못 받는 일이 억울하여서.
- 9) 많은 사람들이 쌀을 갖고 다니는 길가에서 떨어진 쌀을 줏자.
- 10) 쌀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
- 11) 남과 같이 가서.
- 12)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가 했는데.

취신디 궂게사 해 취신디도 몰르고, 이젠 취 될¹³⁾ 그냥그냥,

“불공 ㅁ쳤져.”

흐나네,¹⁴⁾ 오젠 나오단, 오라가단, 부처님이 불러당,

“네 염불이나 흐 곡지 배왕 가라. 해 줄 것은 웃다.”

흐난,

“뭇입니까?”

흐난,

“일은 흐영 들어오랴고 아명했고, 천강수루 세수백이 좋은 것이 웃다. 물
거려 놓고, 손 잘 씻고, 닷 잘 씻영 그새 잘 흐여서, 반뜻 출러그네, 꼭 문전
데레 들어아장 ‘동지 설달 백련화야, 동지 설달 백련화야.’ 그 염불을 쪽 그
추룩 흐당그네 그룩홀 시간 돼건 그룩하고. 그거나 흐나 배와 주커매 그것백이
배와 줄 것은 웃다.”

오난,¹⁵⁾ 그날부터 세수하고 아장, 문데레, 문전데레 그자 그 춤 요새이야 불
치막만도 못 흐 디주마는¹⁶⁾ 아장, 그자,

“동지 설달 백련화야, 동지 설달 백련화야.”

이 노래를 항상 불러. 멧 년을 흐 일삼년. 일삼년을 그 노래를 불러가난, 아
이디 이제 영 문 바꿨디(바깥에) 대뭇뚱에(대문가에) 파랑흐 나무 난 우테
레(위로) 영 큰디(컸는데) 헤영흐(하얀) 백련화꽃이 피여. 피난, 지꺼진 후
젠(너무 기빠한 나머지) 그 꽃을 바레여서(보면서), 그자 매일 아장 그자,

“동지 설달 백련화야, 백련화야.”

이걸 불르니.

대관(大官)의 아덜이 죽을 병이 들언. 왕 아덜이마씨. 세존(世子)가 죽을
병이 드니, 하간 디(여러 곳에) 가서 문점(問點)을 흐난,

“동지 설달 백련화꽃을 딸러 먹어사 이 병은 낫나.”

흐연. 동지 설달에 백련화 꺾네까? [청중을 향해서] 백련화라 흐면은 연

13) 그 쌀을.

14) 중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15) 절에서 돌아와서는.

16) 아주 작은 집이란 뜻.

17) 대궐에서 온 사람이.

꽃인다, 연꽃이 오유월에 피는 거거든. 이진 여름 화초니, 봄춘(春) 때가 넘
어사 피여. 백련화가. 이렇게 됐니, 여름 화초니, 동지 선달에 필 리가 있수
가? 경 허난 이걸 구허민 구해질 수가 이서? 막 이제 사름덜을 풀어 놓고
막 좇으난,

“저 시골에 이제 혼 할망네(노파의) 집이 무슨 놈의 꽃이 해영혼 꽃이 피
긴 피여서고나마는, 뭐 우리가 모르켜.”

“그 집을 좇아내라. 좇아내라.”

허연!¹⁾

간 보난 춤 백련화꽃이 피였거든.

“할마님 저 꽃이나 풀아줍써.”

“아고, 나 혼 땡경. 나 죽는 날까지, 부처님 말씀이, ‘백련화야, 백련화야’
노래를 부르렝 허난 나 불림시난 그냥그냥 꽃이 피여시매, 나 그거 풀지 못
허켜.”

해도 하도 사정을 허나네, 돈도 아니 반곡 이제,

“어서 해여가라.”

경 허난, 그 꽃을 해단 딸령 맥이나네 황태자가 살아났거든.

황태자 말씀이,

“나 병을 어떻게 구완했어요? 그렇게 구완 못허는 병을 어떻게 구완허난
구완해집데강?”

허난, 자초지종을 얘기허니, 세즈가 그 할망을 모셔오렝 허연, 모셔다가 세
즈 어머니로 삼았댄 허여.

(1983. 7. 28., 애월읍 광령1리, 김 여옥, 여·74.)

18. 高氏댁 장사 이야기

— 날개 달린 아기장수형 설화 —

멧 대 안 댜 사름인다. 옛날에 옛날에. 어린 때부터 사름이 장스허게(힘 세
게) 나와서, 영 부모네가 보면은 뵈단 자리¹⁾에 아으가 없어. [조사자 : 아, 날

1) 아이가 누웠던 자리.

아 땡겨부난 예?] 밤이는(밤에는) 올래 이런 몰필뚱에 앉아서 이런 디 앉아서 옷은 그디 벗어 두고 그만 밤인 아기가 도망해 부러. 도망해 부니, 이거 어떤 일인고 영 보니, 그 아이가 놀개(날개) 돋았단 말이라. 즈식이(자식이) 놀개 돋으민 역에 몰린다고.” 건 옛날에 역에 몰린다고 해서, 역에 몰린다고. 윤디(인두)를 지저서 술을 독하게 둥근 거(담근 것) 복쌈(실컷) 맥여 빠져 밤에 놀개를 잠절(잠자는 가운데)에 이제 옷 다리는 윤디 잇잖여? 그놈으로 지저 부렸단 말이여. 그놈으로 슬슬 지저 부니. 아, 깨난 보니, 그렇게 돼시니, 아 이 청원한(슬퍼서) 오죽 운 거라게. 걸 종랜 역에 몰린 거 댜 부난. [조사자: 예. 죽진 안해서마썸? 놀개 지저 부난.] 놀개야 원근(原根)만 지졌주 기. 놀지만 못하게 지졌주 기. 크지만 못하게. 윤지로 지지민 배직배직 퍼닥거리지만 못해주, 안 죽거든. 그 하르방이 경 해도 힘은 썰연. 경 한 날개 돋았다고 혀. 우리 9대조인디. 그 하르방은 아 씨기도(세기도) 씨여. 원 옛말도. 저 큰오름에 가 그네(가서는), 아덜(아들)이 그 아덜이 경 해도 썸 체한니 쇠얏배(소매는 줄) 해서 옛날엔 상통이, 상통일 딱 줄라매영, 아덜이 하도 썸 체한, 몰오름(馬岳) 꼭대기에 앉아두서 아덜 7라 들으렌(달리라고) 한 들으난(아들이), 조꼳 아방이 동기난 뒤테레 헬썸 갈라져 부러.” 그러니, 이제는 아방이 이젠 또,

“내 상통이 줄라매건 느가 동기라.”

한(하니까),

“아, 아방이 원 날보다 더 썸가?”

해네,⁴⁾ 이제는 그 옆이 이젠 이만은 혼 낭 두 패기(그루터기) 이서. 볼랫낭 이라고. 옛 버침직 한니⁵⁾ 이제 그레⁶⁾ 확 감안 내 부러서. 감안, 볼랫낭에 묶언 내 부러서. 묶언 내 부니 후루룩 내두르니⁷⁾ 낭패길 혹 매연(뿜아서)는) 꺾어 아전 오란.⁸⁾ [조사자: 상투에 묶어신디도 예?] 응. 이 머리에, 머리에, 상투

2) 역적으로 몰린다고.

3) 아들이 뒤로 자빠져 버렸다.

4) 그렇게 생각해서.

5) 당하지 못할 듯하니.

6) 그 나무에.

7) 잡아 당기니.

8) 아버지가.

에. 춤 여간 썬 하르방이 아니주.

[조사자 : 그 하르방이 어떤 일을 한 살아서마썬? 경 힘이 썬디 무슨 일을 했수가?] 일은 무슨? 노동일이주. 홀 일이 셔게? 맨날 밭갈고 썬 낭토막 햅영 메틀 굶영(여러날 굶어서) 저 산이 강으네, 그런 장스나 했주. 홀 게 으섯주기. 요새 닳앙 경도 안 햅여. 요샌 그런 하르방도 웃고.

그 하르방네가 경 씨긴 씨던 ㄹ라 그런 옛말이 이서마썬. 소를 영 묶어서 무수내(무수천) 동서넛 바위에 부즈(父子)가 앓아두서 이디(이 쪽에) 앓아서 저디(저 쪽으로) 던지고, 저디 앓아서 이디 던지곡. [조사자 : 소를 던져, 예?] 그렇게 부자간이 그렇게 해났다 햅여. [조사자 : 그 아들도 힘이 썬 구나, 예?] 아방이 더 썬넛 햅여. [조사자 : 무슨 산 잘 씨서 그렇게 힘썬 장수가 난 건 아니고마썬? 그런 이야기는 엇수가?] 산을 잘 썬 그런 건 난 얘긴 웃고.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인택, 남·63.)

19. 최둥이

최둥이가 그렇게 힘이 씨여. 힘이 썬디. 경 해도 저 힘은 경 썬디 가난햅여. 가난해서 놈의 일을 죽장(늘) 햅여. 놈의 일을. 나무를 자르는데, 가난햅니까 고지 가서 옛날에 그 저 나무, 나무를 베서 집을 지을라고. 힘 썬 사름이니까 “나무를 베 도라.”

고 햅니까, 최둥이가 댕가 뭇인가 가지고 제자리, 옛날 낭 깎으는 제자리, 그걸 가지고 이젠 산이(산에) 갔는데, 낭을 흔 짐 잔뜩 햅여서 걸머전 오라 서 부리니까 집 흔 거리첼 다 행 짓어 부럿주. 그 사름이 최 상훈이 증조썬 댕 거라. 그디 지금 그 최침이 문딱 망햅영 우리 부락에서 지금 사설공동묘지 햅 영 요디 비석도 문딱 세우고 햅엿주. 경 흔디 춤 집낭을 경 햅영 오랑 사랑햅 게 부리니,

“이거 얼마치나 홀 견고?”

“집 흔 거린(거리채는) 지을 텨쥬.”

그때 집남이야 고지(산) 간 저온 거, 굴무기¹⁾ ㄹ튼 거. 아주 좋은 나무들이
테주. 경 해서 하니 거 심이(힘이) 켜다고. 힘이 켜다고 하니 해났는디, 한번
은,

“저 최서방, 우리 남방애나 해다 줘.”

남방애. 옛날은 거 굴무기로. 남방애 하니 한, 제자리 메고,

“거 난 뭘 하니 한 배가 큼니다. 무신 거 한술 낮게 행 줘.”

“경 한쥬. 게문 뭇을 잘 먹어?”

옛날엔 모멸춘배길(메밀수제비를) 잘 해 줘난 모양이라. 모멸춘배기 하고,

“게, 술은 어떻하여?”

“술사 주시는 대로 듭쥬.”

옛날은 요새 소주가 아니고, 막걸리, 막걸리술, 막걸리술로 하니까, 조그만
한 망떡이엿(독에 있는) 술을 해영,

“요것 저 술 시대 이거 한술 먹을 만이 먹으 강으네 남방애나 하나 해다 주
저.”

“게건 경 한쥬. 이것 뭐 사발하곡 한네까? 그냥 그거 그냥 줘.”

한, 거 조그만한 거 입테레 영 그냥 들각들각들각, 하하, 경 내려와(내리
위) 가지고, 이 사름이 산엘 가.

‘남방애 한영 을 만 한디, 어찌 아니 오는고?’

밑에선 경 생각하명 막 지드리는디(기다리는데), 이제 한 이틀 됐니까, 그
거 먹고 가서 놀고, 실피(실컷) 하다가 남방애, 옛날 굴무기 남방애 아주 크
게 하니 한. 이 우리 요런 거(모자) 쓰듯 영 이렇게 썬 와. 남방애 썬 와
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영 마당더레 강 턱 벗어, 텅 하게 노니(놓으니),

“자, 한여 왔읍니다. 이거 저 일러 보십쥬(일으켜 보십시오).”

경 하니까, 남방애 임재(임자)들은 아무도 일리질 못하고, 거 동네 사름덜
모다들어서 이젠 남방애 일러도 잘 못 일러. 게난 최둥이가,

“하, 이거. 날랑 일리건 봄쥬.”²⁾

1) 나무의 이름.

2) 일으킬 테니 보십시오.

발로 강(가서) 영 번으니 남방애가 일러전.

이 스리서,³⁾ 아니 이 스리가 아니고,⁴⁾ 최등이가 그렇게 씨여났어. 경 하니까 소문나기로 힘세기론 고침 붉은 오름 묻은 하르방 그 버금은 최등이가 그렇게 씨었다고 하여. 전설에. 그 옛말에. [조사자 : 제자린 뭐우까? 톱이우까?] 낭 즈르개(자르는 기구). 영 날 돋곡. [조사자 : 아아. 도끼 비슷한 거마씨.]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김 태종, 남·67.)

20. 조천 썸 하르방(김씨 하르방)

— 부대각과 겨룬 이야기 —

조천 김씨 하르방이 썸난. [조사자 : 예. 어떻 썸났수가?] 그건 뭐 그 씨름 행 이견. 조천 김씨 하르방이주기. 그 하르방이 김씨 하르방인디, 그 하르방이 썸긴 썸던ㄴ라, 죽젠 하니 체시(차사)가 오란. 경 하니 총도 주고 하니, 총을 딱 썸서 썸젠. 체시를 썸젠 했는디, 느시(중국에는) 죽긴 죽더라 하여.” 체시가 온 거주기게.

그 하르방이 혼 번은 영 혼 이 부락에 집 짓는, 건축하는 디를(곳에) 나가서. 나간 보니, 말티숫이라고, 두 말떼기 숫을” 들러서, 아홉은 지게에 걸면 딱 묶언 지고, 혼 손에 들르고 하니, 그 썸 하르방 모습에, ‘아, 요놈이 날 보다는 더 썸가? 나도 저건 질 건디.’ 해네, 이제 마을 상두, 사름덜이 모여 있는 디서,

“자네가 썸매, 우리 씨름이나 혼 번 해 보자.”

해서, 씨름하는디, 조천 김씨 하르방은,

“튼튼 말 안장을 내 주겠다.”

하고, 술 진 사름은,

“게맨 난 지민 이 술 다 내부리커라.”

3) 이 근방에서.

4) 이 근방뿐만 아니라.

1) 조천 썸 하르방(김씨 하르방)이.

2) 두 말 쌀밥을 지을 술.

경 흥연 두 하르방이 붙었거든. 허우허우 흥단 그자 그 조천 쉰 하르방을 그자 흠뻑 내부편. [조사자: 술 진 사름이 예?] 이겼주게. 술 진 사름이. [조사자: 예, 이젠 예?] 그만흔 상대야 안 취져. 몰 안장 출렁 이편 가랭 흥난, 술 질머지고, 이제 몰 안장 출린 물을 이젠 이꺼 아지곡, 술 풀아점 집에 돌아갔거든.

거 힘 쉰 하르방은 매일 생각해 보니 원 분흥거든. 매일 탕 땡기던 몰 안장 쥔 원, 분흥다고.

“에이, 이거 흥번 강 좇자. 물을 가지고 오자.”

흥니까니, 이제 말은 들었지.³⁾ 그냥 쉰 부대각이라고. 쉰 부대각이라고. 성(姓)은 부가(부씨)고, 부대각이라고. [조사자: 아까 그 술 진 하르방이 부대각 예?] 응. 부대각이라고. 아, 이젠 그 집을 좇앙 가니, 할망만 이서.

“어르신은 어디 갔느냐?”

흥니,

“화전 흥레 갔다.”고

화전이라 흥 건, 저 곳밭디 간 낭 굻치고 불태와그네 농사 짓는 거. 에이 이제 랑그네 아젠,

“어딜로 어떻 가느니?”

“율로 정 흥영 일로 춤 어느 쿨리로 영 흥민 자왈 신 가운데로 영영 비여 자친 디⁴⁾ 이시니 글로 강 보라.”

흥난, 이제 좇안 간 보니, 그자 츄츄츄츄 들어간 보니, 춤 그 하르방이 쉰 하르방이 이제 징심(점심)도 그거 영 꿰어 앉아두서 그자 이썸 손으론 일로 그냥 확 등경(당겨서) 이레 확 그자. [조사자: 나무를 예?] 나물, 나물. 엇 그거 잎뿌러기 썸(잎)을 그거 불휘차 매니까 아 좇아강 보니, 흥 번 보니 썸름해나서.⁵⁾

“어떻 몰 좇젠 오랐지?”

“예.”

3) 힘 쉰 사람의 소문을 조천 김씨 하르방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4) 나무를 베어 제깎 곳.

5) 자기와 썸름했던 그 사람이었다.

아잔 이젠, “징심이냐 먹자.”

호연. 징심이란 건 그냥 내는 건 보니, 큰, 요새말로 저 밥 대엿 술을 구덕에
헨 잔뜩 담고, 반찬이렌 혼 건 요새 그냥 너 말 들이에 이젠 케기(고기) 볶
아네 그자 딱 담아 아지고 호연. 전 가그네, 내놔 먹으렌. 내놔 먹으니, 조천
하르방은 가니 경 해도 그자 그냥 쫄 돼깨나 먹언.⁶⁾ 혼디, 부대각이,

“아주 그만? 아이고, 것만 먹으 살아져?”

문짝 거 술도 허벅으로 질어단 놓고, 밥도 문짝 거 먹언. [조사자: 부대각
이 예?] 응. 부대각이. 응, 이제 거진 먹어똥,

“집으로 우리 갑시다. 강…….”

집이 오라네 이젠 이젠 또 왕 그자 밥 큰 도고리에 퍼다 놓고, 술도 도고리
에 퍼다 넣 거 사발 탁탁 쳤 먹으멍 썬 하르방⁷⁾라 먹으렌 하니 혼두 사발 먹
으민, 혼두 사발 먹으난 더 먹도 못호고, 그자 그 하르방이 이젠 하니, 먹는
걸 보고 손 들러 부니,

“몰 이견 가젠?”

“아니. 몰 아니.”

[조사자: 먹는 거 봐네 겁난 예?]

응. 겁난. 그냥그냥 돌아와 부러지. 그때 썬 하르방은 하니 그 죽어갈 때에,
그냥 총 딱 장억호고 나니,

“날 잡아갈 체시(차사) 있느냐?”

하니, 춤 하르방도 씨긴 씨여. 그때는 가시낭으로 마리(마루)에 귀클⁷⁾을
뵈단 말이어.

“어디 날 잡아갈 체시 있느냐?”

해서 탁 치니, 낭 귀클이가 숨빠 부러졌어. 숨빠 부러지니, 요저기도록(얼마
전까지도) 그 즈손덜이 그 가시낭 귀클이라고. 귀클을 그냥 것거지겔 세왔단,
이젠 집 짓젠 하나네 다 그냥 치와 부러지마는.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6) 쌀 되몫 정도 먹었다.

7) 마루를 놓기 위해 놓은 중심되는 나무.

21. 신침(申宅) 며느리 흥할망

흥할망이 힘이 그렇게 장스여난 모양이라. 이 새우리 동산 산쓸 적에도 산 드튀난(다투었던) 얘기라든지, 그 산쓸 때 가네 돌 둥그러난 역스깁지 말하 는 걸 보민.

흥할망이라고, 할망이 흥씨 할망이다. 신가침의 메느리난 이 동네 살아난디, 힘이 췌난 모양이라. 아마 혼 스물 댕 나도록은 아마 스귀(사주)가 췌서 누 게 드라가질(데려가지를) 안하여. 새각시루. 스물 댕 나도록. [조사자: 아. 너무 췌부난 예?] 아마. 그러니, 이 동네 사난디, 저 하부락에 우앵이¹⁾엔 혼 디 신택이 사난디. 그 하르방이 아마 여기 올라오란 하도 가난하곡, 거세기 하나네 이디 오라네,

“딸을 줍써.”

하니까니, ‘어어. 저거 어딘고.’ 하연.²⁾

“딸을 달라.” 고.

이젠 또 새각시가 너무 나이 만하곡(많고) 그냥 혼 번 시집을 가 보자고. 시집을 이제 춤 간 보니 춤 시집이엔 혼 것은 그냥 원 아무 것도 없는 거라, 이. 경 해도 그 할망이 춤 이거 하니, 그 하르방을 하젠.³⁾ 하르방은 살단 춤 못 전디여. 살길 못 전디니, 처가살이를 이 동네 올라 오란.⁴⁾ 춤 할망이 췌긴 췌던ㄴ라. 이 오름에 올라간 마인가 뭇가, 원 하르방 맥이젠 그자 파. 혼난 여자 혼 댕이 그냥 파난디, 어디 어디 이 바른 디⁵⁾ 사름덜이 이젠 영장인부(장사지내는 일꾼)로 이젠 감장⁶⁾을 하난디, 떡덜(떡을) 앗앙 먹으면서 떡도 안 줬지. 경 하니 흥할망이, 췌 할망이 돌을 그냥 상제드레(상두에게) 영 앗앙 내령 돌을 탕탕 드리천(던져버려서). 이젠 돌을 들러서 그레(그 곳으로) 드리쳐그네, 상제들은 다 일어사그네 욱을 하연.

“⁹⁾ 이제 암만 여자가 거 뭐 하기로, 앗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먹으렌 말도

1) 마을 동네 이름.

2) 어느 집안이고 하여서.

3) 함께 부부를 이뤄서 살려고.

4) 처가 동네로 와서 살게 되었다.

5) 바른 편에.

6) 勸葬.

안 하고, 할날 주도 안해서 먹느냐.”고.

“아, 이젠 우리가 잘못했다. 노력하라.”

할연, 떡덜을 주지. 주니까 그냥 먹어가지고, 남의 음식을 공히(공짜로) 먹으면은 그냥 춤 거세기힐 테니까니,⁷⁾

“아, 내가 달귀(달구)나 혼 빼 저 똥 가겠다.”

해서. [조사자: 달구마씨?] 응, 달구. 영장힐 때 쓰는 달구. 해서는 예펜 댓 개가⁸⁾ 이젠 놀이하고, 이젠 치맨 입었던 확 전등에 감고 해서,⁹⁾ 이제 달귀 혼 패를 그냥 저 똥 갔거든. 그 저 똥 가니, 그것이 그냥 춤 췌 할망인디, 그 할망이 이 동네 오라서 그냥 춤 거세기하고, 막 그자 일좌와서,¹⁰⁾ 이 동네 춤 거부로 살았지. 거부로 그냥 하게.

그 할망이 시아방을 그냥, 죽으난 요 묘지 소낭 신 밭디 문젠 터를 뵈 뵈는디, 터를 보고, 또 광산 김칩이서 또 터를 보고. 기영 해서 혼디 그디서 그냥 그 하르방을, 아방이¹¹⁾ 죽으니까니 제레 들러당 놓고 문젠 하니, 땀 났 본 사름이 오꼴 드와 부렸잖여?¹²⁾ 드투니, 혼자 그 할망이 그자 확 땀 내 붓쳐 부리니,¹³⁾ 그 드투는 사름이 옆데레 쓰러져. 팽이를 심어서(잡아서) 모. 다전(모두어서는) 이제는 걸 모다들어서 이녁냥으로 팽이를 뺏아서(빼앗았다). 또 이젠 팽일 그놈의 췌 사름들이 등기니까니, 또 할망 혼자 해도 팽이가 쑥 떼와져 부러.¹⁴⁾ 경 하니 이젠 이녁냥으로 손으로 그자 이젠 개판을 떼여다그네, 춤 영장을 아저단 그디 이녁냥으로 탁 하게 묻어 부니까,¹⁵⁾ 그 사름들은 다 떠나 부리고. 경 할연 지금 저 이디 산을 췌 그자. 게메 경 하니 그 할망이 이제 춤 부재로 살고. 그 즈손들이 지금은 어디사 살암신디. 이 동네 신씨가 다 흥할망 즈손이주기. 게난 그 산을 볼 때에 외손봉사(外孫奉祀) 하게 하더라 하여.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7) 미안할 테니까.

8) 5~6 명이.

9) 힘 췌 내자가(흥할망이).

10) 밭을 많이 만들어서(황무지 개척) 재산을 이루어.

11) 흥할망 시아버지가.

12) 다투게 되었다.

13) 상대방을 쓰러뜨려 버렸다.

14) 서로 팽이를 잡아당기다가 찢어 버렸다.

15) 자기대로 땅을 파서 장사지냈다.

22. 저승 갔다 온 이야기

도평 사름이 몰 장살 혼 사름이라. 몰을 사례 간 대정엘 넘어갔더니, 그때는 몰은 그자 혼 마리에 그자 10 원, 15 원, 20 원 주민 좋은 몰을 사나서.

“어디, 어디 몰 풀 사름 있느냐?”

하니, 혼 사름이,

“저승 왕래(往來)¹⁾ 몰을 풀켄 하더라.”

“저승 왕래 몰 풀 게 셔? 몰 풀 게 셔? 저승 왕래엔 해도 거 그디 들어본 디 으서. 몰은 어디 매영 어디 신고?”

“요디 알쪽이 매였더라.”

이러니, 간 오란 보니 몰은 그자 이십 원에만 사지민(살 수 있으면) 혼 이 삼 원쯤은 냉겨점 즉하연,²⁾

“그 집을 또 어딜로 어딜로 가느냐?”

하난,

“영 저영 하영 가당그네, 그 목에 가건 저승왕랫덱이 어딜로 가느냐 하몬, 거 쏴아 줄 겨우다.”

아, 이젠 좇아가서 흥정을 하느디,

“몰 을메(얼마)라?”

“이십 삼 원 받으커라.”

하, 몰은 보니 이십 삼 원은 더 줌 직하여.

‘하, 요놈의 하르방안티 내가 이번은 혼 원 그자 몰명혼³⁾ 몽생이(말새끼) 나 혼나 사지겠다’고 해서 이제는 흥정을 하느디 꼭 그냥 이십 삼 원 받으켄 하여.

‘이십 삼 원을 쥔 사도 몰은 혼 5원은 받을 테니까니 그거 혼 그것만 냉겨서 사지.’

에. 이젠 그자 이십 삼 원을 추려서 몰 샀지. 아, 이젠 이십 삼 원 추리니, 일 원을 또 거스려 주고, 또 이 원을 또 거스렸다 말이여. 이 원을 또 거스려 가지고,

1)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의 집에서.

2) 장사가 될 듯하였다.

3) 시원찮은.

“어찌 하니 그러느냐?”

“나는 이젠 이거 이십 삼 원은 빚나지 아니하고, 나도 일 원 거스리고, 또 이 원을 이거 또 굴리 저 거스린다.”

“아, 어찌해연?”

“아이, 나 거스려야만 돼여, 나 막음이 경 해여.”

아. 소꿉으론 지꺼져서⁴⁾ 그자, 돈 한 5 원은, 뭇생이 한 물명흔 건 버슬어졌거든.

“아, 어디 밤을…….”

“밤을 자케건(자러거든) 이딜 자.⁵⁾”

아, 이젠 그디 밤을 자명,

“어찌해서 저승 왕래라고 허멍, 저승은 가 옵디가?”

“저승 가 왔쥐.”

“게, 저승 가 온 이웍이나 하니 흡서.”

“저승 가 온 이웍은 급해노니 저승 가 온 이웍은, 오래 살질 안해 노니까니, 급하다고 하니까니, 나의 말 하쥐. 나 말. 우리 부모 해난 말 해주.”

경 하연 그냥 경 하연 경 해난 말을 하더라 하여.

이제 저승을 갔는디, 잘못 오랐다고, 아마 그디 왕이 이서서,

“그거 잘못 들어오라시니 혼내(보내) 버려라.”고.

아 이젠 그냥 돌아오는 거라. 아, 생각에 어멍 아방은 저승 강 그디 이서.

“아, 영 정 헐⁶⁾ 예, 아방 사는 딜 강 뵙 가겠다.”

고 하난.⁷⁾ 아 이제야 이젠 가서. 가네,

“영 헐 아방 사는 디 강 뵙 가쿠다.”

“응, 그 문 열어 달라.”

하영 아방 사는 딜 강 보니, 아방은 딱 꿰려 앉히고, 눈을 쫓고지로 눈을 딱 벨라 부렸어.

4) 다행이라 생각하여.

5) 이곳에서 자시오.

6)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7) 그렇게 허락을 받으려 하니.

“아니, 아버지가 어찌 이래야 됩니까?”

“아이, 이거 눈을 잘 떼어서 저울눈을 잘 보려고 하다가 영 뻘뻘.”

저울눈을 잘 불라고. 지금도 경 하니 안하니? 하, 그걸 보니, 이제 어머
은……. 아장 스정해서. 돌아가 불라고 하는 걸,

“어머신디도 가 보겠다.”고

“하, 이거 시간이 급해서 얼른 가라.”

아, 이제 문을 탁 열어 주니, 어머는 그자 딱 었디고, 이젠 딱 었더지고 이
젠, 열 손가락에다 못을 딱 박앙 었더졌어.

“하, 어머니, 어째서 이렇게 뻘뻘?”

“아이고, 이거 말을 잘 손 폐왕 쓸라고 해서 영 뻘뻘, 이게 제적을 삼 년
을 더 살아야 이 제적을 풀켄 햄쳐.”

[조사자: 손은 무사 경해서마썰?] 응, 경 하니, 그 아마 재산이 좋고, 눈
을 꼭석을 잘 쥐서 손으로 말을 주는데, 아마 말을 잘 주질 안해서. 경 하니
손을 싹싹 쓸어서 경 하니,⁸⁾ 이젠 하도 또 급하다고 해네 나오란. 경 한 오라
서. 경 하니 내 돈은 내가 이거 몰갸는 거세기고, 내가 부모의 췌를 갸고, 영
한면은 우리 부모의 췌 스홀 때에(사할 때에) 잘 그냥 춤 징역⁹⁾ 이라도 재게
폴리카부덴 내 이거 일 원 거스려 주고, 내 일 원씩, 어머도 일 원, 아방도 일
원 해서 내가 이거 삼 원을 거스려 주노라.

춤 경 한영 그이가 몰도 췌개 한 산 오고.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23. 친정 아버지 묘자리를 시아버지 묘로 쓴 며느리 이야기

오라방도 춤 잘 살고, 누이도 잘 사는데. 아방이 그냥 죽언. 그냥 경 하니
춤 딸은 출가웨인(出嫁外人)이라고 하는 거주. 정시를 혼 맺 딸은 드랑 산을

8) 손가락으로 되를 쓸면서 인식하게 췌을 되었다.

9) 저승에서 당하는 부모의 고통.

봤는다,¹⁾ 산이 춤 좋은 산을 뵈 하난, 이것이 아싯날 가서 개관을 하고, 그디서 토적을 해서 그냥 제혈을 하영 산을 춤 췌주기. 아마도 산을 그냥 춤 잘 뵈. 그러니, 이젠 그 딸 뵈 사람은 그냥 뵈 하게 집일 오라서. 집일 오라서, 춤 그 지어 가지고, 춤 물허벅 뵈 개 저네 그냥 산에 물을 봉봉하게 담아당 저다 두고,²⁾ 다시 집이 오랑 허벅 저당 두고, 다시 또 지네 아방 몰 가서.

오라방은 춤 간 보니, 물이 근근했거든(가득했거든). 아이고, 오죽 그 딸인가 혼 건 발 번어얏앙 울명,³⁾

“아명흠으로 우리 아방이 이렇게 이거 물 줌는 디(고이는 데) 혼 뵈 오랑 물어 부난, 게메 그디 강 묻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런 뵈 묻젠 햄시니.”

홀 수 으시 게 저 물을 보니 그냥 판 뵈 뵈⁴⁾ 물어 두고, 다른 디 물어 부니 오라방네는 새 산을 본 생이라. 그던 안 뵈고.⁵⁾ 경 하니 이제 시아방은 그디 강 잘 묻고, 지네 아방은 그냥 경 하니, 즈손을 보려고 욕심내연. 경 하니 딸은 출가웨인이래 혼 거주. [조사자: 좋은 산터 딸이 쓰난 딸 시집간 집안은 어떻 잘 뵈수가?] 잘 뵈주기. 잘 뵈주기.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24. 산 잘 지켜서 대대로 평양감사 난 가문 이야기

이거 산 본 말인디. 산을 잘 뵈 놔둔디, ‘사흘 츠낙(밤)을 꼭 직하랴’고 혼 여, 상제보고.¹⁾

“오늘 묻으면은 뵈넉날은(뵈날은) 해져 가건드네 그 산을 직하랴.”

하난, 직하레 갔는다, 여자가 그냥,

“아, 혼자 밤이 이거 어떻 하젠. 내가 같이 가겠다.”

- 1) 지관을 오래 집에 묵게 하면서 산터를 정하였다.
- 2) 무덤 판 곳에 물을 길어다 붓고.
- 3) 거짚으로.
- 4) 뵈던 곳을.
- 5) 다른 묘자리를 봐서 묻었다.

- 1) 지관이.

하난,

“아, 게문 번에 글라.”²⁾

해 가지고, 갈 때 드라 아전(데려서) 갔지. 드라 아전 간 벗히고 해서 아이, 드라 아전 간. 마음이 이젠 뒀하니.

밤이 이젠 앞이 이젠 이불자리 전 간 폐완, 딱 뒀단 말이며. 경 하니, 그냥 혼 자리에 발 막안 누웠더니, 여즈두 남즈한티만 오랑 눕고픈단 말이며. 므수움도(무서움도) 하고. 남즈두 뭐 그렇게 하니,³⁾ 아메도 이젠 부모안티 오늘 묻고 혼디 이렇게 하라고 하연.⁴⁾ 아무리 해도 그냥 하니,⁵⁾ 여즈가 먼저,

“이제는 아무리 해도 나는 혼디 강 뉘사지 못 누켄, 므숨도 하곡 혼디.”

이젠 ㄱ찌 간 뉘 부렸어.⁶⁾ ㄱ찌 간 뉘는디, 아, 날이 이숙하여가니, 하, 스방으로 막 무엇이 이젠 물려온단 말이며. 아, 이젠 므수움도 하곡. 토신(土神)이 이젠 온 후젠 산을 딱 돌아봤지. 토신에서 대장이 이서. 대장이,

“이거 이 즈낙인 못 하겠다.”

하니, 토신들이,

“어찌 못 하느냐?”

하니, 대장이,

“평양감사가 오란 누워 부렸다.”

고. 경 혼디 이 말을 하자마자 오꽃 평양감사가 오란 드러누워 부렸거든.”

“아, 평양감사가 뉘다.”

“평양감사가 그냥 뉘. 아, 널 즈낙에랑 오자.”

이제 토신이 산을 해싸 볼젠. 아, 이젠 붉으니, 헤어전. 뒀날 즈낙은 이제 또 갈 게 아니라게. 또 가니, 부부가 또 갔거든. 또 여즈가 갈 거 아니라게. 남자만 가문 못 직힐 건디. 경 해서 여즈가 거 잘 뒀단 말해주기. 아, 또 여즈가 뒀날 즈낙은 ㄱ찌 간 뉘거든. 뒀날도 밤중 야산 뒀 가니까니 우루루 오라서.

2) 벗하고 가자.

3) 부인과 나란히 같이 자고 싶으니.

4) 묘 지키면서 부부가 같이 잘 수는 없다,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욕망을 참았다.

5) 못 참으니.

6) 잠자리를 같이 했다.

7) 부인이 평양감사감을 잉태하였다.

“하, 이 또 평양감사가 오란 뵈다. 벌써 간 이디 뵈다.”

하니, 이젠 또 우루루 헤싸지고(홀어지고), 이틀 츠낙은 직하고. 또 사흘 츠낙을 직하라 하니, 또 부부간이 뵈지. 하니 토신들이 또 오라서, 보니 뵈시니,

“벌써 간 그놈의 땅이 거 평양감사가 오랑 뵈다. 다시랑 오지 말앙 우리 내 불자(내 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 산을 주장하니(지키니), 대대로 평양감사가 난. [조사자 : 아, 그 가문에마씨?] 으, 그 가문에. 경 하니, 평양감사를 그냥 그날 츠낙 저 산천에서 그거 운이 그거 그 여즈가 좇아가니, 이제 그날 츠낙 평양감사가 들어오란. 대대로 평양감사가 나오란.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25. 死後에 生男之地

— 죽은 후에 아들 난 황정승집 —

死後에 生男之地라고, 죽은 후에 아덜 난 말 이서. 경 하니 그거 황정승의 집이라. 황정승의 아덜, 정승의 아덜이 미혼(未婚)에 혼 열 예실곱 넘으니 그만 죽거든. 독존디(독자인데), 독존디 죽어 부런. 게난 정승의 아덜이라고. 이 굴묵에. 요세민 똑 저 장두칼이라고, 장두칼, 칼이 이서네. 혹생들도 알고, 우리도 잘 알지마는 즈룩 있고 혼 건디 그걸 황정승의 아덜이 매날 창 땡겨나서. 경 혼디 그 독즈가 죽어서 발 받아아잔 춤 울엄지? 그, 황정승의 아덜, 저 독자 아덜 거 죽어 부난 우는디, 중이 오라서. [조사자 : 중마씨?] 으.

“권자하소.”

중이 권자하라고.”

“아고, 여긴 독즈 죽어 부난 정신엿다.”

고 하니,

“아, 그럼소?”

하니, 그냥 그 중이,

“산이나 뽕 물어 보지. 스후에 생남지지가 잇지.”

아, 이젠 경 하니 그런 말을 들어보도 앓고 해서, 그냥 경 하니,” 중은 그만

1) 아들 낳게 하는 시주를 하라고.

2) 가만히 있으니.

이웃 집테레 넘어가 부리니, [조사자: 예.] 넘어가 부리니, 아, 그 울단도 (울다가도) 노인네 집일(집엘) 간,

“하, 스후에 생남지지가 있다고 하느디 중이 오란 몰아서.”

“응, 그 맞지. 너 강 그 중을 찾아 보라. 일이승(一耳僧)이 나민 스후에 생남지지가 있다” 고.

일이승, 일이승이라고. 귀 흔 짹, 귀 흔 짹이 으선 일이승이라고, 귀 흔 짹 만 이신 중이 나면은 스후에 생남지지를 본다고. 그런 말을 하여.

간 보니,³⁾ 중이 귀 한 짹이 어서. 아, 이젠 그 영감, 아주 ‘중이 귀 흔 짹 이 어시민 스후에 생남지지를 본단다’ 해네, 아, 이젠 중을 집이 드라다그네 (테려다가),

“산을 좀 봐 줘서.”

아, 산을 보느디, 만인케 등땡이라. 만인케, 만인케 등땡이에 난 산. 땡이 름이 만인케 등땡이에 간 산을 봐서. 산을 쓰라 하여서,

“하, 여길 쓰민 스후에 생남지지를 본다.”

아, 이제 그디 간 산을 써 노니 춤 산을 그냥 하자 하니, ‘춤 뭐뭐 그디 하니 예펜이 이시카? 뭐가 시카?’ 하명도 그디 산을 써서.

하루는 목스의 딸이, 목스는 출력하젠 하민 이 가족(가족)을 다 데령 가주 기. 출력하젠 하민, 흔 메칠 땡 하게, 이 사름들이 아 그 만인케⁴⁾ 등땡이(등 어리)에 오난 드라오더니, 비가 장대로 그냥 내부디땡여 부런.⁵⁾ 흘 수 으시 거기 그냥 춤 거기 그냥 잔. 볍아야 그냥 집으로 들어오란, 딸을 드랑 가느디. 거기 강 그자 딸이 이제 춤 놈(他人)이 알아가게 허리가 커 가거든.

“너 어째 그렇게 하느니?”

그런 던 딸이 잘못하거나⁶⁾ 거세기하면은 귀양을 보내거나, 스형이주기.” 딸 이 실수하민.

“하이, 내가 영 저영 하영 흔 번 그제 흔 번 꿈에 어떤 동자가 오라서, 그

3) 중을 찾아가 보니.

4) 萬人이 들어갈 수 있는 바위굴.

5) 폭우가 쏟아졌다.

6) 부정을 저질렀으면.

7) 귀양을 보내거나 사형을 시킨다.

냥 품잡일 훑디다.”

“너 그러니, 너 그디 뭘 표적 잇냐?”

“장두칼을 쥐 똥 갑디다.”

“칼 내노라.”

칼을 내논 건 장두칼이라 말이어. 거 곱딱흔 거. 장두칼(장도). 곱에(허리춤에) 찬.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아, 이거 조사하자.”

그 칼을 가지고 그 만인케 등땡이에 오란 보니, 산은 무슨 산이 오란 보니 등땡이에 산이 잇거든. 그 산을 이제 찾아서,

“이디 어디 사름 묻은 디냐?”

들으니,

“아무 디 황정승의 아덜 묻은 디다.”라 하니, 황정승 집을 좇아 아전, 황정승을 좇앙 갔다 말여.

장두칼을 아전 손에 놀렸어. 목스 딸이. 아니, 그 목스가. 그 칼을 보니 그 황정승이 춤 눈물만 뚝뚝 하여.

“어찌 황정승이 우느냐?”

“아, 저, 당신 손에 놀린 게 우리 아덜 찬 땡겨난 칼 뚝 닦아 아전⁸⁾ 내가 그 칼을 보니 내 우노라.”

“아, 그러냐?”

아, 이젠 스실 말을 해서.

“이 칼이 경 하니, 딸을 데려가라.”

이래서 그 딸을 데려오라네, 낳는 것이 아덜을 낳고 해서 그 산이 춤 좋은 디라서 즈손이 잘 났지. 땅도 만인케라고, 만 사름이 그놈의 궤에 밤도 자고 경 하는 궤에 등땡이에 강 산을 봐서. 경 하니 궤 등땡이에. 간 산을 보난 경 났주기.

[조사자: 게난 애기 뱀 딸, 홍목스 딸은 황정승 며느리로 한마씨?] 으. 목스 딸을. [조사자: 애기는 손지 뉘는 셈이구나 양?] 으. 황정승 손지주기. 죽은 사름이 난 애기주기. 경 하니 춤, 스후(死後)에 생남지지(生男之地)라.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8) 꼭 닦았다.

26. 열녀(孝婦) · 효자 이야기

그 열녀 · 효조 그게 골으믄 다수(多數) 호고. 에 것도 여자 때문에 효조된 거주기. 경 하니 이젠 여조 때문에 효조된 거라. 경 하니 봄밭을 갈레 갔지. 봄밭을 갈레 가니, 스나이가 가니 여재도 갔지. ‘요새 밧딘 갈게 뵈 거라.’ 호 연. 낮 뵈 가니까니 남조가 여조안티,

“이젠 강으네(가서) 밧 해 오라. 밧을 해 오라.”

하니, 밧을 호레 오란.

그디 시어멍, 시아방은 다 산 때거든¹⁾ 시어멍, 시아방 그 방 문짝을 이젠 영 보니까니²⁾ 그자 시어멍 시아방네가, 갈 때는, 밧갈레 갈 때는 경 케로운 기색을 안 했는디, 오란 보니 어떻 지친, 케로운 기색을 혼다 말이여. 시어멍 시아방 눈 방 안을 그자 문을 확 열안 볼 수는 엇고. 메뉴리가 영 창 브려네, 영 춤(침) 죽찌고 춤 불랑 종이에 춤 찍엿 하니³⁾ 시어멍이 일어 아진 후젠 시아방을 수건으로 양질 닦암단 말이여.⁴⁾ 아, 땀이 하영 나.

“하, 이거 우리 아방이, 시아방이 아며도 기신이 엇어서 이런 거로구나.”

나오란 보니 독(닭)은 씨암닭에 독 하니 질르는데 새끼 나는 독을 확 후리니, 팽팽하게 뵈 둥글거든. 그놈을 이제 잡은 후젠 솟아 두곡. 경 해시니 춤 쏘 뵈서 딸리곡(고여서) 이제 경 호젠 하니, 자 징심해서 가젠 호민 더디곡. 춤 얼른 해서 이제는 춤 독을 삶아네, 시어머니, 시아버지안티 그저강,

“아, 이거 급해네 이거 춤 쏘을 뵈 딸려시믄 홀 꺾디, 그냥 급해네 그냥 그저오랏수다.”

“아, 거 춤 잘 해왔져.”

징심을 행 가는데, 해가 접죽, 열두시 뵈믄 밧을 먹는데, 아마 요새말로 새로 호 시는 넘어 부렸다 말이여. 부지런이 땀 흘리멍 이젠 징심을 해 아전 간. 스나이안티.⁵⁾ 땀 맞아지카부덴⁶⁾ 예펜은 생각호멍, 부지런이 간 후젠.

1) 生存해 있던 때였다.

2) 부모네 방 안을 문틈으로 보니까.

3) 창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 보았다.

4)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얼굴 땀을 닦아 드리고 있었다.

5) 남편에게.

6) 꾸중을 들을까 봐서.

“흐즈(빨리) 오랑 밥 먹으라.”

하니, 거 밭가는 거 신디, 그자, 베틀레라고 밭가는 거 서. 요만은 흐 몽
동이, 그걸로 예펜을 그자 복씩 두들려 부런.⁸⁾ [조사자: 아이유—] 이제는
그자 맞일 만인 맞았지. 아, 이제는 매를 꼭 심어.

“자, 나 맞일 만이 맞고, 또 흐 말만 들어그네 더 때려 달라.”

“뭘 말이나?”

하니,

“영 저영 해서 간 보니 시부모네는 그냥 해서 거세기해서 하니⁹⁾ 내가 독
흐 므릴 그자 딸런 드려 두고 오는 게여.”

“하이고, 그랬느냐?”

아, 이제는 밥 먹을 회계(생각)도 안 혀고 막 그냥 예펜안테레,

“하이고, 하이고, 하늘님. 저 여즈를 어떻 혀여서 두들려졌읍니까?”

후룻 절을 혀연.

아, 그제, 목스는 그냥 통인놈하고 물을 쫓어(끌어서) 가단 영 몰도 쉬고,
출 튜정 맥이고,¹⁰⁾ 영 앓안 쉬더니. 아, 예펜이 뭇 정 오니 심어완 므 두드렸
지. [조사자: 예.] 아, 또 이젠 내노고 예펜안테레 절하니,

“하, 묘한 일이다.”¹¹⁾

고 혀연, 이 저 통인놈, 몰 끄는 하인놈, 그거신디,

“저디 저 밭 가는 사름 강 오게시리 혀라.”

오게시리 하니, 이놈에게,

“어떻 하니 니놈이 예펜을 그렇게 두드려 놓고, 또 예펜안티 절을 혀느냐?”

제니, 이젠 거 오랜 하니,

“아이고, 이거 벌써 예펜 때린 췌를 다 고발해싱가푸다.”

고 혀명 이젠 막 그 말을 다 혀고는,

7) 남편에게.

8) 점심을 늦게 가져왔다고.

9) 몸이 쇠약하신 듯해서.

10) 꼴을 먹이고.

11) 이들 부부가 하는 짓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다.

“아이고, 죽을 췌를 만났습니다.”

“아니다. 이리 오라.”

옆대영 굶어간 후젠,

“너 어찌니 각시안티 그리 때려 놓고 절을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징심을 하루 샀는데 징심이 늦어서 시장하고 뜰러져니, 부모이 그냥 우대하고 독을 잡아 부모안티 드러된 오노라고 해서 징심이 늦어해서 오젠 해네 늦은 걸 내가 잘못해서 그냥 때려졌수다.”

“응, 그러냐?”

아, 이젠 통인놈보고,

“필마¹²⁾ 끌라.”

영 해서 이젠,

“느 어디냐? 어느 부락 어디?”

“아무 부락이 아무깁니다.”

영 하니,

“생명(성명)이 뭐냐?”

하니, 생명, 여즈꺼영¹³⁾ 다 꼴았지. 다 꼴안. 그게 들어간 후젠, 그냥 또 그 부락이, 그 부락데레,

“열너·효자를 보아라.”

해서, 보니, 뭐 열너·효주는 누게가 부모를 잘 했나, 누게가, 어느 메느리가 시어명을 잘 모시고, 시아방을 잘 모셨나 하는 건니, 건 막을에서 보는 거 주기. 그 부락에서 거 보낸 놈 두니, 그 예펜 뜨리곡, 맞안, 절호곡 할 사람을 그냥 남자는 효주고, 여주는 그냥 춤 열너곡. 해서 열너·효주가 할 집이서 나와서.

(1983. 7. 28., 애월읍 광령 2리, 고 기원, 남·85.)

27. 산터 이야기 (장군터)

우리 하도 부침이서 그건 아주 이 세상에 나자마자 할 이야기라.

12) 匹馬.

13) 부인 성명까지.

땅으로 사람이 나온다. 고종달이 시절. 고종달이가 오란 우리 집 망해여 부러서. [조사자: 혈(血) 떠 부렸구나 예.] 안충다리산은 뚝게 장군만 나는 땅 이랏주. 그 산 영기(靈氣)로 그 장군이 느랑(늘) 나와. 장군이 나는데 그 고종달이 오랑(와서) 혈 떠 부런. 종다리(終達里)로 그 놈이 느려(내려), 일 본놈이다.

이제 고종달이가 종달리로 들언,

“여기를 어디엔 허느니?” 허난,

“종다리엔 흡니다.” 허난,

꽤쌌허덴. 오자마자 지(자기) 이름을 거느림따고.¹⁾ 혈을 파는디.

우리 쥬당(眷黨)네 집이 들어간 밤을 자는데, 아침이민 인척(일찍) 뒤에를 갔당 들어오꼭 허여.²⁾ 한 일주일을 그렇게 허여. 알길 그렇게 알던 놈이대래. [조사자: 고종달이가마쌌?] 응. 그래. ‘어째서 저것이 나갔당 들어오는고’ 허영.

흔 번(한 번)은 나강 흐끔(좁) 오래³⁾ 뚝는 참이(참에) 얼른 포따리를 클렁 보니 곡지 너븐 암코지 백 개가 탁 이서. [조사자: 암코지가 뭐짱?] 징이주 게. 하나를 살짝허게 아상(가지고) 곱쩌 부러서.⁴⁾ 곱쩌 부리니, 하루는 나가 게 뚝난 그놈(징)을 아정 간(가져 가서) 집 가냥허젠⁵⁾ 장팡⁶⁾ 두이 나강 하나 대영 독독,⁶⁾ 하나 대영 독독 허영 아흔 아홉 겔 다 박아서. 갱(그렇게) 허여도 아차 하나 엇주마는 경 해도 그냥 그 발라(즉시) 그냥 떠나서. 이젠 ‘이상허다.’ 그냥 자바다(들입다) 팜 시작을 허영 파는디, 그 흐나만 더 시민(있으면) 꼭 곡디(쌍가마)로 쏘앙 들어가크라레. 헨디 흔 뽐 사이에 그 사 이만 남앙. 흔도(限度)가 뚝영 나지 앓으난 통그채(?) 모양으로 말을 못 존드래(못 하더래), 먹긴 해도.

- 1) 지칭한다고(부른다고).
- 2) 고종달이가.
- 3) 숨겨 버렸다(감춰 버렸다).
- 4) 집을 간수하려고.
- 5) 장독 등을 놓아 두는 곳.
- 6) 징 박는 소리.

“그거 기한(期限)이 돼영 이녀냥으로” 나시민 천하 일을 다 알 건디. 이전 사람으로 파 부니깐……. 그 가인네는⁸⁾ 그래도 세상 일을 다 아는 부인네를 했던 모양이라.

흔 번 바깥디(밖에) 나와서 집을 싹 살펴보고, 시아버지보고,

“동해로 난(亂)이 들어오게 돼니까 어땜 허쿠광?”

“에이, 여자덜 허드렁헌 소리.”

그때 동해로 들어오랑 막 쳐 부런. [조사자: 동해로 누가 들어완마썸?] 난이 들어완.

그 때 메느리 말 들어서민 안 죽을 건디. 그렇게 돼 부런. 헐디 그 때에 우리 산(墓)에 간 그런 심술, 가그네(가서) 장군석 강 탁 끌차 버리민 대대 장군 나켄(난다고), 간 허난, 그 때 간 탁 치난 피가 자르르르, [조사자: 땅에서 예?] 돌에. 그 소섬 이쪽에.

(1983. 7. 28., 애월읍 광령 1 리, 부 기옥, 여·68.)

28. 목련이 부모

그거 그 말이우다. 췌다리 그냥 끓여먹고 돛(돼지)다리 그냥 끓여먹곡 허당 보난, [조사자: 목련이 부모가마썸?] 예. 목련이 어땜 아방이 하도(매우) 췌기(고기)를 좋아허영 췌도 봐지민(보이면) 그자 췌 땡기는 거 다리도 끓여당 먹고 아시(동생네) 통시⁷⁾에 갔다그네(갔다가) 산 돛다리 끓여당 먹고 허영 살당 죽으난, [조사자: 놈의 췌도 그렇게…….]. 예게. 아무영 헌 거라도 그츠룩 허멍. [조사자: 고기를 무척 좋아했구나, 예?] 예, 무척 고기를 좋아허영 먹당 죽영 보난 무간지옥에 강 탁 갈쳐저넌.” 아들은 목련이엔 헌 사름이 참말로 신선으로 부처님 대표로 솟아난. 헐디,³⁾ 그 아들은 신선으로 솟아

7) 자기 스스로.

8) 부인네는.

1) 변소. 제주도에서는 변소에서 돼지를 기름.

2)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

3) 선량한 사람이었다.

4) 지옥에 떨어져 있으니까.

난. 현디, 그 사람은 이제 부물 무간지옥에 강 갈쳐져시난,⁵⁾ 막 그 부모가 그
 츠룩(그렇게) 허연 솟아낭 허멍(하면서) 어멍 아방 못 보난 그 아덜이 우
 리 어멍 아방을 무간지옥 바깥디레(밖으로) 살려노렌 허난, 이젠 그 백미 부
 처님 앞이 곤썰(쌀) 멧⁵⁾ 섬, 백미 멧천 석 막 ㄱ저다 놓고 돈을 얼마 ㄱ저다
 놓곡 허연 각 법스(法師)들 드려다네(데려다가) 천도(天道)를 막 허여 봐도
 나오덜 아니니까는⁶⁾ 그 아덜에 참말로 막 허난 칠월 보름날은 백중 붉음이 막
 그츠룩 허연. 솟아난 그츠룩 허난 우리 어멍 아방 내켄 허난, 그들이 무간지옥
 문을 탁 허게 두드령 내천,

“당신 아들이 옛날 목련이라나지 안했소?” 허난,

“난 그런 아들 없어요.” 경 허난,

“아니라고, 이제 목련인가 목얼련인가 그런 아들 없어요?”⁷⁾

“아, 그런 아들 있어요.” 경 허난 이제

“나옵서.” 허영.

나오난 개로 환생허연 그 어멍 아방이 막 무간지옥에 갇혀진 거 나오난 개
 로 환생해주게. 막 그젠 어멍 아방이 막(매우) 지꺼전(기빠서),

“아, 나가 이츠룩 산 때 스몏 산 쉼다리 산 돛다리 끌영 먹당 보난 이렇게
 무간지옥에 강 갈쳐졌당 나오란 보니까, 이젠 아덜이 이츠룩 허영 나오난 개
 로 환생해도 좋덴. 개도 들에 땡기멍(다니면서) 하간 거 구경허곡, 밧 엠에
 (구석에) 강 똥싼 거 먹곡. 그라난 지옥에 강 갇혀진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젠 그 아덜네가 아맏던지 우리 어멍 아방을 개로 환생시키지 말앙 막 천
 도시켜 부난 그 아덜 때문에 좋은 세상을 살당 돌아갔덴 허곡.

(1983. 7. 28., 애월읍 광령 1리, 부 기옥, 여·68.)

29. 孝婦 이야기

“시집살이 어땡 험디가?” 물으난,

“뉘두서 꼬리 감은 만이 허다.” 경 허난 [조사자: 거 힘든가마썸? 뉘두서

5) 몇. 여러.

6) 부모가 구제되지 않으니까는.

7) 목련이 또는 목얼련이라 함.

경 허젠 허민.] 예. 꼬리 감은 만든 허댄 허난 이제 뉘두서 꼬리 감아 부난(버리니까) 배려지질(보이질) 안허여.(모여 있던 할머니들 웃음)

“시집살이 어떻 험디가?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 어떻 허우짜?” 허난,

“말도 말라. 시집살이 살젠 허난 뉘두서 꼬리 감은 만든 허다.” 허나네. 뉘두서 꼬리 감아 부난 괜찬허댄 경 헨.

시부모가 막 아광 죽어가 가난 이젠 어디 강 문점(問占)을 허여 오랜 허난, 남편이 강 문점허난,

“뭇이엔 꼴음디가?” 허난,

“아이고 거 원 못 흘 말을 꼴아고.”

“뭇이엔 꼴음디가?” 허난,

“아이를, 인육을 솥앙 먹이렌 허난 아이를 물 꿔왕(끓여서) 솥앙 먹이렌. 아이라도 아들을 유나든 술 난 아일 솥앙 먹이렌 허여고.”

“그거 흘 수 셔(할 수가 있어)? 츠마가라.”

메느리가,

“아이고야, 요 어른아! 부몬 흘 번 가민 또 다시 올 수 이수과? 아긴 또 나민(날으면) 아기 아니짜? 읍서, 우리 이제 거세기 나 물 꿔왕전 아일 심영(잡아서) 동급서(담그십시오).”

“저사름(당신) 경(그렇게) 허크라? 난 경 못 흘로고.”

“아이고, 부몰 살려삼주게. 그거 아이 하나 어싱(없는) 걸로 못 삼니까세? 다시 나 허나 나쿠다.”

경 허명 물 와상와상 가마에 놔(넣어서) 꿔우당(끓이다가), 아이가 책가방 정 들어와 가난(들어오고 있으니) 푹 심영 거꼴로 푹 동그난 아은게(아이는) 데와정. 그 물을 해당(가져다가) 맥이난 부몬 오끗 살아나고 아은 잃어버릴 거 아니짜? 부모 살리젠 아을 경 햄시난(그렇게 하였으니) 동숨이 되 연 아으가 약으로 환생허연. 아인 버금인” 책가방 메고 들어 오난 그렇게 그 집은 효죽 충신 허연 잘 웨연.

(1983. 7. 29., 애월읍 광령 3리, 흥 신출, 여·63.)

〈註〉 1) 동삼이 아이로 변하여 그걸 삶아 먹었다.

2) 다음에는(次).

俗 談

指導教授 尹 光 鳳
班 員 吳 姬 京(國教・4)
金 明 官(國教・3)
金 靜 子(國教・3)
玄 順 玉(國教・3)
康 斗 詮(國教・2)

이번 광령리 俗談調査는 예전과는 달리 수집된 자료의 나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자료를 분석하여 표준어로 해석하고 이차적으로는 속담 속에 담긴 속뜻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이한 것은 중산간에 위치한 광령2리와 해안에 가까운 광령3리에서 사용되는 속담이 다르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속담이라 해도 서로 다른 뜻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령리가 제주시와 생활권이 접해 있고 교육과 문화 체제를 통한 표준어 보급으로 인해 제주도 고유의 속담이 육지부의 속담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7]

• 가마귀 구름 가남하듯이.

；까마귀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구름을 표적으로 먹이를 숨기는 것.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

- 가시아방 봐도 조름으로 절할 때.
; 사위가 장인을 만나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절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절하는 것.
○ 농번기의 매우 바쁨을 비유.
- 가마귀 알 아구리 떨어지듯.
; 까마귀의 아래 턱이 떨어지겠느냐.
○ 천만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어하는 경우
- 가시아방 왜 먹음도 지만씩.
; 各人各色이라는 뜻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비웃을 때 이렇게 말한다.
- 가는 정이 이서야 오는 정이 이신다.
;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 가지 한 낭 거스지 말라.
; 가지 많은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
○ 자식들이 많은 부모와 다투게 되면 그 자식들 중 하나라도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 갑인년 숭년에도 먹당 남은 게 물이여.
; 갑인년 흥년에도 먹다 남은 것은 물이었다.
○ 물 한 모금도 얻어먹기 어려운 경우에 쓰이는 말.
- 갯쟁이 헨 갯 쓰곡, 무당 놈 빌영 굿허곡.
; 갯을 만드는 사람은 갯이 없어 헨 갯을 쓰고, 무당이 남을 빌어서 굿을 한다.
- 각시가 아까우민 처가집 숯가락도 아깝다.
;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가집의 숯가락도 사랑스럽다.
○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하찮은 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 개똥이 믱스왕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 행실이 더러운 사람과는 더불어 다투느니 피하는 게 낫다는 말.
* 믱스왕 - 무서워서
- 개아시 떡 쳐먹젠 흥난 시리부터 벌러져.
; 거지가 떡을 찌서 먹으려 하니 시루부터 깨어진다.
○ 모든 일에 순서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
- 개 칠 년 돛 삼 년 질러라.
; 개는 칠 년 닭은 삼 년만 길러라.
○ 짐승은 오래 정을 들여서 기르게 되면 늙어서 변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래 기르지 말라는 것.
- 거짓말도 웨삼춘보다 나실 때가 서.
; 거짓말도 외삼춘보다 나을 때가 있다.
○ 거짓말도 때에 따라 유용하다.
- 거평에 담을 흙 혼 줌 어슨 것이.
; 거평(조개껍데기)에 담을 흙 한 줌 없는 주제에.
○ 가진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 꿔아시 말장시 먹어사 먹어랜 험다.
; 약은 사람은 빈말을 잘 하니까 당한 후라야 알지 그 말만으로는 알지 못한다.
○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
- 쫄 맥인 가족 부드럽다.
; 기름을 칠한 가족이 부드럽다.
○ 인간 관세를 원만히 유지하라는 것.
- 쫄채 부지런.
; 삼태기의 부지런함.
○ 부지런히 일한 것이 허사가 되었을 때 쓰는 말.

- 2랑 줍쌀에 뇌 어시 먹어지느냐.
; 작고 단단한 줍쌀을 맷돌에 갈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 그슬린 도새기나 돌아맨 도새기나 매 혼가지.
; 털을 그슬린 돼지나 매달린 돼지나 신세는 매한가지.
○같은 처지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
- 기당 봐도 못 먹나.
; 아무리 노력해 봐도 못 먹는 것.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서 빛이 난다.
; 아무리 좋은 것도 잘 다듬어야 빛이 나지 그냥 두면 쓸모가 없어진다.
- 쑤 값은 말 닷 되.
; 한 말(수량단위)을 꾸어 쓰면 한 말 다섯 되를 값아야 된다.
○꾸어 쓰지 말라는 것.
- 고양이 아팍 케기 반찬.
; 고양이 앞에 놓인 고기 반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남이 손 댈 겨를 없이 처치함을 이름.
- 고작헌 낭이 속이 끝나.
; 곧은 나무가 속도 끝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속도 바른 법이다.
- 공꺼엔 허민 눈도 벌경 코도 벌경.
; 공 것이라고 하면 눈도 붉어지고 코도 붉어진다.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비유.
- 그 날 액은 독 안에 앓아도 못 깬다.

; 그 날에 정해져 있는 액운은 (피하려고) 독 안에 앉아도 못 면한다.

○운명론적 사고

• 귀 소문 하지 말앙 눈 소문 허라.

; 말로만 들어 알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

○百聞而不如一見

• 곧 사름은 맥 써도 곱나.

; 고운 사람은 먹서리를 써도 곱다.

○고운 사람은 치장을 안 해도 고운 법이니 애써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

[ㄴ]

• 나 꼴을 말 사돈집 강생이가 준다.

; 내가 할 말 사돈집 강아지가 한다.

○사돈지간에 말 조심하라는 것.

• 난 개 짱 물어든다.

; 집 나간 개 뼈를 물어 온다.

○사람도 나가야 세상을 안다(돈을 벌 수 있다).

• 남방에도 지어야 먹지.

; 나무방아에도 뺨아야 먹는다.

• 느리 스랑은 이서도 치스랑은 엇나.

; 내리 사랑은 있어도 위로의 사랑은 없다.

○부모는 자식을 매우 사랑하지만 자식은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

• 놈광 심백은 허여도 개심이랑 마라.

; 다른 사람과 힘으로 경쟁은 하여도 시기하거나 안되기를 바라지 말라.

• 노름 뒤랑 당혹곡 먹은 놈 뒤랑 당혹지 말라.

; 먹는 사람의 뒤를 당하면 먹어 없애기 때문에 찾을 가망이 없으나 **노름**
뒤를 대 주면 언젠가 받을 수 있게 된다.

• 놈 썬 불에 갇이 잡나.

; 남이 게를 잡기 위해 켜놓은 불 밑에 가서 게를 잡는다.

○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비유.

• 늙은이 가죽 질긴다.

; 늙으면 아집이 생긴다는 것.

• 늙은이 배 고팡 죽곡, 어린애기는 배 벨라정 죽어.

; 부모는 굶어 죽고 어린애는 과식해서 죽는다.

○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정을 비유.

• 니 아픈 부름씨랑 호곡 눈 아픈 부름씨랑 호지 말라.

; 이(齒) 아프면 심부름을 할 수 있으나 눈이 아프면 보이지 않아 심부름
을 할 수 없다.

• 나중 난 뿔이 무섭다.

; 머리보다 나중 난 뿔이 무섭다.

○ 선배보다 후배,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는 것. (後生可畏)

• 늙은이 맛음과 아이 맛음은 똑 같다.

; 늙은이와 아이 마음은 똑 같다.

• 남은 깎아사 풀아 먹곡 풀은 갈아사 풀아 먹은다.

; 나무는 깎아야 팔 수 있고 팔은 갈아야 팔 수 있다.

○ 그냥 놔 두기보다는 정성을 쏟아야 값어치가 더 있게 된다는 것.

• 낮말은 생이가 듣고 밤말은 중이가 듣는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

• 노름쟁이 푼돈 아낀다.

- ; 노름쟁이는 원래 목돈은 아무렇게나 쓰면서도 푼돈은 아끼는 법이라는 것.
- 내 땅 까마귀도 겁어도 아깝다.
 - ; 자기 것은 하찮은 것이라도 전부 소중하다는 것.
- 누운 남게 여름 안 연다.
 - ; 누운 나무에는 열매가 안 열린다.
 -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것.
- 나 손바닥에 고린장 지지키여.
 - ; 내 손바닥에서 썩은 장을 지지겠다.
 -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비웃으면서 쓰는 말.
- 나 한 볼은 콩 말댄 허여?
 - ; 나이가 많은 말이라 해서 콩을 싫다고 하겠느냐?
 - 어떠한 것을 매우 좋아함을 이르는 말.
- 놈의 쉼 들러귀는 건 구경 좋고 자기 쉼 들러귀는 건 쉬쉬.
 - ; 남의 소 날뛰는 것은 구경 좋고 자기 소 날뛰는 것은 쉬쉬한다.
 - 남의 집 허물이나 싸움은 구경하기 좋지만 자기 집 허물이나 싸움은 밖으로 드러날까 봐서 쉬쉬하는 인간 심리의 표현.
- 놈 나 둔 것은 쉼 곱찌도 못 찾나.
 - ; 남이 놓아 둔 것은 그것이 소를 감춘 것이라 해도 못 찾는다.
 - 남이 놓아 둔 것은 큰 물건이라도 찾기 힘들다는 것.
- 나건 어신 놈이 놈의 것 먹젠 허난 말도 하다.
 - ; 내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먹으려 하니 하는 말이 많다.
 - 남의 것을 빌리지 말라는 것.
- 나 케기야 날 잡아 먹으라.
 - ; 내 고기(혈육, 자식)야 날 잡아 먹어라.
 - 자식이 속을 썩일 때 하는 말.

[ㄷ]

- 담 히어진 밧디 므시 안 드느냐?
; 담이 무너진 밧에 가축이 들지 았겠느냐?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
- 톨당 탈 타먹듯 혼다.
; 달리다가 산딸기를 따 먹듯이 한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강 처리함을 비유.
- 톨는 톨에 채쩍질 말라.
; 달리는 말에 (더 빨리 달리라고) 채쩍질하지 말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보채지 말라는 것.
- 도둑은 혼 췌, 잃어 분 사름을 열 췌.
;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죄 하나이나 잃어 버린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하게 되므로 죄가 열 가지이다.
- 동생이란 것은 띄려 보지 못혼다.
; 형은 부모가 죽으면 부모와 같은 존재이므로 형에게 공손해야 한다.
- 두 동새 사이엔 산 췌다리 빈다.
; 두 동서 사이에는 살아 있는 소의 다리도 벤다 (혹은 벌어진다).
○두 동서 사이가 매우 나쁨을 비유.
- 들은 돌이 셔야 낫이 붉나.
; 들은 돌이 있어야 얼굴이 붉어진 다.
○원인없는 결과란 없다.
- 뿔 채 췌개쪽박으로 안다.
; 잘 뿔 종자는 작박 (떡잎에 비유) 으로 알 수 있다.
○‘뿔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와 同一.

- 땅이 뒤편에 물 얹다.
; 땅이 굳어야 물이 고인다.
○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튼튼해야 함을 비유.
- 다습아방 고기 썰는 디랑 가고대나 원 아방 낭 깨는 딜랑 가지 말라.
; 의붓아버지가 고기를 썰고 있는 곳에 가면 고기 한 점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친아버지 나무 깨는 곳에 가면 다치는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것.
- 똥 췌 사람이 성낸다.
; 방구를 췌 사람이 성낸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내는 것을 비유.
- 딸 자식은 피곡식만 못하다.
; 딸 자식은 피곡식만 못하다.
○ 제주도인의 여자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말.
- 들은 말은 들은 디 버리곡 본딤 말은 본 디서 버리라.
; 들은 말은 들은 데서 떨쳐버리고 본 말은 본 곳에서 떨쳐버리라.
○ 이 말 저 말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것.
- 떡 가는 디 떼어 먹곡 말 가는 디 더 붙는다.
; 떡은 넘어가는 도중에 떼어먹어서 줄어들지만, 말은 옮겨가면서 더 붙게 되어 커진다.
○ 소문이란 원래보다 과장된 것임을 나타낸 말.
- 동냥찰리도 마주 비어사 들어간다.
; 구걸하는 자루(袋)도 마주 벌려야 물건이 들어간다.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와 同一한 뜻.
- 딱린 사람은 좀정 자곡 맞은 사람은 다리 벌엉 잔다.
; 남을 때린 사람은 마음의 불안 때문에 다리를 구부려서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

• 똥꼬망 ㄹ려우민 돌라지느냐?

; 항문이 가렵다고 해서 떼어 버릴 수 있느냐?

○이처럼 ‘父子之間’의 정도 끊을 수 없다는 것.

• 돌 멍청헌 건 담이나 싸곡 멍청헌 불락은 볶아나 먹곡, 사람 멍청한 건 씨 불래기가 없다.

; 쓰임새(특히 집 짓는데)가 좋지 못한 돌은 담이나 쌓고 불락(고기의 일종)은 볶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멍청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것.

* 불래기가 : 불 수가 (씨 불래기가 없다 : 씨 불 수가 없다)

• 대천(大川) 바당도 건너 봐야 안다.

; 큰 바다도 건너 봐야 얼마나 큰지 안다.

○무엇이나 바로 알려면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口]

• 말이 좋으면 둌비 사례 갔당 비제기 상 온다.

; 말이 좋으면 두부 사러 갔다가 비지 사고 온다.

(‘둌비’와 ‘비제기’가 거꾸로도 쓰인다)

• 말답지 안허민 대답을 말라.

; 말이 말갈지 았으면 대답하지 말라.

○상대방의 말이 이치에 어긋나면 맞서서 상대하지 말라.

• 말 존 집이 장 고린다.

; 말 좋은 집의 장이 상한다.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비웃을 때 쓰는 말.

- 먹다 죽은 발갈쇄나 기다 죽은 발갈쇄나.

; 많이 먹다가 (호강하다) 죽은 발가는 소나 기다가 (고생하다) 죽은 발가는 소나 마찬가지로이다.

○ 결국 죽으면 마찬가지로이므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것.

- 먹돌도 궁기가 나사 쓰주.

; 먹돌도 구멍이 뚫려야 쓸 수 있다.

○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에게 쓰는 말.

* 먹돌 : 제주도의 바닷가나 시냇가에서 볼 수 있는 매끈하고 아주 단단한 돌

- 먹기 궂인 장이 오래 간다.

; 먹기에 안 좋은 장이 오래 간다.

- 먼 디 남은 비추곡, 브딘 디 남은 켜다.

; 먼 곳에 있는 나무는 비추고,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는 사랑하게 된다.

○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자꾸 만나니 반기게 되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본 척 만 척하게 된다는 것.

- 문전에 저울대가 이서.

; 문 앞에 저울대가 있다.

○ 사람은 날 때 이미 빈부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

○ '인간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말.

- 목안에서 죽 쭈던 솔은 대정가도 죽 쭈다.

; 어딜 가도 자기가 하던 짓을 하게 된다는 것.

* 목안 : ① 옛날의 행정구역상 '제주목'

② 현재의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 봉성리 일대의 통칭

- 마만우천 (馬萬牛千).

; 말은 만 원 소는 천 원.

○ 말은 교통수단이어서 좋은 말은 좋은 소보다 비쌌었다.

- 물은 상산리 보내곡 사람은 도시로 보내라.
; 말(馬)은 나면 한라산에 보내고, 사람은 나면 도시로 보내라.
- 말은 쏠아 맛, 켜긴 씹어 맛.
; 말은 하여야 애기가 통하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
○ 할 말은 하라는 것.
- 물 죽은 밧디 까마귀 ㄹ치.
; 말 죽은 밧에 얹은 까마귀같이.
○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쳐 두고 다른 일에 끼어드는 사람을 비꼬는 말.
- 망할 놈 나민 흥할 놈 난다.
; 망할 놈이 있으면 흥할 놈도 있다.
○ 길흉은 공존한다.
- 머리 큰 양반, 발 큰 도둑놈.
; 머리가 크면 양반, 발(양팔을 벌렸을 때의 총길이로, 옛날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의 단위였음)이 크면 도둑놈.
- 멍심 흥민 멍심 덕이 있나.
; 명심(銘心) 하면 명심한 덕이 있다.
○ 모든 일에 조심하라는 것.
- 멍지 옷은 육촌까지 드신다.
; 명주 옷은 육촌까지 따듯하다.
○ 부자가 있으면 그 주위의 친척도 덕을 본다는 것.
- 모기 대맹이에 꿀을 내라.
; 모기 머리에서 꿀을 빼내라.
○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쓰는 말.
- 못 혈 말 허민 제 즈손에 망혈 자식 난다.
;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자기 자손에 집안을 망하게 할 자식이 난다.

-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비록 당대에는 해가 없을지 모르나 자손에라도 벌이 미친다는 것.
-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뜻.
- 무쇠도 꺾임시뮌 바놈텐다.
 - ; 무쇠도 갈고 있으면 바늘이 된다.
-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
- 먹돌도 뚫람시뮌 궁기 난다.
 - ; 먹돌도 뚫고 있으면 구멍이 난다.
- 初志一貫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목적을 성취한다.
- 메누리 다리가 헤영.
 - ; 며느리 흉을 보다가 흉 볼 게 없어서 다리 흰 것까지 흉보는 것.
- 고부지간(姑婦之間)의 갈등을 표현

[ㅂ]

- 바놈을 존등 메영 씨 지느냐?
 - ; 실을 바늘의 귀에 꿰지 않고 중간 부분에 묶어서 쓸 수 있겠느냐?
- 모든 일은 순서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
- 밥 먹음도 일 출림이라.
 - ; 밥을 먹는 것도 일 차리는 것이다.
- 봄 빙애기 지 앞씩 꿰어먹어.
 - ; 봄 병아리 자기 앞씩 헤쳐서 먹는다.
- 자식들도 다 자기가 벌이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것.
- 불 난 디 쏘 난다.
 - ; 불 난 곳에 쌀이 난다.
- 불이 나 다 타 없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도와 주기 때문에 쌀이 생긴다.

- 비바리 늙으면 7레질 정 산에 오른다.
; 처녀가 나이 먹게 되면 맷돌을 지고 산에 오른다.
○ 노처녀는 시집을 가야지 안 가면 다루기 힘들게 거칠어진다는 것.
- 밧을 사건 어염 보곡, 논을 사건 두둑 보라.
; 밧을 사려거든 (경계지워진) 둘레를 보고, 논을 사려거든 논 두둑을 보라.
- 비는 놈은 홀 수 어신다.
; (아무리 잘못된 자라도) 잘못을 비는 자에게는 벌을 줄 수가 없다.
○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와 同一.
-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 조그만 일이라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다.
- 부지런흔 부재 하늘도 못 막아.
;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 부지런히 살라는 것.
- 비는 놈안티 매질 허여져?
; 잘못을 비는 사람에게 매질을 할 수 있겠느냐.
○ 누우치는 사람은 때릴 수 없다는 것.
- 빗자락으론 개도 안 때려.
; 빗자루로는 개도 안 때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때리면 되겠느냐는 것.
- 배염 본 새 허대듯.
; 뱀을 본 새가 야단스럽게 지저귀듯.
○ 갈팡질팡 허둥대는 모습을 비유.
* 허대다 : 지껄이다. 수다떨다. 지껄이듯이
- 벋 줄 건 엇어도 도둑맞칠건 싣나.
; 친구에게 줄 것은 없어도 도둑맞을 것은 있다.

○너무 인색하지 말고 베풀 것은 베풀어라.

• 밥이 일한다.

; 먹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入]

• 사냥 들어사 개 2리친다.

; 사냥철이 되어야 개를 훈련시킨다.

○어떤 일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지 꼭 일을 당해야만 그때서야 준비하는 것은 때늦은 일이라는 것을警戒하는 말.

• 사돈집과 친간은 멀어사 혼다.

; 사돈집과 변소는 멀어야 된다.

• 사름과 족박은 신 대로 썬다.

; 사람과 족박은 있는 대로 쓴다.

○족박도 있는 대로 다 쓰는 것과 같이 사람도 어디에나 다 쓸모가 있다는 말.

• 삼 년 그물어도 할 일 다 못 하여.

; 삼년이 다 지나도 할 일을 다 못한다.

○일이 없다고 쉬어도 일은 없는 것이 아니다.

• 삼사월에 몰카죽도 바짝 (뽕강댕강 또는 땡강댕강).

; 삼사월에는 말이 말라 있어서 성깔이 있다.

• 상뒗집에 가 온 비바리 쓰지 못한다.

; 상뒗집 (마을 총회하는 집)에 갔다 온 처녀는 행실이 좋지 못하다.

○그 처녀가 잘못이 있어 불러 갔을 것이니까.

• 솔천에 소금도 줍아 놔사 차다.

; 솔전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 설기 궂인 애기가 나기 궂나.

; 임신기간 중 탈이 있었던 아이가 낳을 때도 어렵다.

○처음이 나쁘면 끝도 나쁘게 된다는 것.

• 숭어 뛰면 복쟁이 뛴다.

; 숭어가 뛰면 복어도 뛴다.

○남이 어떠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서 덩달아서 뛰는 것.

• 생이다리 하나로 백 놈 잔치하곡 다리 하나 남았다.

; 작은 것으로도 큰 잔치 된다.

• 석 술 먹은 맛음 백 술까지 간다.

;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 사돈을 허컬랑 줄 큰 디랑 허곡 쪼른 디랑 허지 말라.

; 사돈을 맺으려면 줄(새끼 낳은 것으로 초가 지붕 엮는 것)이 넉넉한 집을 택하라.

○그 줄이 넉넉하면 집 주인 마음 쫘쫘이도 넉넉하다는 것.

• 성 미칠 아시 어시곡 아방 미칠 아들 어신다.

; 형보다 나은 아우 없고 아비보다 나은 아들 없다.

○아무래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낫다.

• 사람은 천칭 만칭 구만칭이다.

; 사람은 천층 만층 구만층이다.

○사람마다 그 외모나 성품 등이 다 다르다.

[○]

• 애기 낳 때 혼 울이 어려와.

; 아기를 낳을 때 한 울이 어렵다.

○무엇에서 약간 부족할 때 쓰는 말.

•아시로 나느니 성의 좇으로 남만 못하다.

;아우는 무조건 형에게 복종해야 하므로.

•아이광 늙은인 케는 데로 간다.

;아이와 늙은이는 사랑해 주는 곳으로 간다.

•애기가 좋아 효자나, 부모가 좋아 효자지.

;자식이 착해서 효자가 아니라 부모가 좋아서 그 자식이 효자이다.

•애기 한 게와시, 뭇 한 장재(長者).

;아기(자식) 많으면 거지, 말(馬)이 많으면 부자.

•에미 품도 들러 본다.

;무엇을 잃어 버렸을 때 찾다가 지치면 어머니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

* 들러 : '들다, 들추다'. 들어, 들추어

•어머니 젖으로 살았주, 웨할망 콩죽으로 살아시랴.

;외할머니가 외손을 아무리 위해 쥐도 나중에 그 애가 크면 외할머니는 찾지 않고 어머니를 제일로 찾는다는 것.

•열 아기 나도 훈 보람 어서.

;열 아기를 낳아도 한 가지 보람도 없다.

○자식이 많아도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 쓰는 말.

•오죽헌 도깨비 해낮에 나랴?

;오죽하면(밤에 나온다는) 도깨비가 대낮에 나오겠느냐?

○오죽하면 그러겠느냐의 뜻.

•웨조캐 케느니 닭 질루앙 잡아 먹으라.

;외조카를 사랑하느니 닭 질러서 잡아 먹어라.

○외조카는 위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

- 용사 들어신디 뱀사 들어신디.
; 용이야 들었는지 뱀이야 들었는지.
○속에 든 말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을 가르킬 때 쓰는 말.
- 웨바농 코 툃다지기 쉽다.
; 외바늘 코 다치기 쉽다.
○무엇이든지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것.
- 유월엔 아진 방석도 아니 무너앉나.
; 절기로 봐서 유월에는 이사를 하거나 새로 지은 집에 옮겨가지를 않는다.
-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 동작을 빠르게 해도 복이 되는 수가 있고 게으름 피워 느리게 해도 복이 되는 수가 있다.
- 여자가 공부해영 불 솟으멍 솔천에 글 쓰느냐.
; 여자가 공부를 해서 불 지피면서 솔전에 글 쓸 것이냐.
○여자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 아니 거쨌 장구에 소리 나랴?
; 두드리지 않은 장구에서 소리가 나겠느냐?
○원인없는 결과란 없다.
* 거쨌 : '만지다. 건드리다'. 만진, 건드린.
- 유월불도 초당 물러 아지민 섭섭허다.
; 유월에라도 불을 켜다가 물러 앉으면 섭섭하다.
○공짜면 다 좋다는 것.
- 아들이민 어떻, 도깨아들이민 어떻.
; 아들이면 어떻고 도리깨아들(도리깨 열)이면 어떠냐.
- 이웃싸움 개싸움.
; 친한 사람끼리의 싸움은 개싸움과 같다.

○개가 금방 싸워 놓고도 서로 사이 좋게 지내듯 이웃싸움도 그러하다.

• 양살운 암개같이 양양하지 말라.

; 새끼 난 어미개처럼 짚어대지 말라.

○너무 포악하게 잔소리를 늘어 놓을 때 쓰는 말.

• 이월 방목, 시월 방둔.

; 이월부터는 가축을 풀어 놓고 시월부터는 가축을 가둬 놓는다.

[스]

• 찻박쇄가 제 가냥 아니 허곡 찻레붙으느냐?

; 찻박쇠(뿔이 뒤로 처진 소)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싸움을 붙겠느냐?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자신이 있으니까 덤비는 것이라는 것.

• 작은 케기 가시 썰다.

; 작은 고기라도 가시가 날카롭다.

○사람이 못난 것이 잘난 체하면서 까다롭게 굴 때 쓰는 말.

• 조는 집에 자는 메뉴리 든다.

; 조는 집에 자는 머느리 들어온다.

○雪上加霜

• 즈드는 사름 산지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앓나.

;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흔들거리는 돌 위에 앓는다.

• 좇 쪼른 건 써도, 글 쪼른 건 못 써.

; 글이란 것은 부족하면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

• 죽은 조밤 까먹듯이.

; 일이 수월해진다고 해서 절약하지 않고 낭비할 때 쓰는 말로 그까짓 것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 준 원순 싯곡, 안 준 원순 웃다.
; 돈을 꾸어 준 사람들이 받지 못할 때 흔히 쓰는 말.
○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면 그때 당시 한 번 나쁘면 그만이지만 돈을 꾸어 주고 나서 받지 못하면 서로 나쁘게 된다.
- 줄 사름은 새벤지름.
; 돈 등을 꾸어 쓰면 꾸어 쓴 척하지 않고 벌어서 쓴 척하는 것.
- 중이도 혼 고망 파리.
; 쥐도 한 구멍을 파리.
○ 이것 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전념하라는 것.
- 지름 손아 뿔 패 좇쟁.
; 기름을 쏟아 버리고서 깨를 주으려 한다는 것.
○ 큰 것은 날려 버리고서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을 비유한 말.
- 짐작은 무스거, 되약세기.
; 짐작은 무엇 되약세기(수량도구).
○ 부인들이 잘 쓰는 말로 잘 아는 척해도 그것은 짐작일 뿐 맞는 것이 아니라는 뜻.
- 짐진 사람이 땅을 훑나.
; 등에 짐을 진 사람이 짐 내릴 곳을 찾는다.
○ 필요가 있어서 일을 한다.
- 켜 물 성안 감시민 뜯 물은 도령므르 간다.
; 빠른 말이 성안(城內: 제주목內)가면 느린 말은 도령므르(地名: 現 신광부락, 신제주 부근) 간다.
○ 제가 아무리 빨라도 나도 나만큼 간다는 것.
- 질이 어시난 혼 질을 걷곡, 물이 어시난 혼 물을 먹나.
;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한 길을 걷고 다른 물이 없으니까 한 곳의 물을 먹는다.

○이웃지간에 사이 좋게 지내라는 것.

- 종 어신 양반 질 굶기랬 허여서?

; 종[노복]이 없는 양반은 자기를 굶기라고 하였느냐?

○부릴 종이 없는 양반은 자기 스스로 일하라고 하였다.

- 집집마다 술강알이 거명하다.

; 불을 때므로 그을려서 술 밑이 까맣게 된다.

[ㄷ]

- 체면쟁이 굶어 죽곡, 호서(豪奢)쟁이 추워 죽는다.

; 체면만 차리는 사람은 굶어서 죽고, 멋만 부려 사치하는 사람은 추워서 죽게 된다는 것.

- 천리 길도 홀터 햄시민 간다.

; 천리 길도 가고 있으면 간다.

- 참새는 죽어도 짹 한다.

;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는 성깔을 부리는 법이라는 것.

[ㄹ]

- 코 존 동녕바친 서도, 귀 존 동녕바친 웃다.

; 코가 좋은 거렁뱅이는 있어도 귀가 좋은 거지는 없다.

○관상을 볼 때 귀가 좋으면 부귀 영화한다는 믿음(지역에 따라 반대로도 쓰여서 코를 우위에 놓기도 한다)을 나타내는 말.

- 콩심은 더 콩나지 녹록이 나나?

; 콩심은 데 콩이 나지 벼가 나겠느냐?

○근본이 나쁘면 어쩔 수 없다는 것.

- 코고망이 두 개매 숨을 쉬주.
; 코구멍이 두 개니까 숨을 쉬고 산다.
○ 하도 어이가 없을 때 쓰는 말.
- 콧낭에 쿠지 나곡, 덩글남에 회초리 난다.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同一한 뜻.

[교]

- 꽃이 어디서 익어 응질에서 익주.
; 팔이 어디서 익어 작은 술에서 익지.
○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 날뛰어도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것.
* 응질 : (原) 응지리, ‘작은 술’을 일컫는 말.

[ㅎ]

- 하늘 울렁 날 존 날 이시멍, 브름 불렁 절 잘 날 이시랴.
; 하늘이 울어서 (천둥) 좋은 날 있으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잔잔한 날 있겠느냐.
- 해 어신 날 혼 시간 더 시쨌.
; 해 없는 날은 한 시간이 더 있다.
○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서 해를 기준으로 시간을 삼았으므로 흐린 날은 한 시간 더 있는 것 같았다.
- 혼 배에 새끼도 아롱다롱.
;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서로 다 다르다는 것.
- 홀아방 삼 년에 이가 서 말, 홀어멍 삼 년에 꺾가 서 말.
; 홀아비 삼 년이면 이가 서 말이고 홀어미 삼 년이면 꺾가 서 말이란 뜻.

- 홍혈 놈 나민, 망혈 놈 난다.
; 홍하는 놈이 있으면 망하는 놈도 있다.
- 한양도 팔보지기라.
; 진시황이 집터를 고를 때 지관이 그 중 좋은 터를 골라서 팔보지기라고 했다는 데서 연유.
○ 아무리 박식하고 잘 배워도 전부 알 수는 없다는 것.
- 회나 점으나 까마귀.
; 원래의 성질은 어쩔 수 없다는 것.
- 혼 둘에 개역 식 번, 즈배기 식 번 호는 메뉴리 집안 망해 와.
; 한 달에 미숫가루를 세 번, 수제비를 세 번 해서 먹는 며느리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 (옛날에 미숫가루와 수제비는 귀한 음식이었음).
○ 해프게 쓰지 말라는 것.
* 시간상으로도 음식 만드는 데만 소비하면 다른 일은 못 하므로.
- 허맹이 문서.
; 거짓 문서.
; 거짓으로 꾸며서 증거없이 이루어지는 것.
* 허맹이 : (보통 껌병을 부릴 때 사용되는 용어) 엄살
- 헨 갓쟁이 트집허듯.
; 트집을 잘 잡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

〈提報者〉	이	순	평 (광령 1리, 남 · 74)
	부	기	옥 (광령 1리, 여 · 68)
	고	기	원 (광령 2리, 남 · 85)
	고	인	택 (광령 2리, 남 · 63)
	강	안	영 (광령 3리, 남 · 75)
	홍	신	출 (광령 3리, 여 · 63)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金 和 順 (國教・4)
	金 貞 淑 (國教・3)
	白 信 賢 (國教・3)
	任 銀 淑 (國教・3)
	洪 誠 海 (國教・3)
	申 瑛 (國教・2)

目	次
〈光令一里〉	
I. 概 觀	II. 部落信仰
II. 公認宗教	III. 其他 雜神
III. 部落信仰	
IV. 家庭信仰	〈光令三里〉
V. 祖上崇拜	I. 概 觀
VI. 其他 雜神	II. 部落信仰
〈光令二里〉	III. 家庭信仰
I. 概 觀	IV. 祖上崇拜

〈光 令 一 里〉

I. 概 觀

光令一里는 市・郡의 경계인 無愁川에서 서쪽으로 중산간도로 주변인, 제주
시에서 10 km, 애월에서 13 km, 하귀에서 8.2 km, 외도동에서 3.1 km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곳에서 광령 2리, 3리와의 거리는 1km, 0.8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해발 120~200m의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분산되어 있고,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감귤 재배 붐이 일고 있다.

光令一리는 일정 시대에는 1구와 2구(현 2리·3리 포함)로 구분되었다가 4·3사건 이후 1리·2리·3리로 나누어졌다(1952年).

주변에는 뚜렷하게 높고 낮은 지형이 없고 완만한 경사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Ⅱ. 公認宗教

현재 光令一리에는 基督教 教會 1개소만이 정식적인 간판을 내걸고 포교활동을 할 뿐이나 그 外에 韓國日蓮正宗佛敎會와 仙道(甌山敎)가 있어 마을 안의 信徒의 家庭에 禮拜所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1. 基督教

1) 名稱 : 기독교 대한 감리회 광령교회

2) 沿革 : 1979년 5월 24일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建立되었다. 光令一리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미국의 메튜 감독과 한국의 강병훈 목사를 I. C. A.에서 이 곳에 파견하여 光令一리를 미국 중류사회의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 한다. 그들은 수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의 정미소 건립, 회관 앞의 광장 시설, 목욕탕, 양계장을 세워준은 물론 농기계와 재봉틀을 공급하였고 어린이 탁아소를 만들어 주었으며 화장실까지도 계량해 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達成하자 마을을 떠났는데, 그때 까지도 교회는 없었다 한다. 왜냐하면 메튜 감독과 강 병훈 목사의 목적은 교회 건립과 포교 활동이 아니라 ‘人間開發’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마을 주민이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I. C. A.에 마을 입구의 땅을 기증하

여 그 곳에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교회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인 편이다.

3) 教人現況

壯 年 { 男 : 4 명
 女 : 11 명

青 年 { 男 : 4 명
 女 : 9 명

學 生 { 男 : 22 명
 女 : 30 명

어린이 { 男 : 10 명
 女 : 20 명

이들 중 3분의 1은 教會에 충실하다고 한다.

4) 教會現況

垡地는 I.C.A.의 땅으로 약 1,000평이며 예배당의 건평은 28평 정도이다. 이 외로 주민을 위한 수련관이 따로 교회 옆에 세워져 있는데, 큰 방이 2개, 작은 방이 8개, 그리고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수련관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수련장으로도 빌려주고 있다. 교회의 운영은 I. C.A.에서 총괄한다.

5) 代表者

현재 목사는 담임 전도사가 이끌어 간다. 전도사는 서울 태생으로 81년에 감리교 神學大學을 卒業한 지 1년만에 이 마을로 파견된 '朴英宙'(30歲)라는 사람이다.

6) 布教地域

光令一里, 二里, 三里이다. 과거에는 海安洞에서도 왔었다 한다.

7) 禮拜 : 일요일(주일)에 드리는 '주일예배'가 禮拜의 주가 되는데, 그 외의 예배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새벽기도'라 하여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일에는 '수요기도회'라 하여 성경 공부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속회'라 하여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학생 예배가 있다.

8) 예배순서

※ 주일예배순서

묵상 기도→예배의 부름(성가대의 찬양)→찬송→교독문→신앙 고백→송영→기도→주의 기도→찬송→성경 봉독→말씀의 선포(박 영주 전도사)→찬송→예물 봉헌→봉헌 기도→교회 소식→찬송→폐회

2. 韓國日蓮正宗佛教會

1) 名稱：韓國日蓮正宗佛教會 濟州道 西部地域 光令班

2) 組織：韓國總合本部는 서울에 있고 濟州道 總本部는 濟州市光陽駐車場 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에 西部地域, 東部地域, 南部地域의 3개 地域으로 區分 組織되어 있다.

濟州道 總本部에는 本部長이 있고, 各 地域에는 地域長(濟州市·東部·西部·南部)이 있으며, 地域長 밑에는 各 里, 班이 있어 各 班長이 있다. 현재 光令班은 西部地域에 속하며 班長은 이 마을 出身인 고 창준(32·男)이 맡고 있다.

광령반은 제주도 총본부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있어 온 셈이다. 즉, 이 마을의 재일 교포인 고 창준씨의 仲父님이 귀향했을 때 布教한 것이 시초라 한다.

3) 教堂：독립된 教堂建物이 없고 班長인 고 창준씨 댁에 教堂을 차려 信仰集會를 하고 있다.

4) 信徒：처음에는 소년에서 장년까지 합하여 150명 정도였는데 現在는 5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신도는 광령뿐만 아니라 해안과 고성에서도 온다.

5) 集會：일주일에 한 번씩 各 班마다 謹行座談會를 갖는다. 좌담회는 教會에서의 禮拜의 性質과 같은 것으로, 매주 금요일에 제주도 전역에서 하는 지역 좌담회와 매주 토요일에 하는 班座談會가 있다. 謹行은 「南無妙法蓮華經

(남묘호랭객교)」을 염불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좌담과 質問時間을 갖는 것이다.

濟州道 總本部의 總會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 일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의 두 시간 동안 濟州道 總本部 事務室에서 갖는다. 이 總會는 各班長과 地域長이 모두 參席하며, 그외 成人信徒도 參席할 수 있다.

6) 특징 : 實際的이고 現世的인 傾向이 濃厚하다. 즉 현증을 중시한다. 이 宗教의 集會는 敎理의 說法보다 現世적인 福利를 위해서 모이는 것 같다. 그것은 이 集會內에서 論議되는 주된 內容이 疾病의 퇴치, 個人의 사사로운 生活 등 修養的인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特色은 그 集會가 生活의 相談場所가 된다는 점이다. 근행이 끝난 후 이 集會는 個人의 不安, 苦惱 등을 서슴없이 털어놓음으로써 서로 위안을 주고 그 解決策을 찾아 그 生活을 打開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宗教는 他宗教에서 볼 수 있는 禁酒, 禁煙 등의 規制가 없이 自由로운 生活 속에서 秩序를 찾고 公益을 圖謀하려 하고 있으며, 다만 他人에게 해가 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制約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집회 때는 南無妙法蓮華經을 漢字音으로 읽는다.

3. 甌山教(仙道)

1) 名稱 :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선도라 일컫고 있는데 甌山教의 一派다.

2) 敎人現況

선도는 10명 정도인데 거의 나이가 든 사람들로 70~80歲 가량의 老人들이다. 그들은 光令里 주민외에 장전, 수산, 고내, 상귀사람들도 있다.

3) 敎理

증산교는 死後世界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 現世에서 人間이 착한 일을 하고, 자녀는 조석으로 조상이나 부모에게 禮를 지키고, 父母 또한 子女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즉 現世人間의 世界를 神仙이 사는 世界와 같이 만들어 그런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것이 증산교의 敎理이다.

살아있을 때 慾心없이 착하게 살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神仙이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4) 教會現況

‘教會’라는 성스러운 이름은 붙일 수가 없고 평범한 집안에서 목덕신(신선)을 모신다. 단지 집안에 제단을 설치해 놓고 정수부가 아침, 저녁으로 찬물을 떠 놓아서 心的으로 기도할 뿐이다.

5) 禮 拜

平日에는 정수부(이 인생, 여·50세)가 朝夕으로 모시는 神仙께 축복한다. 정수부는 매일 촛대 2개, 향로 1개, 정수가 든 물그릇 21개를 올리고 기도한다. 定期的인 禮拜는 그들이 모시는 神仙의 탄일과 선화일(죽은 날)에 한다. 그들은 禮拜를 지성이라 하며 지성 때는 神과 人間이 같이 일을 본다고 한다. 일을 본다는 함은 서로 對話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모시는 神仙은 강증산, 강영산, 김운보인데 이들의 탄일은 각각 음력 9월 19일, 음력 5월 7일, 음력 1월 28일로 이때 모든 신도가 모여 지성을 드린다. 따라서 1년에 선화일까지 합하여 여섯 번 정기적인 지성을 드리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정수뿐만 아니라 과일·금단 등을 바치며 위패도 모신다. 원칙적으로 지성 때에는 경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은 교주의 仙化로 어려운 漢文으로 된 경을 읽지 못하는 형편이다.

6) 布教地域

우리나라의 本所는 全羅北道에 있고 濟州道の 本所는 濟州市 명도암에 있다.

7) 代表者

現在 교주는 없고 다만 정수부와 조선생이라는 사람이 仙道を 이끌어가고 있다. 교주가 7년 前에 仙化한 以來 두 신도가 農事를 지어 그 수확에서 나온 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의하면 대단히 재산이 많다고 한다.

정수부는 성읍 출신으로 김운보 선생이 仙化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곳에 거주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김운보 선생의 仙化 이후 처녀로 줄곧 이제까지 선도를 믿으며 지내고 있다. 조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은 朝天面 와산 출

생으로 60歲 된 老人이다. 그는 눈먼 선생님이라 하는 사람에게서 전도를 받아 이 교를 믿게 되어 30歲 때 이 마을에 들어와 아직까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Ⅲ. 部落信仰

마을 共同의 儀式을 行하는 場所로서 이 마을에는 部落祭堂이 두 개 있으니 하나는 男性主管의 儒式祭壇인 酺祭壇이요, 다른 하나는 女性信仰인 巫式祭堂인 本鄉堂이다.

1. 儒式部落祭(酺祭)

1) 祭名

酺祭라 한다. 酺祭는 陰曆 正月과 七月에 두 번 지내었으니, 正月의 祭를 正月祭・正酺祭라 하고 七月의 祭를 農酺祭 혹은 七月祭라 한다.

2) 祭神

土地之神位와 酺神之位로서 2神位이다. 前者는 마을의 땅을 다스리는 신이고, 後者는 農作物을 차지하여 잘 되게 하는 神이다.

3) 祭日

毎年 陰曆 正月 初一日 子時에 祭를 지낸다. 단, 마을에 불길한 事件(例: 장사)이 있을 때는 中丁日로 혹은 終丁日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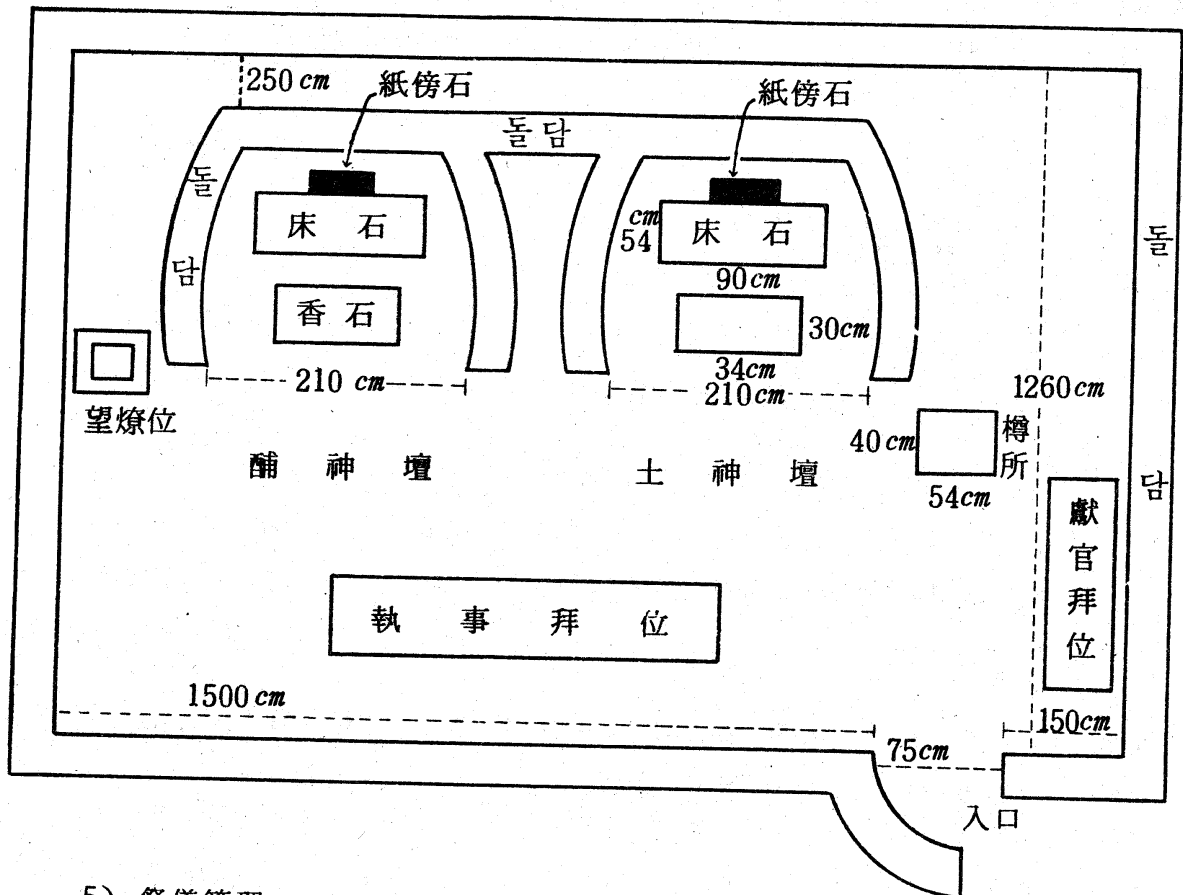
4) 祭場

① 名稱: 酺祭壇

② 位置: 원래 光令國民學校 뒷동산에 있었는데 五年前 교사 증축 관계로 마을 남쪽에 있는 조고밭으로 옮겨졌다.

③ 形態: 다음 그림 참조

光 令 里 醮 祭 壇



5) 祭儀管理

① 회소집 : 祭日 三日前 里長이 放送과 班長을 通하여 연락, 회의를 소집한다. 적어도 200인 이상이 參席한다고 한다.

② 名稱 : 鄉會라고 한다.

③ 참가자 : 마을의 各 戶에서 1人 이상이 參席하는데 대부분 호주가 參席하고 호주가 不在인 경우에는 20歲 이상 되는 대리인이 參席한다. 만약에 不參한다면 錢을 내는데, 錢은 解放 以前에는 좁쌀 소두 1되를 냈었는데 오늘날에는 돈으로 1,000원을 낸다.

④ 會議內容 : 회의 주재는 里長이 한다. 과거에는 鄉長이 會議를 주재하고 큰 권한을 가졌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웃어른으로 모시고 자문을 얻는다. 향회에서는 祭의 예산을 수립하고 畝草를 결정하며 祭官을 선출한다.

畝草란 祭를 준비하는 場所로서 祭官들이 祭를 지내기 3일 전부터 이 곳에서 畝宿한다. 또한 이 곳은 祭後 飲福場所로 使用된다.

6) 祭官

① 자격 : 入丈한 男子이면 祭官이 될 수 있는데, 그 중 獻官은 보통 학식(문장)이 있고 나이가 든 유지를 뽑는다. 중임은 不可하다(단, 적임자가 없을 때는 허용된다).

② 제관의 선출 : 동네 간의 화목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네를 고려해서 골고루 선출한다.

※ 初行禮 : 入丈한 사람이 처음으로 제관이 되었을 경우, 제관이 된 영광을 베푸는 禮를 말하는데, 보통 술, 담배 등을 사 와서 先輩祭官들을 대접한다.

③ 제관의 종류 : 十二祭官이 있는데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初獻官 : 첫째 헌관

亞獻官 : 둘째 헌관

終獻官 : 막내 헌관

執禮 : 禮를 주장하는 사람(오늘날의 사회자와 같다)

大祝 : 祝文을 고하는 사람

謁者 : 行祭할 때 獻官을 인도하는 사람

奉香 : 향을 받드는 사람

奉爐 : 향로를 들어 받드는 사람

司樽 : 行祭 때 술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부어 주는 사람

奉酌 : 술잔을 들어 헌관에게 드리는 사람

奠酌 : 헌관이 드리는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사람

贊者 : 집례가 부르는 笏記에 보조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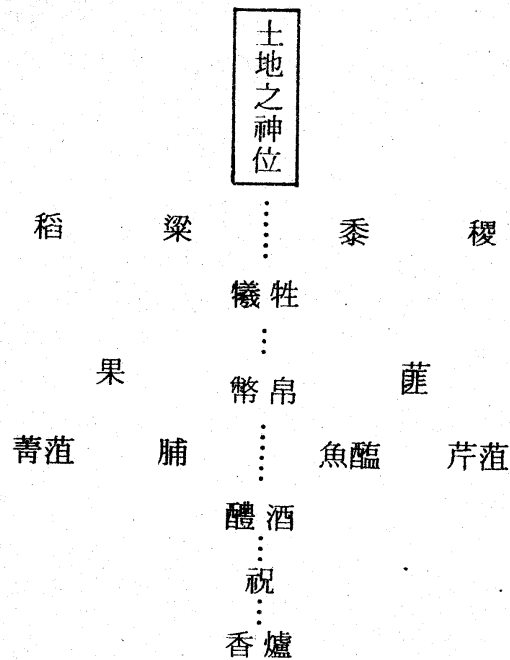
典祀官 : 祭物의 준비, 陳設, 撤床 등 祭物을 관리하는 사람(典祀官까지 합치면 祭官은 13인이 된다)

7) 祭物

① 稻, 粱, 黍, 稷의 메를 올리는 것이 原則이지만, 現在는 粱과 黍·稷이 없으므로 粱대신 稻(쌀메) 二器, 黍·稷대신 노란 좁쌀메 一器, 검은 좁쌀메 一器를 올린다.

② 犧牲 : 돼지 2 마리

- ③ 幣帛：明紬 석 자, 白紙 한 卷을 쓴다.
 ④ 果類：五色 과일을 쓰는데, 대추, 꽃감, 밤, 유자, 비자를 말한다.
 ⑤ 祭酒：醴酒를 使用한다.
 ⑥ 脯：쇠고기와 魚醢
 ⑦ 菁芹：菁菹(무우채)와 芹菹(미나리채)
 以上の 祭物이 準備되면 다음과 같이 陳設한다.



※ 희생은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구입하며, 祭物은 메를 제외하고는 날것으로 올린다.

8) 齋戒

祭日 3일 전 鄉會에서 선출된 祭官들은 그 즉시 舍草에 들어가 舍宿齋戒한다.

9) 祭享費：各 家戶에서 거두어 들이는데 解放 以前에는 戶當 좁쌀 소두 1 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돈 1,000 원으로 대치되었다. 祭官의 식비도 이 제향비에서 충당한다.

10) 行祭：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撤籩豆의 順으로 進行된다. 笏記參照.

〈光令一里 笏記〉祭順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事 謹具請行事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引詣土神位前 北向立 跪 三上香 獻幣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位前 北向立 跪 三上香 獻幣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土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土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小退跪 讀祝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醕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小退跪 讀祝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引詣土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土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醕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引詣土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土神位前 北向立跪 獻酌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醕神位前 北向立跪 獻酌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飲福受酢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西向立 跪 執事者以酌授獻官 受酌 飲卒 以授執事者 受虛酌 執事者以俎 授獻官 受俎 以授執事者 受虛俎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諸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撤籩豆 四拜 獻官及諸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西向立 執事者祝幣焚 盖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禮畢出 獻官以下次出 祝及諸執事 俱伏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禮畢出

11) 祝文：祝文은 해마다 그 해에 所願하는 사항을 漢文으로 文章化 하여 造祝한다. 今年에 쓰였던 祝文은 入手할 수가 없었다.

12) 禁忌：祭日 3日 前 舍草에 들어가 沐浴齋戒하며, 舍草의 여주인을 제외하고는 女子가 祭儀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13) 豫兆：行祭할 때 말 울음소리가 나면 吉, 소 울음소리가 나면 凶, 醴酒가 알맞게 발효하면 吉, 葬이 난 줄 모르고 祭를 지내면 凶, 마을제 이후 3일 이내에 비가 오면 吉, 돛대 씻는 양으로, 곧 고기를 썰었던 도마를 씻는 격

〈光令一里 笏記〉祭順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事 謹具請行事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引詣土神位前 北向立 跪 三上香 獻幣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位前 北向立 跪 三上香 獻幣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土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土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小退跪 讀祝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醕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小退跪 讀祝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引詣土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土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醕神位前 北向立 跪 獻酌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 引詣土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土神位前 北向立跪 獻酌 俯伏興 平身 次詣醕神樽所 北向立 執樽者 舉冪酌酒 引詣醕神位前 北向立跪 獻酌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飲福受酢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西向立 跪 執事者以酌授獻官 受酌 飲卒 以授執事者 受虛酌 執事者以俎 授獻官 受俎 以授執事者 受虛俎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諸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撤籩豆 四拜 獻官及諸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西向立 執事者祝幣焚 盖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禮畢出 獻官以下次出 祝及諸執事 俱伏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禮畢出

11) 祝文：祝文은 해마다 그 해에 所願하는 사항을 漢文으로 文章化 하여 造祝한다. 今年에 쓰였던 祝文은 入手할 수가 없었다.

12) 禁忌：祭日 3日 前 舍草에 들어가 沐浴齋戒하며, 舍草의 여주인을 제외하고는 女子가 祭儀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13) 豫兆：行祭할 때 말 울음소리가 나면 吉, 소 울음소리가 나면 凶, 醴酒가 알맞게 발효하면 吉, 葬이 난 줄 모르고 祭를 지내면 凶, 마을제 이후 3일 이내에 비가 오면 吉, 돛배 씻는 양으로, 곧 고기를 썰었던 도마를 씻는 격

으로 때에 알맞게 비가 왔다는 뜻에서 길하다고 한다.

14) 飲福: 祭를 지낸 후 솥草에 돌아와 고기를 삶고 동네 유지들을 請하여 祭 지냈던 음식을 먹는다. 그 가운데 날이 밝으면 그 자리가 鄉會자리가 되고 결산 보고 및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에 對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15) 本鄉堂參拜

祭가 끝나면 즉시 祭物을 차려 소집사 중의 몇 명이 당에 가지고 가서 제를 올린다.

2. 巫式部落祭(本鄉堂)

1) 位置: 마을의 동쪽 人家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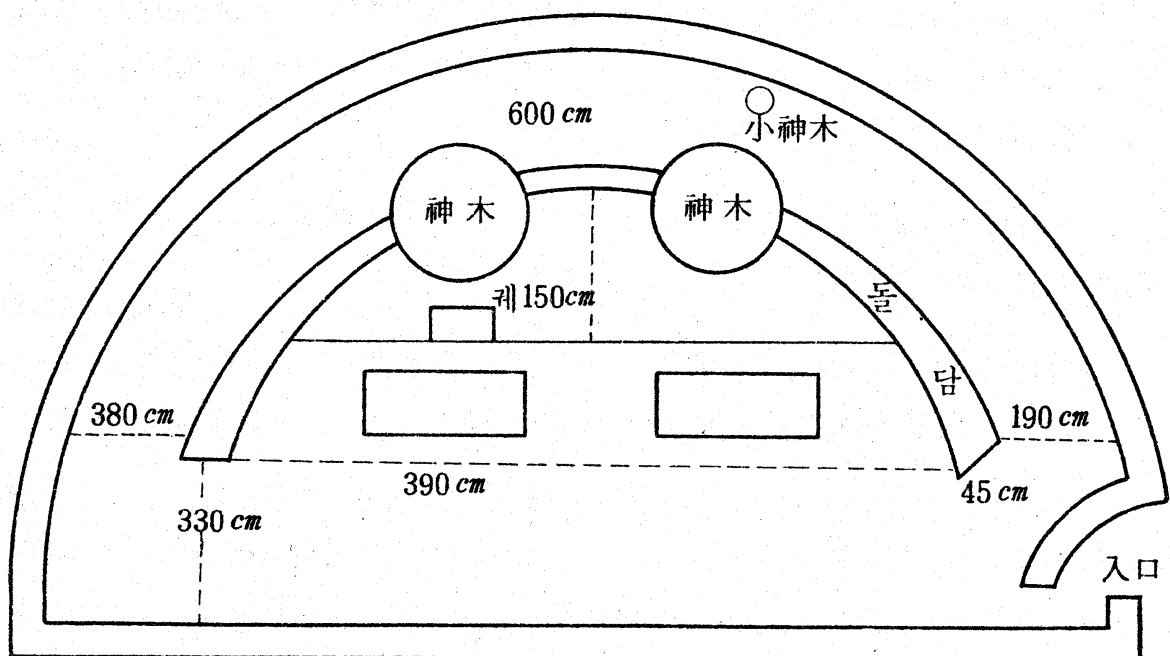
2) 形態: 돌담 울타리가 둘러 있고 가운데 古神木이 두 그루 서 있으며 이 神木 앞에 盤石 제단이 마련되고 둘레에 병풍처럼 돌담이 쌓여 있다. 典型的인 神木型 堂이다.

3) 祭神: 김씨 하르방, 송씨 할망이라 불리는 夫婦神. 本鄉神으로서 村落守護神이다.

4) 祭日: 擇日

5) 祭儀: 옛부터 당굿은 없었고 주로 正月에 女人들이 個別的으로 祭物을 하고 가서 심방을 빌어 祝願한다.

光令里 本鄉堂



Ⅳ. 家庭信仰

1. 土神祭

1年間の 家庭의 安寧과 生業의 豐登을 비는 祭이다. 예전에는 많이 지냈으나 지금은 일부 몇 집밖에 지내지 않는다.

음력 正月 초순에 택일을 하여 집 울타리 안의 정결한 곳에 祭床을 마련하고 靑衫에 儒巾을 쓴 祭官이 儒敎式 祭法으로 祝文을 곁하여 지내는 祭이다.

2. 告 祀

1年間の 집안의 安寧과 生業의 豐登을 빌기 위해 음력 正月 초순에 심방을 빌어서 집에서 지내는 巫俗式 祭儀다. 예전에는 많이 했으나 지금은 일부 집안에서만 行한다.

Ⅴ. 祖上崇拜

1. 名 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설(정월맹질이라 함), 寒食, 端午, 秋夕(팔월맹질이라고도 함)의 四大名節을 쇠어 왔는데, 지금은 설과 秋夕만을 쇠는다. 설은 모두 舊正으로 쇠고 있다.

寒食과 端午 때는 설이나 秋夕 때처럼 八寸以內의 親族이 모여 차례를 지내지는 않지만, 각 家戶別로 門祭만 지내거나 가까운 직계 조상의 茶禮를 지내고 있다.

2. 祭 祀

① 家門家禮로 집안마다 다름이 있지만 一般的으로 祭官을 기준으로 하여 曾祖父母까지 祭祀를 모시는 집안이 많다. 高祖父母 以上은 時祭로 옮겨진다.

② 祭祀때 紙榜을 쓰는데, 祖上의 직함이 없을 경우, 「學生」이라 쓰지 않고 「處士」라 쓰는 집안이 많다.

③ 祭祀때 門神에 對한 「門祭」를 지내는 것은 어느 집안이나 共通이다. 다만 그 門祭를 祖上에 對한 本祭를 지내기 전에 지내는 집안이 一般的이지만, 姜氏 집안에서는 本祭 後에 지낸다. 그리고 門祭床에는 羹(국)을 올리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 門祭를 지낸 後 그 祭床을 부엌으로 넘기면 門祭床의 祭物로 부엌의 조왕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은 어느 집안이나 같다.

④ 祭祀의 行祭 順序를 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參神 : 세 獻官이 나란히 서서 一同이 再拜한다.

降神 : 初獻官이 神位 앞에 나아가 焚香하고 술잔을 받아 香爐 위를 세 번 돌린 후 모새접시에 세 번에 나누어 붓고 獻官一同이 再拜한다.

모새접시는 접시 위에 띠 세 개를 찢막하게 끊어 묶어 걸친 것이다. 띠가 없을 때는 고사리를 몇 개 걸친다.

初獻 : 初獻官이 잔을 올려 再拜한다.

亞獻 : 亞獻官이 잔을 올리면 술가락을 羹에 걸친 후 再拜한다.

終獻 : 終獻官이 잔을 올리면 술가락을 메에 꽂은 후 再拜한다.

添酌 : 初獻官이 잔을 올리면 그 술잔을 終獻官이 올린 술잔에 세 번에 나누어 부은 후 獻官一同이 再拜한다.

獻茶 : 盥盥을 올려 메를 세 술 盥盥에 띠 놓고 술가락을 盥盥 그릇에 세워 걸친 후 獻官과 執事가 잠시 옆드려 있다. 집안에 따라서는 문을 잠시 닫았다가 여는 데도 있다.

雜食 : 執事が 羹과 술을 한 술씩 盥盥에 띠 놓고 祭床 위의 모든 祭物을 조금씩 끊어서 盥盥에 넣는다. 이를 「잡식한다」고 한다.

辭神 : 獻官一同이 再拜한다. 이어서 參拜者들이 차례로 再拜한다.

撤床 : 紙榜을 떼어 불살라 모새접시에 놓고 그 모새접시의 띠나 고사리를 盥盥에 합친 후 지붕 위에 던진다. 그런 후에 祭床의 祭物을 치우고 祭床을 정리한다.

Ⅵ. 기타 雜神

1. 강신이케 귀신

光令里 천하오름 위의 노리오름 가는 길 동쪽에 강신이케라는 굴이 있다. 이 굴에 牧者가 죽어서 된 귀신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 그 형상이 매우 흉칙하였다 한다. 그 귀신은 머리가 긴 무지력총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 케에서 직성이 약한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케 위로 머리를 형클어뜨린 무지력총각 귀신이 거꾸로 매달려서 총배를 내려뜨려 잠자는 사람의 목을 끌어올리려 했다고 한다. 제보자의 중부님은 개를 두 마리 데리고 사냥을 즐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길에서 날이 어두워 한테서 노숙하게 되었다. 마침 근처에 굴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굴은 무지력총각귀신이 나온다는 강신이케였던 것이다. 제보자의 중부님은 실제로 그런 귀신이 나올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겨 한번 경험해 보고자 개 두 마리와 함께 그 곳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듣던 대로 불쑥 무지력총각귀신이 나타나 총배를 내려뜨리자 개도 무서워서 제보자의 중부님에게 달려 그 날 밤 한잠도 못 자고 그 굴에서 밤을 새웠다고 한다.

2. 심방귀신

광령리 노리오름에서부터 산시미오름 백랑물 사이에서 심방귀신이 나왔었다고 한다. 그 근처에서 심방옷을 입은 여러 심방들이 곳을 하면서 노리오름에서부터 산시미오름 백랑물까지 내려오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귀신의 하체는 보이지 않고 상체만 보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심방귀신은 아마도 심방이 죽어서 된 귀신인 듯하다고 한다.

3. “고곡생이왓”의 어지랭이귀신

광령 1리 광령국민학교 근처에 고곡생이왓(밭)이 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고곡생이왓 건너에 있는 제사집에 제사를 보러 가고자 집을 나섰다. 그 사람은 분명히 불켜진 제사집을 향해 열심히 걸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지척에 있는 제사집에 당도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2천 평 되는 밭 안에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맴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보니 그 밭에 간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한다. 마을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마 어지랭이귀신에게 홀렸었는 듯하다고 한다.

4. 여우굴

光令一里 서쪽 변두리에 거린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지날 때면 여우가 큰대구덕을 든 떡장수로 변해서 사람을 흘렀다 한다. 하도 그렇게 하나 까 마을의 老人이 그 여우를 잡아 버렸다고 한다. 그 老人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서촌에 갔다 오는데 마침 떡장수로 변한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가 떡을 사 먹고 가라고 노인에게 말을 건네자 노인은 무조건 말에서 내려 떡장수를 말에 매달고 집까지 힘차게 달렸다. 집에 도착하니 老人이 기르던 사냥개가 떡장수를 물어뜯어 그 여우를 잡았다고 한다. 또한 그 여우가 살았던 굴이 있었는데 그 여우가 잡히자 여우굴이 자기네 동네를 향해 있다고 하여 진밭동네 사람들이 그 굴을 메워 버렸다. 이 때문에 진밭동네 출신은 귀가 약간 막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5. 무수천 들렁귀소(沼) 도채비

제보자의 장인이 도평리 동생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데 비가 축축히 내렸다. 원래는 사라리로 넘어 올 건데 사라리에 내(川)가 넘쳐서 무수천으로 오게 되었다. 지금은 무수천에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 때는 무수천 동네에 사람이 살았었다. 그래서 거기서 묵으려고 올라오는데 오래 전부터 빈 집이었던 들렁귀소에 불이 훤히 켜져 있었다. 제보자의 장인이 이상히 여겨 누가 불을 켜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불이 꺼져 버렸다고 한다. 오래 전에 그 들렁귀소에는 사까다라는 일본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그 후에 그는 산귀신이 되어 날씨가 어중간할 때면 나타나 춤다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6. 도채비

이 마을에 사는 귀릿할망 눈에는 도채비가 잘 보였다고 한다. 이 귀릿할망이 집에서 나오면 항상 웃목동산에 도채비불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사람이 막상 밖에 나와 보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7. 오시도루에서 날씨가 어중간한 밤이 되면 흰 장둑(수탉)이 나타났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명심하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 수탉 귀신이 사람을 흘려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光 令 二 里〉

I. 概 觀

1) 家口 및 人口

家口 : 88 戶 (農家 88, 非農家 없음)

人口 : 337 名 (男 : 171 名, 女 : 166 名)

2) 面 積

○總 : 770.8 ha (畓 : 0.8, 田 : 106, 林野 : 658, 其他 : 6)

* 1 戶當 耕地面積 : 1.21 ha

○戶當所得 : 3,035 千圓

○主 產 業 : 맥류, 서류, 감귤

○통신시설 : 1 대

○里 長 : 申 龍 起

○새마을 지도자

男 : 申龍起 女 : 李芳妍

II. 部落信仰

1) 祭 名

本郷祭 혹은 正月祭라 한다. 과거에는 正月에 당에서 당굿을 했었고, 七月에 七月醮祭라 하여 유교식 部落祭를 지냈었다. 그러나 解放後부터 七月醮祭가 폐지되었고 그 後 現在에 이르러서는 堂에서 儒教式 祭를 지낸다.

2) 祭 神

金氏 하르방과 宋씨 할망이라는 부부신을 모시는데 ‘本郷之神位’라 지방을 써 붙인다.

3) 祭 日

正月 初一日 子時에 한다. 때로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연령에 맞추어서 擇日하기도 한다.

4) 祭 場

마을 이사무소를 지나 물가 쪽으로 동쪽에 폭낭(팽나무)이 있는데, 그 곳이 本郷堂이다. 마을 사람들은 本郷堂을 ‘서당굴’ 혹은 ‘서당’이라 稱한다.

5) 祭儀管理

① 음력 선달 25일에 연말 정기 총회를 연다. 이 정기 총회를 郷會라 한다. 郷會에는 1戶당 1名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불참자는 거의 없다. 단, 상제가 된 집은 안 나와도 무방하다. 회의 소집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대대로 항상 음력 선달 25일에 모이는 것이 정해진 관습이다. 또한 회의의장은 자동적으로 이장이 된다.

② 회의 내용

郷會에서 하는 重要的한 일은 제향비를 마련하는 일과 제관을 선출하는 일이다. 제향비는 1戶당 현금 1,000원을 선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제관은 5名을 선출한다. 5名の 제관을 열거해 보면,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大祝, 典祀官이다.

제향비 마련과 제관 선출의 의논이 끝나면 마을의 다른 문제도 함께 타합한다.

6) 祭 官

① 祭官은 5名이며 제관의 자격은 入丈하면 可能하다. 즉 入丈해서부터 65歲까지의 나이를 가진 마을의 男子면 된다.

②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제향비 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물을 회사하여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③ 초행례(처음 제관이 되면 마을 사람에게 술 또는 담배를 베푸는 것)는

과거에는 했었으나 現在는 하지 않는다.

④ 祭官 中에 사고가 있으면 다시 선출한다. 사고란 제관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거나 혹은 제관의 집에 장사가 나는 등의 부정한 일이 發生했을 때를 말한다.

7) 祭 物

① 메 : 稻, 梁, 黍, 稷의 메를 올리는 것이 原則이나 梁대신에 稻(쌀메) 二器, 黍·稷 대신에 노란 좁쌀메 一器, 검은 좁쌀메 一器를 올린다.

② 犧牲 : 닭 1마리. 닭은 수탉을 날것으로 올린다.

③ 幣帛 : 명주 다섯 자, 백지 한 권

④ 脯

⑤ 海魚

⑥ 五果를 올린다. 五果는 밤, 대추, 비자, 꽃감, 유자가 原則이나 때에 따라 풍성한 과일로 대신한다.

⑦ 菁芹

⑧ 醴酒 : 청감주

8) 齋 戒

삼헌관이 祭 3일 전에 몸을 조심하고 外地에 나가지 않는다. 3일 전에 入祭하여 합숙에 들어가는데, 이 마을에서는 제 지내는 날 하루만 같이 전사관의 집에서 합숙할 뿐 자신의 집에서 生活하되 다만 外出禁止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

9) 祭享費

마을 주민들이 현금 1,000원씩 내어서 마련한다. 그 외에 마을 주민 중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정성을 드리기 위해 별도로 기부하기도 한다.

10) 行 祭

笄記가 없고 간단하다. 삼헌관이 동쪽으로 三上香하여 제를 지낸다.

11) 祝 文

축문은 옛날에 쓰던 것을 기초로 해서 약간 변형하면서 造祝한다.

12) 禁 忌

삼헌관은 入齋하는 날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씨 하르방이 돼지고기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여 싫어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씨 할망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 때문에 부부이면서도 당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

13) 豫 兆 : 날이 不順하면 不吉하다고 한다.

14) 飲 福 : 마을의 임원, 유지, 제관 등이 전사관의 집에서 飲福한다.

Ⅲ. 기타 雜神

마을 안 앞거리(내까름)란 곳에 아래, 위로 서쪽 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이 폭낭을 지나려면 그신새(귀신名)가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귀리'라 하여 生水나는 데에 왁왁한(캄캄한) 밤에 난 데 없이 시꺼멓힌(새까만) 도채비(도깨비)가 가달(다리)을 벌려서 서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귀신의 말을 듣고 그 가달 아래로 지나면 죽는다 한다.

〈光 令 三 里〉

I. 概 觀

1) 家口 및 人口

- 家口 : 75 戶 (農家 75 戶, 非農家 없음)
- 人口 : 341 名 (男 : 161 名, 女 : 180 名)

2) 面 積

- 總 675 ha (畓 : 1, 田 : 93, 林野 : 577, 기타 : 4)
- * 戶當耕地面積 : 1.25 ha

- 戶當所得：2,946 千圓
- 主 產 業：맥류, 서류, 감귤
- 通信施設：1 대
- 里 長：金城久 (37 歲)
- 새마을 지도자
男：김 성구 (37 歲), 女：이 길자 (39 歲)

II. 部落信仰

1. 儒式部落祭

① 祭名：土神祭라고 한다. 원래 光令一里, 二里, 三리가 합쳐서 정월제와 칠월제를 지냈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祭를 분리시키게 되자 정월제만 지내게 되었다.

② 祭神：지방은 「土地之神位」라고만 쓴다. 「醜神之位」는 모시지 않는다.

③ 祭日：毎年 正月 初丁日 子時에 지내는데, 마을에 불길한 사건이 있으면 中丁日로 연기된다.

④ 祭場：특별히 정해진 제장은 없고 해마다 때에 따라서 정결한 곳으로 방위를 고려해서 정한다. 단, 삼살방은 제외한다. 이 마을에서는 주로 마을 근처의 밭에서 거행되는데 祭日 三日前에는 제장으로 정해진 밭에 대나무를 사각으로 꽂아서 제단의 경계로 삼는다. 만약 비가 오면 천막을 치고 제를 지낸다.

⑤ 祭儀管理

a. 名稱：祭鄉會, 혹은 鄉會라 한다.

b. 會議召集：제촌지가 매년 음력 年末 (대략 12月 20日頃)에 소집한다. 제촌지란 鄉長을 보좌하고 醜祭의 管理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c. 참가자：1戶당 一人의 男性이 참가하는데 이 마을은 가구가 75戶로서 매우 작은 마을이므로 불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결도 없다. 결이란 불참자로 하여금 벌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d. 會議內容

前년에 제관을 지낸 사람들이 다음 해의 제춘지(上차지·下차지)를 선출하면 제춘지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예산을 결정한다.

② 제향비 : 특정한 제향비는 없으나 마을 공금이나 부락주민이 기부한 정성으로 하며, 외지에 나가 있는 그 지방 부락민들도 성금을 협조한다(광령 1리, 2리와 합쳐서 부락제를 지낼 때는 좁쌀 소두 한 되를 냈었다).

③ 제관 선출 : 13제관을 선출하는데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회의 내용 중 가장 중심이 된다.

④ 제 관

a. 제관의 자격 : 耳目口鼻에 상처가 없어야 하며, 해산한 집이나 부인이 경도가 있을 때에는 제관으로 뽑힌다 하더라도 이를 사양해야 한다. 제관은 立丈하지 않은 자도 가능하며 중임할 수 있다.

b. 初行禮는 반드시 한다.

* 初行禮 : 光令 - 里 參照

c. 제관의 종류

13제관인데 광령 1리 12제관에 司樽(술독을 지키는 사람)이 덧붙여진다. 그리고 제춘지 중 상차지는 전사관이 되나 하차지는 제관이 되지 않고 제춘지일 뿐이다.

⑤ 祭 物

a. 메 : 四器를 올린다. 稻, 梁, 黍, 稷의 메를 올려 왔는데 지금은 곧쌀(白米)에 二器, 흐린좁쌀(차좁쌀)에 一器, 모인좁쌀에 一器를 올린다.

b. 犧牲 : 돼지 1마리인데 얼룩돼지는 금하고 순색돼지라야 한다. 보통 마을에 있는 돼지로 하는데 없을 때는 他地에서 구입해 온다.

c. 幣帛 : 白紙 한 권과 자치(명주) 열 자를 올린다.

d. 과일 : 五果(밤, 대추, 꽃감, 유자, 비자)를 올린다.

e. 채소 : 菁芹(무우채, 미나리채)를 올린다.

f. 脯는 쇠고기로 하며 魚醢도 올린다.

g. 醴酒 : 생감주

h. 荊鹽 : 소금

⑧ 齋戒 : 제관으로 선출된 자는 祭 4일 전부터 上차지 집의 入祭屋에서 合宿하며 外出은 不可하다. 제관이 合宿에 들어가면 肉食과 술을 禁한다.

※ 上차지집(합숙소) : 부인이 폐경한 집으로 선택한다. 祭物準備도 여기서 한다.

⑨ 祭享費 : 돈으로 내는데 특정한 액수는 없고 정성껏 바치며, 부락의 공금도 합쳐서 사용한다. 그리고 他地에 나간 이 마을 出身도 성금을 내놓으며 성의가 있는 집은 돈이 아니라 제물로써 정성을 드린다.

⑩ 行祭 : 光令一里의 笏記와 비슷하나 '醺神之位'가 없으므로 제단이 하나 일 뿐이다.

⑪ 祝文 : 해마다 造祝한다. 祭가 끝난 후 불사른다.

⑫ 禁忌 : 上차지 집이 결정되면 祭 4일 전에 금줄을 쳐서 신성시한다. 또 한 마을에는 生水가 나는 곳이 있는데(세 곳), 이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금줄을 치고 신성시한다. 그리고 제를 지낼 때의 모든 물은 이 곳의 물을 쓴다.

※ 生水가 나는 곳은 세 군데인데 명칭은 큰자중이 · 셋자중이 · 작은자중이이다.

⑬ 豫兆 : 합숙소에서 제관끼리의 불화가 있으면 不吉. 제물로서의 메는 밥그릇에 생수와 생찰(생쌀)을 알맞게 넣고 그대로 찌서 한다. 이때 메가 골고루 찌져 잘 되면 吉하다고 한다.

⑭ 飲福 : 上차지 집에서 飲福한다. 하집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청하여 飲福하고 불참자에게는 집으로 飲福할 몫을 가져간다.

2. 巫式部落祭

巫式部落祭는 마을 전체로 行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행한다. 당은 광령 1리와 자운당에 합쳐져 있던 것이 광령 3리로 약 60여 년 전에 분리됨에 따라 떨어져 나왔다.

① 位置 : 부락 건너 냇가 500m 지점, 폭나무(팽나무)가 있는 곳에 있는데 속칭 '좌중왓'이라 한다.

濟州島部落誌 (Ⅱ)

- ② 名稱 : 특별한 명칭은 없는데 一般的으로 할망당이라 한다.
- ③ 形態 : 神木 팽나무 앞에 돌로 제단을 만들고 돌로 울타리를 둘러 놓아 있다.
- ④ 祭神 : 光令一里와 같다.
- ⑤ 祭日 : 개별적으로 택일하여 제를 지낸다.
- ⑥ 祭의 執行者 : 이 마을에는 심방이 없고 개별적으로 아랫 마을의 심방을 청해서 한다.
- ⑦ 祭物 : 규정된 것은 없으나 모든 음식을 익힌다. 단, 제물에는 돼지고기를 제외한다. 그 해 수확한 곡식에서 제일 먼저 할망당에 바치기 위해 할망 뭇을 떼어 놓고 그 나머지로 메와 떡을 만든다.
- ⑧ 祭次 : 일정한 제차는 없고 스스로 기원한다. 남자는 대부분 堂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Ⅲ. 家庭信仰

1) 토신제

- ① 제명 : 토신제
- ② 제신 : 土地之神
- ③ 제일 : 정월에 택일해서 하되 매년 하는 것과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다.
- ④ 제장 : 土神祭는 물왓(地名)에 병풍을 쳐서 子時부터 시작한다.
- ⑤ 제물 : 마을제, 부락제와 同一하나 시루떡이 첨가된다.
- ⑥ 행제 : 흘기는 없고 축문을 고하되 잔을 세 번 올리면서 세 번 고한다. 직배하지 않고 행배한다.

2) 문전제

- ① 제명 : 문전제
- ② 문전제는 축문을 고해서 유교식 제법으로 한다.
- ③ 원래는 무당을 빌어서 했었다.

Ⅳ. 祖上崇拜

1) 명절

① 자중위와 진밭동네 사람들은 음력으로 설을 쇠며, 광뚝위는 양력으로 쇠고 있다.

② 추석은 8촌 이내 친족이 모여 지내는데, 한식, 단오는 3~4년 전부터 식구들끼리 간단히 한다.

2) 제 사

제사는 3대 증조부까지 하며 그 이상은 묘제를 한다. 문전제는 제사 지내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梁氏 집안은 門祭를 뒤에 한다.

歲 時 風 俗

指導教授 梁 淳 珽
班 員 李 貞 炫 (國教・4)
高 愛 玉 (國教・3)
吳 昶 奉 (國教・3)
林 姬 廷 (國教・3)
金 孝 貞 (國教・2)

目

次

- | | |
|---------------|----------------|
| I. 正月의 세시습속 | VII. 七月의 세시습속 |
| II. 二月의 세시습속 | VIII. 八月의 세시습속 |
| III. 三月의 세시습속 | IX. 九月의 세시습속 |
| IV. 四月의 세시습속 | X. 十月의 세시습속 |
| V. 五月의 세시습속 | XI. 동짓달의 세시습속 |
| VI. 六月의 세시습속 | XII. 설달의 세시습속 |

I. 正月의 세시습속

1) 정월명절

음력 정월 초하루날을 <정월명절날>이라 하여 해가 뜬 후에 차례를 지내는 데, 모시는 신주는 대개 삼대조(三代祖)까지이다.

이 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출발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하루 동안은 특히 행동, 마음가짐에 많은 제약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 하루의 운세가 일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에 올리는 제물로는 메, 갯, 떡, 지주(祭酒), 적갈(돼지고기), 탕쉬(채소) 따위인데, 이러한 제물은 세배하러 간 사람들에게 주로 대접하였다. 세배는 단지, 생존하는 어른에게 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어 3년 상중에 있는 집 에까지 세배를 간다.

세배를 하면서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서>라는 덕담이 오고 간다.

2) 부락제

정월에 하는 부락제는 <춘제>라 하여 정월 첫 정(丁)일날로 잡았는데, 제를 주도하는 제관은 12사람으로 제관의 자격은 마을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한 사람에 한하며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다.

제를 지낼 때는 남자들만이 주관하였으며 비는 내용을 <축>이라 하여 고정적인 제문이다 그 해에 특별히 기원하는 사항을 적어서 제를 지내면서 읽는데, 이를 <축 읽다>라고 한다.

이 때의 제물은 쌀과 물을 직접 제단에 올릴 그릇에서 밥을 지은 메와 장닭 한 마리, 술 한 되, 돼지 한 마리, 오과(대추, 비자, 밤, 꽃감, 굴) 등이다.

제가 끝난 후에는 마을의 남자들만이 모여서 논다.

3) 정월보름

① 연 날려 보내기

연은 설달 보름에서 정월 보름까지 날리는데 정월 보름날에는 지금까지 날려 온 연을 멀리 띄워 보내 버리는 것이다. 이 때는 연줄에 불 잘 타는 나무 뿌리 썩은 것에 불을 붙여 날리는데, 줄이 끊어진 연이 멀리 날아갈수록 그 연의 임자는 한 해의 운수가 좋으며 이렇게 연에 불을 붙여 날려 보냄으로써 한 해의 액을 막는다고 믿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릴 때는 동네 어른들은 자기네 보리밭에서 날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는 연을 날리면서 자연히 보리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을 날리면서 연싸움을 하게 되는데 연싸움을 <타발>이라고 한다. 연싸움을 할 때는 연줄에 밥풀을 메기고 거기에 유리가루를 붙여서 연줄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이로써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데 끊긴 연이 날아 가다가 남의 지붕에 걸리게 되면 그 집은 <액 들어왔찌> 하면서 연싸움에서 진 연이 걸

린 집은 한 해 동안 운이 없다고 하여 그 연을 그 집에서 태워 버림으로써 방
액한다고 했다.

(2) 보름떡

떡으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것으로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 시루
의 떡을 찐다. 이 때에 각 <징>마다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여 다 찐 후에 그
<징>이 선 집은 한 해에 운이 불길하다고 하였다.

(3) 콩웃

콩으로써 한 해의 운을 점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이 있다. 즉, 콩 열두
방울에는 각 달을 표시하고 콩 다섯 방울에는 금·목·수·화·토를 표시하여
점치고자 하는 사람이 이를 던져서 나타난 달과 금·목·수·화·토에서 나타
난 것을 연관시켜서 민간 서적인 <백방비결>에 의해서 한 해의 신수를 점쳤
다.

또한 대추나무 속에 콩방울이 들어갈 만큼 열두 구멍을 파서 그 구멍에 콩
을 담는다. 각각의 구멍에 달을 표시한 후 이를 물에 불리는데 <물랑물랑>하
게 물에 잘 불려진 달에는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며 <도락도락>하게 잘 불
려지지 못한 달에는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리라 예견하였다.

4) 입춘

입춘날을 <새절 드는 날>이라 하여 한 해의 절기의 시작으로 그 날은 날
씨도 좋고 불쾌한 일이 없어야 한 해가 무고하다고 생각하여 행동에 많은 제
약이 주어졌는데, 특히 이 날에 여자가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
다.

입춘날에 행해지는,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방법으로는 보리뿌리점이 있는
데, 이는 각기 자기 밭에 밭을 내린 보리를 뽑아 보아서 그 밭의 수가 홀수이
면 한 해의 농사는 가물 것이며 짝수이면 비가 알맞게 내려 풍년이 들게 되리
라 믿는다.

Ⅱ. 二月의 세시습속

1) 영등

영등제는 해안 부락을 중심으로 한 제레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로 제를 지내지는 않으나 각 집안에 따라서 바다에 나가 죽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바다와 관련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한 제를 지낸다.

이 지역 사람으로서 바다에서 죽은 경우는 대부분 말을 팔기 위해 육지로 가다가 폭풍을 만남으로 해서 발생되는데, 죽은 사람의 무덤은 <허재비>를 만들어 묻고 여기에 제를 지낸다.

영등날에는 빨래를 하지 않으며 또한 쇠똥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막후데>라는 벌레가 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한식

한식날은 청명절 후일이나 또는 청명 동이날로 잡는데, 이 날은 주로 선묘를 돌보는 날로 여긴다. 즉, 산담을 한다거나, 비석을 세우거나, 또한 무덤에 돋은 가시나무 등을 파 버려야 다시 그 자리에 돋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별히 한식날을 명절로 여겨서 제를 지낸 것은 아니나, 집안에 따라서 <문전맹질>이라 하여 해뜨기 전에 간단한 의식을 행하였다.

Ⅲ. 三月의 세시습속

○ 묘제 (墓祭)

묘제를 지내는 날은, 주로 종친들끼리 의논해서 제일을 잡는데 정유일(丁酉日)이나 정사일(丁巳日)에 많이 지낸다.

묘제라는 것은 증조에서 지제(止祭)된 선령에 대한 제의로서 집안에서 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선묘에 가서 지내는 묘의 제사이다.

이 날은 그 조상의 혈족들이 모두 참여하므로 많은 수가 선묘를 찾게 된다.

Ⅳ. 四月의 세시습속

1) 망종 (芒種)

망종은 싹이 말라서 보리가 열매를 맺어 거두어들이는 보리 벨 시기로서 망종이 일찍 들면 그 해 보리가 좋고 늦게 들면 보리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망종이 일찍 들면 풋보리를 먹을 수 있으나 늦게 든 경우에는 풋보리를 먹지 못하고 또한 보리가 쓰러져서 잘 벨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지신통기

밭에 검질(김)을 매는 일은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번갈아 가면서 밭의 검질을 매는데 이를 <수눌은다>라고 하였다.

이는 협조 체제로서 자기 집에 검질을 매는 일이 매우 급할 경우 마을 사람 수십 명을 동원하여 적기에 일을 하고 또한 다른 집이 바쁠 때는 도와 주는 형태로 서로가 협조해서 재미있게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해 주었다.

V. 五月의 세시습속

1) 단오

단오날을 명절이라 하여 제를 지내는 것은 아니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네뛰기를 하였다. 그러나 단오날 즈음에는 농사가 바쁘므로 가끔씩 행해졌다. 큰 나무인 <폭낭(팽나무)>에 배(질빵)를 걸어서 그네를 뛰었는데, 단지 부녀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가하였다.

2) 개역

개역(미숫가루)은 보리를 다 수확한 후에 해서 먹는 일종의 칠갈이(時食) 음식으로서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에 타서 먹거나 밥에 말아 먹기도 하였다.

개역은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네들이 모두 좋아하여 개역하는 것을 일년의 중요한 일로 여겼다.

개역은 보리를 솥에서 볶은 다음 2래(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으로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있다.

Ⅵ. 六月의 세시습속

1) 닭 잡아 먹음

닭 잡아 먹는 날은 6월 20일로 이 날에 닭을 잡아 먹으면 만병통치로 보약이 된다고 믿었다.

특히 닭을 골 때는 지네를 넣으면 더욱 그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닭과 지네는 원수 사이로서 속담에 자주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닭광 주냉이(지네)>라고 비유되는데 일단 죽은 지네를 넣고 고았을 때는 훌륭한 보약이 된다는 것이다.

2) 마소 올리기

종자를 뿌리는 부종(附種) 후에 <밭 갈린다>라고 하여 마소 떼를 앞세우고 뱅뱅 돌면서 씨를 밟아 준다. 이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종자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흙덩이를 잘게 부수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때에 부르는 노래로서 <밭 불리는 소리>는 더욱 흥을 돋운다.

이렇게 밭을 다 밟은 후에는 마소를 <천하오름>이라는 산에 올려 보내고 9월 그믐 경에는 다시 내려온다. 이는 자연 방목으로서 마소 스스로가 먹이를 찾아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의, 공동으로 행하는 방목을 담당하는 사람을 <테우리>라 하고 <테우리>에게 공동으로 마을 사람이 일정량의 곡식을 주고 자기들의 마소를 맡긴다.

3) 갈중이 만들기

<갈중이(갈옷·하의)>는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 만들어 입는 노동복으로서 주로 풋감이 여물어 가는 시기에 만든다.

풋감이 여물면 이를 따서 뺑는다. 뺑은 후에 즙을 내어 이 즙을 옷감(무명)에 적서 햇볕에 말린다. 처음에는 몹시 뻘뻘하고 거칠며 색이 붉으나, 조금 지나면 부드러워지고 색도 갈색으로 변하여 노동에 알맞는 작업복이 된다.

이러한 <갈중이>는 매우 질기며, 더운 줄을 모르며 또한 땀냄새가 나지 않으며 방수 효과도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다.

4) 테우리제

테우리제는 <천하오름>에 마소를 6월 초닷새까지 올려 보낸 후에 6월 보름 경에 올리는 제의이다.

제의 주관은 <테우리>가 되며 산에서 행해진다. 제물로서 메, 지숙, 제주를 올리고 축을 읽게 되는데 축은 목장의 마소들이 무사히 지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를 지낸 경우에는 마소들에게 아무 일이 없으나 만일 제를 지내지 않고 그냥 마소를 방목시켰을 때는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병에 걸리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테우리제는 이조 말엽에 생겨났는데 일제 시대에 방목을 못 하게 하므로 목장 형식으로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방목을 하게 하고 총감독으로 <테우리>를 두게 된 것인데, 테우리는 2~3명 정도이다. 테우리는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마다 원하는 사람을 정하는 형식으로 맡겨진다.

Ⅶ. 七月의 세시습속

○ 백중

① 백중제

백중제는 음력 7월 14일에 지내는 제의로서 가축의 번성을 비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마굿간에서 행해지는데 이는 집의 <토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제물은 보통의 제와 비슷하나 갯을 올리지 않는다.

② 물맞기

백중날의 물맞기는 만병통치라 하여 물맞으러 다닌다. 주로 열독, 땀띠 등의 더위에 관계되는 병에는 특히 좋다.

백중날에는 옷을 내어서 햇볕에 쏘이면 좋고 만약에 비가 오면 만물에 해가 된다고 믿었다.

Ⅷ. 八月의 세시습속

1) 소분

8월 절기가 되면 선묘에 가서 벌초를 하게 되는데 벌초는 8월 초하루부터 15일 전에 끝나쳐야 한다. 초하루에 보통 <모든벌초>를 한다.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못지 않게 소분하는 것을 중시했다.

2) 추석명절

추석날에는 온갖 음식을 푸짐히 장만하였다. 평소에는 보기 어려웠던 송편, 제편(설기), 쌀과 보리를 섞어서 만든 새미떡, 상떡, 온갖 채소를 올렸다.

특히 송편은 떡을 만든 후 찰 때는 솔잎을 뜯어다가 솔에 넣고 그 위에서 찌낸 것이다.

3) 출 비기, 말뚝 줍기

팔월명절을 전후하여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마소의 먹이로서 <꿀>을 베어다가 말린 다음 집에 쌓아 둔다.

또한 <물뚱망태이>를 둘러메고 산과 들에 나가 말뚝을 줍는데 이는 잘 말려서 겨울 동안의 땀감으로 쓰기 위함이다. 말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 달리 뚱이 깨끗하며, 일단 불이 붙으면 한꺼번에 타버리지 않고 서서히 타기 때문에 <굴묵>을 때는 데는 연료로서 가장 좋다.

IX. 九月의 세시습속

4월 망종에는 보리를 거둬들이고 9월 상강에는 조, 나룩(육도), 콩, 벼(수도)를 거둬들인다.

X. 十月의 세시습속

10월에는 지붕을 새로 이는 것을 큰 일로 여기는데, 이는 주로 <떠(茅)>로 2년에 한 번씩 새로 인다.

그러나 지붕을 손보는 것을 매우 엄밀히 행하였기 때문에 <子·午·卯·酉> 일에는 지붕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 날에 지붕을 고치면 반드시 그 집은 망하게 된다고 여겼다.

XI. 동짓달의 세시습속

○동지팔죽

동짓날에는 팔으로 죽을 쑤어 먹는데 이는 귀신이 붉은 색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어떤 집에서는 먼저 문전상을 차려 간단히 제를 올린 후에 집 주위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뿌린 후에 팔죽을 먹었다.

XII. 설달의 세시습속

설달에는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모여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업도 한다. 무명을 찢다거나, 새끼를 꼬아서 맥을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고 망탕이, 멍석, 짚신 등을 짚다.

○설달 그믐밤

설달 그믐날에는 집안 어른께 한 해 동안을 무사히 보내게 해 준 데 대해 감사의 세배를 하고 모여서 논다.

또한 설달 그믐밤에는 아이들에게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신구간

신구간이란 입춘 3일간을 말하는데 이는 지상의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이 없으므로 그 사이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기간은 옥황상제의 임명을 받아 내려온 신들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어 옥황으로 올라가고 다시 새로운 신이 부임해 오는 교대 기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들이 인간 세계를 떠난 틈을 타서 가옥을 다시 고치고 이사를 하는 것이다.